

조선왕조 의궤

심화연구자 이 동 연(한국기술교육대학교 디자인공학)

CONTENTS

제1부 연구개요

1장. 조선왕조 의궤의 연구개요

1. 머리말
2.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2장. 조선왕조 의궤의 의의

1. 의궤란 무엇인가
2. 의궤 편찬의 배경과 의의
3. 기록문화로서의 의의
4.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의의
5. 전통문화계승으로서의 의의

제2부 조선왕조 의궤

1장.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전통, 의궤

1. 의궤는 무엇을 기록한 것인가
2. 의식은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3. 의궤의 제작과 보관

2장. 의궤의 분야별 자료적 특성

1. 서지적 특징
2. 한국사 사료로서의 특징
3. 미술사 사료로서의 특징
4. 건축사 사료로서의 특징

제3부 대표디자인, 의궤

1장. 오례에 근거한 대표적인 의궤

1. 왕의 탄생
_ 왕실의 태를 봉인한 기록

2. 왕의 결혼

- _ 조선 왕실 혼례의 이모저모

3. 왕의 제사

- _ 왕조의 통치 질서를 표현하는 제사

4. 왕의 죽음

- _ 국왕의 장례에 관한 기록

5. 왕의 행차

- _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간의 장대한 역사

2장. 왕실문화 기록, 의궤

1. 왕의 건축

- _ 조선왕조 문화절정기의 대역사

2. 왕의 활쏘기

- _ 국왕과 신하가 함께하는 활쏘기

3. 궁중잔치의궤

- _ 궁중잔치의 화려한 멋

4. 조선시대 악기 만들기

제4부 연구맺음

1장. 조선왕조 의궤와 문화디자인

1. 조선왕조 의궤의 대표디자인 선정의 제안
2. 의궤의 문화디자인 콘텐츠화와 상품화를 위한 제안
3. 의궤의 디자인교육 콘텐츠 활용 사례

2장. 맺음말

부록_ 세계기록유산

■
제 1부
연구개요

1장. 조선왕조 의궤의 연구개요

1. 머리말

『한국디자인DNA 심화연구 : 조선왕조 의궤』는 세계기록유산인 〈의궤〉를 통해 한국디자인의 특성을 찾아내고 주요 컨셉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또한 연구결과로는, 의궤 중에서 한국적 디자인의 대표성과 독창성을 지닌 대표 디자인(대상)을 추천하는 일이다.

의궤는,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전통을 담고 있어 당시 문화전반의 다양한 분야의 방대한 정보로 이루어진 기록물이다. 의궤 안에 있는 모든 자료와 그림은 디자인 전 분야의 한국적 디자인 DNA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번 한국디자인DNA심화연구 사업에서 시각문화 분야의 연구대상으로서의 〈조선왕조 의궤〉가 선정되었으나, 의궤가 한국적 시각문화의 대표 형식(Style)으로만 규정되고 분석하기에는 그 안에 담겨진 많은 정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하고 있어, 하나의 특정 분야로만 집중하여 그 연결고리를 끊어서 조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내용의 범위를 시각문화에만 한정시키기보다 문화전반으로 폭넓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점을 밝혀 둔다.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구성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세계기록문화유산인 ‘조선왕조 의궤’를 통해 한국디자인 특성을 발굴하고 대표디자인을 추천하고자 한다.

- ‘조선왕조 의궤’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한국디자인 특성에 관한 주요 컨셉을 도출함.
- ‘조선왕조 의궤’의 분석 결과, 한국적 디자인의 대표성과 독창성을 지닌 대표디자인을 추천함.

◎ 연구내용

목차	내용
I. 연구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왕조 의례의 연구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머리말 - 연구목적과 내용 ● 조선왕조 의례의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례란 무엇인가 - 의례 편찬의 배경과 의의 - 기록문화로서의 의의 -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의의 - 전통문화계승으로서의 의의
II. 조선 왕조 의례	<p style="text-align: center;">조선왕조 의례 개념과 의례에서 파생되는 분야별 가치 특성의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전통, 의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례는 무엇을 기록한 것인가 - 의식은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 의례의 제작과 보관 ● 의례의 분야별 자료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지적 특징 - 한국사 사료로서의 특징 : 행사의 완벽한 재현 의주 / 행사의 완벽한 재현 도설 / 국가운영시스템 파악 자료 / 물명자료 / 인물자료 - 미술사 사료로서의 특징 : 의례에 나타나는 미술 관련 자료의 특성 / 미술사적 의례 연구의 과제 - 건축사 사료로서의 특징 : 조선시대 건축 관련 기록물과 의례 / 현존 하는 건축 관련 의례 / 건축사 사료로서의 의례의 가치
III. 대표 디자인 ,의례	<p style="text-align: center;">조선왕조 의례의 사회·문화 맥락적 분석에 의한 보편적 가치 요소 추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례에 근거한 대표적인 의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의 탄생_왕실의 태를 봉인한 기록 - 왕의 결혼_조선 왕실 혼례의 이모저모 - 왕의 제사_왕조의 통치 질서를 표현하는 제사 - 왕의 죽음_국왕의 장례에 관한 기록 - 왕의 행차_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간의 장대한 역사 ● 왕실문화 기록, 의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의 건축_조선왕조 문화절정기의 대역사 - 왕의 활쓰기_국왕과 신하가 함께하는 활쓰기 - 궁중잔치의례_궁중잔치의 화려한 멋 - 조선시대 약기 만들기
IV. 연구 맺음	<p style="text-align: center;">디자인 개념의 시각화 도구화 모형화(체계화)와 구체화 가능성의 모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조선왕조 의례와 문화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왕조 의례의 대표디자인 선정의 제안 - 의례의 문화디자인 콘텐츠화와 상품화를 위한 제안 - 의례의 디자인교육 콘텐츠 활용 사례 ● 맺음말

표 1. 연구내용 구성표

2장. 조선왕조 의궤의 의의

1. 의궤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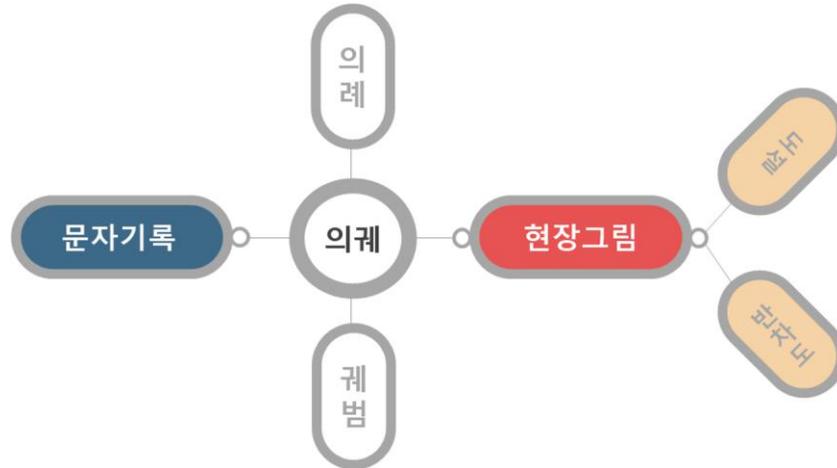


그림 1. 의궤의 의미

의궤는 문자기록과 현장그림이 있는 의식과 궤범으로 조선왕조가 생산한 세계 유일의 독자적인 기록문화이다. 특히 기록화(記錄畵)에는 등장인물의 관직, 참가자의 복장, 의장을 모두 사실적으로 기입하였다.

문자기록에는 행사의 논의과정, 진행과정, 진행의식, 참가자명단, 행사에 쓰인 인건비, 물품비 들의 비용, 물품을 제조한 공장(工匠)의 명단에서 행사에 쓰인 음식까지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의궤의 그림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도설(圖說)**과 **반차도(班次圖)**이다.

도설은 행사에 쓰인 주요 도구들이나 행사와 관련된 건물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한 것이다.

반차도는 의식과 관련된 참가자들의 행렬 모습을 화원(畫員)의 손을 빌어 천연색으로 그린 것이다. 의궤의 가장 큰 매력이라 할 수 있다.

의궤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 국왕의 권위, 권한의 규제의 역할도 하였으며, 종묘와 사직을 보존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기록을 하게 한 것이다.

2. 의례 편찬 배경과 의의¹⁾

유교정치를 지향한 조선왕조는 유교적 국가의례를 매우 중요시 했는데,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이를 **오례(五禮)**²⁾라고 불렀다.

첫째는 **길례(吉禮)**로서 대사(大祀), 중사, 소사 등 나라에서 지내온 각종 제사의 모든 예절을 말한다. 제사를 얼마나 경사스런 행사로서 중요시했던가를 보여준다.

둘째는 **가례(嘉禮)**로서 왕가(王家)에서는 왕의 성혼이나 즉위, 또는 왕세자·왕세손·황태자·황태손의 성혼이나 책봉 등의 예식이 있고, 사가(私家)에서는 관례(冠禮)나 혼례를 말한다. 또한 과거시험, 왕세자 입학, 조하(朝賀:백관들이 명절 때 왕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등도 포함된다.

셋째는 **빈례(賓禮)**로서 예의를 갖추어 손님을 대접하는 예로, 중국과 이웃나라의 사신을 접대하는 의식에 관한 모든 예절을 말한다.

넷째는 **군례(軍禮)**로서 군사 의식에 관한 모든 예절로 활쏘기나 강무, 나례(難禮:잡귀를 몰아내는 의식)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다섯째는 **흉례(凶禮)**로서 국장(國葬)을 포함하는 상례로 장례절차와 신주의 부묘(신주를 종묘에 안치)등을 말한다.

이상 다양한 국가의례는 엄격하게 규정된 의식을 통해서 집행함으로써 도덕적 국가 기강이 흔들리지 않게 했다. 이렇게 의례가 중요한 까닭에 다섯 가지 의례의 형식을 규범화한 책이 편찬되었으며, 그것이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이다. 이 책은 의식의 진행 과정을 세밀하게 적었을 뿐 아니라, 의식에 쓰이는 주요 도구들 예컨대 장례도구나 의장(儀仗), 혹은 제사그릇, 악기 등을 그림으로 그려 놓아 혹시 이런 도구들이 없어지더라도 쉽게 복구할 수 있도록 대비했다. 그러나 『국조오례의』는 의례의 표준서이기는 해도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담은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의식에 참가하는 임금의 행차 모습은 일일이 이 책에 담지 못했다. 또한 『국조오례의』가 활자본인 까닭에 그림을 채색으로 그리지 못하고 흑백으로 그린 것도 한계였다. 이 밖에 시대에 따라 의식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1) 한영우, 《조선왕조 의례(儀軌)_국가 의례와 그 기록》, 일지사, 2010.

2) 성리학을 통치의 이념으로 했던 조선은 국가통치의 원리인 오례(五禮)에 바탕을 두고 이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국가경영이 이루어졌다. 세종(世宗)때부터 길례(吉禮)·군례(軍禮)·가례·흉례(凶禮)·빈례(賓禮)의 오례를 만들기 시작하여 세조(世祖) 때 완성하고 이를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라 하였다.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선 왕조는 『국조오례의』를 기본으로 하여 의례를 집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때그때의 의례를 개별적으로 세밀하게 기록하여 <의궤>라는 책을 편찬했다. 여기에는 의식의 집행과정이 한층 세밀하게 기록되고, 의식에 지출된 비용과 의식을 집행한 관원명단, 그리고 의식의 도구들을 제작한 장인(匠人)등의 이름까지 밝히고, 나아가 의식의 주요 장면과 도구들을 화원(畫員)의 손을 빌려 천연색으로 그려 놓아 그 현장감은 『국조오례의』에 비할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의례를 집행할 때 마다 앞서 있었던 의례의 의궤를 참고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조선왕조는 건국 직후부터 의궤를 편찬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임란 이전 의궤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으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임란 이후에 제작된 것이다. 이 의궤들은 대부분 오례와 관련된 것들이지만 궁궐 공사나 기타 건축사업, 도시건설, 노비추쇄³⁾, 출판사업 같은 것을 오례와 관련이 없는데도 의궤를 제작해 놓아 더욱 의궤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3. 기록문화로서의 의궤

조선왕조에 들어와 의궤가 편찬된 것은 기록문화의 혁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고려시대에도 없었던 일이며, 더구나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조선 왕조만의 독특한 기록문화이기 때문이다.

의궤가 담고 있는 기록문화의 가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궤는 당시의 의례를 집행하는 행정 매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 국가 행정에 있어서 어떠한 한 부서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유기적인 연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둘째, 의궤는 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내막을 알려 준다.

셋째, 의궤는 왕실 생활문화사에 대한 엄청난 정보를 담고 있다. 왕실의 혼례, 잔치, 장례, 혹은 제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이처럼 상세하게 알려주는 자료는 없다.

넷째, 의궤는 국어사, 미술사 연구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자료이다.

3) 노비추쇄(奴婢推刷)는 자기 삼전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고 다른 지방에 몸을 피한 노비를 찾아 내어 본 고장에 돌려보내기 위해 제정한 법제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노비의 수가 많아지고 또한 노비 내에 분화가 생겼다. 공천(公賤)은 사천(私賤)보다 권세가 컸고, 양민보다 더 우세하기도 하였다. 노비는 세습하여 신역(身役)을 바쳤으므로 도망자가 생기고 이를 막기 위해 추쇄도감(推刷都監)을 두기도 했다. 이러한 노비의 제도는 정조 때에 노비추쇄법을 폐지하고 1801년(순조 1년) 내수사와 각 관방(官房)의 노비원부(奴婢原簿)를 태워버리는 등으로 차츰 소멸되어 갔다.

의궤에는 의례에 사용된 각종 물품의 이름이나 건축용어, 그리고 궁중 의복과 궁중 음식의 이름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예를 들면 '김치'는 '침채(沈菜)', '썰매'는 '설마(雪馬)', '지게'는 '지가(支架)'로 기록되어 있다). 의례에 참여하는 장인 가운데 특히 화원(畫員)과 화사(畫師)의 역할은 매우 컸다. 화원은 도화서(圖畫署)⁴⁾에 소속된 화가들이고 화사는 일반 화가들을 말한다. 행사의 주요 장면과 기마, 의복, 병풍, 도장, 상여, 그릇, 악기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도구들이 그들의 손을 빌려 그림으로 재현되고 있다. 실로 의궤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도설(圖說)과 반차도(班次圖) 그림이다. 의식과 실물이 거의 없어진 오늘날 의례연구 및 그 복원과 관련하여 그림의 가치는 엄청나게 크다. 의궤는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철저성과 기록 시스템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의궤의 기록은 추상적인 내용이 거의 없고 정확한 수치를 바탕으로 한 현장 기록이다.

4.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의궤⁵⁾

조선왕조 의궤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 품목

-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546종 2,940책의 의궤
- 한국학 중앙연구원 장서각(藏書閣)에 소장된 287종 490책의 의궤

의궤는 조선왕조에서 유교적 원리에 입각한 국가 의례를 중심으로 국가의 중요 행사를 행사 진행 시점에서 당시 사용된 문서를 정해진 격식에 의해 정리하여 작성한 기록물이다. 같은 유교 문화권에 속하는 중국, 일본, 베트남 등에서는 의궤의 체계적인 편찬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의궤는 조선시대 600여년에 걸쳐 (1392-1910) 왕실의 주요 행사, 즉 결혼식, 장례식, 연회, 사신영접 등 뿐 아니라, 건축물·왕릉의 조성과 왕실문화

4) 조선시대 그림 그리는 일을 담당하던 관청. 예조(禮曹)에 소속된 종6품 아문(衙門)으로 한성부 중부 건평방(堅平坊: 지금의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또는 견지동)에 위치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5품아문으로 도화원으로 불렸으나 1471년(성종 2년) 도화서로 개칭되면서 격하되었다. 주로 그린 그림인 도(圖)는 도해(圖解)나 도설(圖說)에 필요한 그림으로, 관원들이 입는 복식(服飾)·왕실에서 사용하는 도자기나 그릇에 들어가는 그림·수레나 도량형기와 같은 실물 그림 등과 조하도(朝賀圖)·배반도(排班圖)·각종 찬실도(饌實圖) 등 의례와 관련된 그림을 말하며, 화(畵)는 왕실의 초상화와 같은 인물화·산수(山水)·화조(花鳥) 등의 회화를 뜻한다.

5) 세계기록유산 등재, 조선왕조의 의궤(儀軌)(Uigw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 http://www.cha.go.kr/korea/heritage/world_heritage/record_treasure,에서 발췌함.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선정기준과 과정 등에 대한 내용은 본 보고서 부록에 첨부하였음.

활동 등에 대한 기록이 그림으로 남아져 있어 600여년의 생활상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총 3,895 여권의 방대한 분량에 이르는 의궤는 왕실의 주요한 의식이 시기별,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어서, 조선왕조 의식의 변화 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를 비교연구, 이해하는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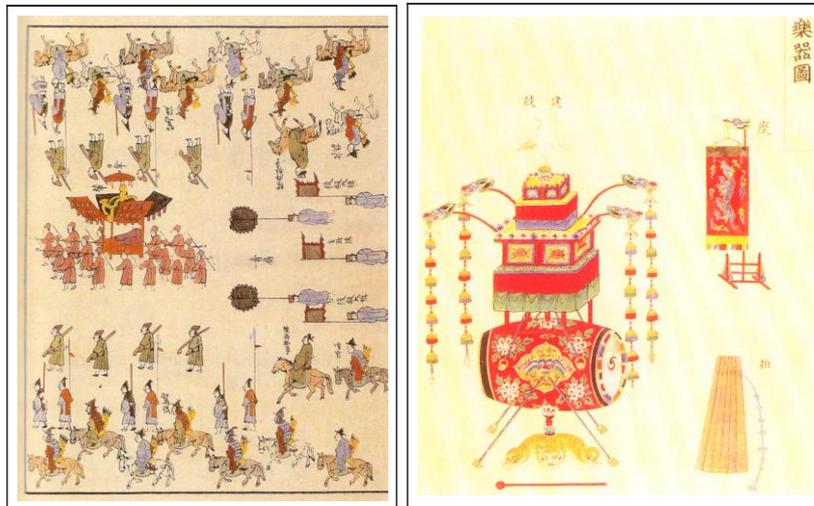


그림 2. 『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 반차도와 『기사표리진찬의궤』의 악기도설

특히 반차도, 도설 등 행사모습을 묘사한 시각 콘텐츠는 오늘날의 영상자료처럼 당시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보여준다. 예컨대 정조의 능행도(陵幸圖)는 전 여정을 15.4m에 걸쳐 표현하고 있다. 이런 형태(시각중심 visual-oriented)의 기록유산은 뛰어난 미술장인과 사관⁶⁾의 공동 작업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 마디로 의궤는 장기간에 걸쳐 조선왕조의 주요 의식을 방대한 양의 그림과 글로 체계적으로 담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은 동서양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뛰어난 기록유산의 가치(outstanding value of

6) 역사의 기록을 담당하여 역사의 초고(草稿)를 쓰던 관원.

사관은 그 직급이 비록 미관말직이지만 담당한 직무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따라서 문초(文草)이나 재행(才行) 즉, 재(才), 학(學), 식(識) 才 : 역사 서술 능력, 學 : 광범한 역사 지식, 識 :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시비포편 할 수 있는 능력의 삼장지재(三長之才)를 겸비해야 하므로 엄격한 자격기준에 따라 천거하여 재능을 시험하였다. 또 임용에도 신중을 기했으므로 사관의 자부심은 대단한 것이었다. 정사에 정통하고 제술에 능하며 내외의 가문에 결점이 없는 자, 즉 사대조상까지 그 가계와 인품을 심사한 후 본인의 인품과 능력을 살펴 3명의 후보를 추천하여 이조에 공문을 보내면 이조에서 계문하여 제수하도록 규정하였다. 사관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춘추관원을 겸직한 관원들이 모두 의정부에 모여 그 가부를 논하였고 적격자는 기사, 제술의 시험을 치러서 합격한자를 채택하였다. 이때 부적격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그 추천자도 처벌대상이 될 정도이다.

조선시대 사관들이 지닌 엄격한 기록정신은 지금부터라도 이어받아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야만 하는 귀중한 유산이다.

documentary heritage)를 지니고 있다.

세계사 맥락에서 유교의 중요성이 저평가되고 있는 면이 없지 않다. 유교는 세계의 조그만 한쪽 구석에 존재했던 문화가 아니다. 유교가 지배했던 영토는 그 면적으로 볼 때 서유럽보다도 몇 배나 컸으며 인구수에 있어서도 유럽, 서남아시아 및 중동을 초과하는 큰 규모였다. 유교권은 최소 14세기까지 전 세계를 2~3개 권역으로 분할하던 주요 문화권 중 하나였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수차례에 걸친 야만족의 침입과 이들에 의한 점령으로 인해 시간이 경과하며 전통 의식은 원형을 점차 잃어갔다. 특히 몽골 침입 기간 동안 유교 의식을 수록한 문헌 상당수가 소멸됐다. 이에 반해 한국은 그러한 침입을 경험하지 않았기에 전통 유산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며 천 년 동안 진정성을 훼손하지 않고 유교 의식을 병행하는 전통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의궤는 대부분의 유교사회에서 잊혀진 과거 유산을 보존하고 있는 기록이다. 또한, 의궤는 조그마한 군주국가의 기록이 아니라, 한때 세계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유교 전통의 핵심을 대표하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5. 전통문화계승으로서의 의의⁷⁾

조선왕조 의궤는 2007년 6월 유네스코 제8차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6.13~15, 남아공 수도 프리토리아)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1997년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을 필두로 직지심체요절(2001년), 승정원일기(2001년)에 이어 모두 6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이 회의에서는 미국영화 ‘오즈의 마법사⁸⁾’, 필리핀 민속음악자료 ‘호세 마세타 컬렉션’, 이집트의 ‘천문학 필사본’ 등도 함께 등재가 결정됐다.

내용면에서 왕세자 책봉과 같은 각종 왕실 의식을 그림으로 정리한 조선왕조

7) <http://yoksa.aks.ac.kr/장서각에서 발췌함>

8) 오즈의 마법사(The Wizard of Oz)는 L. 프랭크 바움의 쓰고 W.W. 덴슬로우가 삽화를 그린, 총14편으로 된 아동문학 작품. 제1편은 오즈의 위대한 마법사(The Wonderful Wizard of Oz)라는 이름으로 1900년 시카고 조지 M. 힐 출판사에서 나왔다. 이 처녀작은 1년 만에 2만 1천부가 팔렸으며, 다음 해에 총 3만 5천부의 초판이 매진되었다. 이후 수많은 판이 거듭 출판되었고, 그 중 일부는 '오즈의 마법사(The Wizard of Oz)라는 이름으로 발간되기도 했다.

역사가 및 경제학자, 문학가들은 이 작품에 대한 여러가지 해석을 내놓았다. 1964년 헨리 리틀필드(Henry Littlefield)라는 교사는 등장인물을 소재로 경제적 암시를 발표하였다 (해석: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발생한 금본위제와 은본위제를 둘러싼 정치투쟁을 은유적으로 표현함. / 비유: 동부마녀(은행과), 난장이(농민, 공장노동자들), 북부마녀(인민당), 은구두(은본위제), 오즈(대통령), 노란 벽돌(금본위제), 허수아비(농민), 양철나무꾼(공장노동자), 사자(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의궤류는 유교문화권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대표적인 기록물인 점 등이 높이 평가되어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의궤류는 등재소위원회 1차 평가에서만 해도 유교적 행동규범과 의례를 보여주는 우수한 유산 이기는 하나 그런 의례들이 유교문화권에서만 실행되었고, 외교의전은 조공체계가 있는 아시아 국가에 한정돼 적용되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세계유산 대신 아시아·태평양지역목록으로 등재하라는 권고가 있어 등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었다.

의궤 자료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조선왕실의 행사를 기록과 함께 그림으로 정리했다는 점이다. 그림으로 나타냄으로써 당시 현장의 생생한 모습들을 지금에도 매우 입체적이고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화성성역의궤』에 나타난 건축에 대한 각 분야의 모습들은 현재 복원에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왕실에서 행해진 결혼식이라든가 장례식 행렬을 담은 그림들을 통해서도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의궤의 시각자료 특히 반차도라든가 도설의 자료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세계인들이 보았을 때에도 기록 이외의 그림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시각자료를 통해서 세계인들이 조선의 전통 특히 왕실문화의 현장의 모습들 그리고 왕실문화의 아주 세밀한 측면까지 직접 확인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궤의 시각자료가 지니는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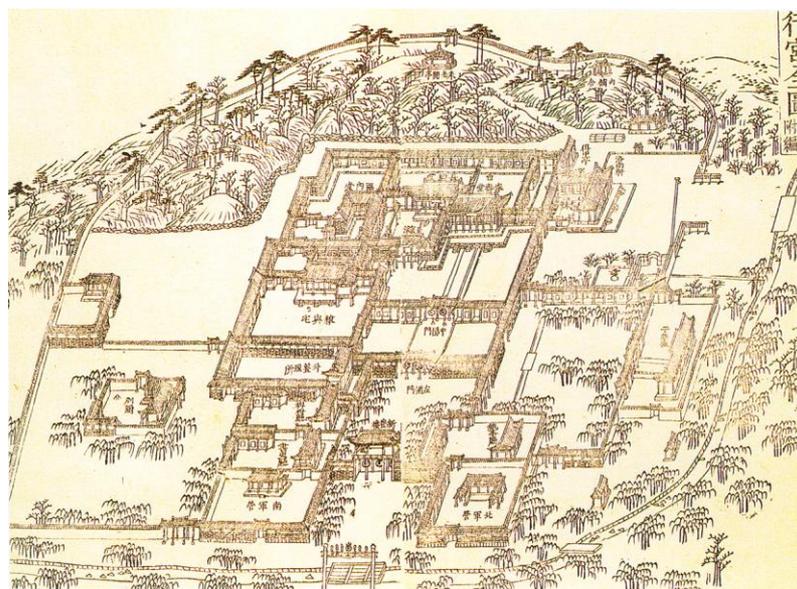


그림 3. 『화성성역의궤』에 수록된 화성행궁전도 도설

『화성성역의궤』가 영인, 소개되면서 경기도와 수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큰 관심을 보였다. 의궤에 기록된 행궁의 위치가 알려지면서 행궁 복원사업이 시작되었고 1997년 화성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데 이 의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1998년 펴낸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은 한영우 교수의 의궤 연구의 첫 결실이었다. 1795년 정조가 생모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수원에 행차한 전말을 기록한 『원행을묘정리의궤』를 바탕으로 저술한 책으로 의궤 반차도를 컬러 도판으로 싣고 행차의 전 과정을 친절하게 설명해 의궤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한교수는 “의궤는 고려시대에도 없었고,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조선왕조만의 독특한 기록문화”라며 조선시대에 의궤가 편찬된 것은 기록문화의 혁명이라고 말했다. “의궤는 정치사, 경제사, 건축사, 미술사, 언어사, 복식사 등의 연구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자료입니다. 특히 사라진 궁중문화를 복원, 재현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하지요.” 한교수는 “의궤 전문 연구자나 전통문화 복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침서로 활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 참고문헌

한영우, 《조선왕조 의궤(儀軌)_국가의례와 그 기록》, 일지사, 2010.

김문식, 신병주, 《조선왕실기록문화의 꽃, 의궤》, 돌베개, 2005.

김연주, 「의궤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글말글학》, 제23집.

—

http://www.cha.go.kr/korea/heritage/world_heritage/record_treasure

<http://yoksa.aks.ac.kr/장서각>

■
제 2부

조선왕조 의궤

1장.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전통, 의궤⁹⁾

조선왕조에 들어와 처음으로 의궤가 편찬되기 시작한 것은 **정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유교정치**의 소산으로서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기록문화이다. 중국의 경우, 특별한 국가행사를 그림으로 남긴 것들이 간혹 있으나, 이를 의궤라고 부르지는 않았으며, 우리나라 의궤처럼 체계적이고 내용이 자세한 것도 아니다.

의궤는 여러 건을 만들지만, 그 가운데 1건은 **어람용(御覽用)**으로 특별히 고급스럽게 제작했다. 표지도 거친 홍마포(紅麻布)가 아닌 **청색 혹은 녹색 비단**을 쓰고, 변철(邊鐵; 바인더)도 무쇠가 아닌 **놋쇠**를 쓰며, 종이도 저주지(楮注紙)가 아닌 **초주지(草注紙)**를 사용하고, 글씨도 가장 뛰어난 서사자(書寫者)가 **해서(楷書)**로 정성스럽게 썼다. 그러나 활자본인 경우는 어람용이 따로 없다. 참고로, 프랑수아군이 가져간 의궤 191종은 대부분 어람용이다. 강화도 외규장각에는 의궤 말고도 약 6천여 권의 책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유독 의궤만을 가져간 것은 의궤가 책이라기보다는 예술품으로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1. 의궤는 무엇을 기록한 것인가

조선왕조는 기록문화의 전성기로서 통치행위에 대한 기록이 제도화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비서기관인 승정원(承政院)에서는 주서(注書)들이 왕명의 출납을 매일 기록하여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를 작성했고, 국무회의 때는 예문관의 한림(翰林; 7-9품)들이 임금의 좌우에 앉아 말과 행동을 따로 따로 기록하여 사초(史草)를 작성했다. 한편, 모든 관청은 해마다 업무일지인 『등록』(謄錄)을 편찬하고, 춘추관(春秋館)에서는 이들 등록을 모아 한 날짜에 통합하여 『시정기』(時政記)를 해마다 편찬했다. 이밖에 승정원은 중요한 정책과 인사이동을 『조보』(朝報)에 실어 지방 수령들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왕이 죽은 뒤에 이상 여러 기록들을 한데 모아 날짜별로 종합적인 통치기록을 작성한 것이 실록(實錄)이다.

그런데, 왕실의 주요 의례(儀禮)에 관한 행사는 세밀한 집행보고서를 따로 작성했는데 이것이 바로 의궤(儀軌)이다. 왕실의 주요 의례는 크게 다섯 종

9) 한영우, <조선왕조 의궤란 무엇인가>, 조선왕조 의궤 학술 심포지움, 2007

류가 있었는데 이를 오례(五禮)라고 불렀다. 오례는 다음과 같다.

의례에 기록된 오례(五禮)의 내용	
길례(吉禮)	왕실 각종 제사(宗廟, 社稷, 風雲雷雨山川城隍, 始祖神, 親耕, 親蠶 등)
가례(嘉禮)	왕실 혼례(婚禮), 책봉(冊封; 왕세자 책봉 또는 왕비책봉 등), 존호(尊號), 왕세자 입학(入學), 조하(朝賀), 진연(進宴), 진찬(進饌), 양로연(養老宴) 등
빈례(賓禮)	외국 사신 접대 등
군례(軍禮)	활쏘기(大射禮), 강무(講武), 나례(儼禮) ¹⁰ 등
흉례(凶禮)	장례(葬禮), 부모(祔廟; 신주를 종묘에 모심) 등

표 2. 의례에 기록된 오례별 기록 내용

조선왕조는 유교적 의례를 중요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례들은 항구적이고 반복적인 행사였으므로, 그 의식을 규범(規範)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의식절차의 큰 틀을 그림을 곁들여 정리한 것이 성종 때 편찬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¹¹⁾이다. 그러나 이 책은 의식의 큰 틀을 제시한 것일 뿐, 시행세칙이나 비용 등을 적은 것은 아니었고, 그림도 흑백으로 그렸다. 시행세칙은 시대에 따라 융통성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들어간 비용도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시행된 의례의 보고서를 상세하게 따로 만들어 놓으면 후세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런 필요에서 만들어진 것이 의궤(儀軌)이다.

그러나 의궤는 오례(五禮)만을 기록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국가사업도 의궤로 만들었다. 예를 들면, 각종 토목공사 즉 도시건설, 왕궁, 종묘, 진전(眞殿; 임금의 초상화를 모신 곳) 건설, 선원보(璿源譜; 왕실 족보)나 실록(實錄), 국조보감(國朝寶鑑) 등의 편찬사업, 보인(寶印; 국새와 각종 도장) 제조, 태실(胎室) 조성 등은 오례에 들어 있지 않으나 의궤로 편찬되었다.

의궤에 담긴 내용은 (1) 의식을 집행하는 논의과정, (2) 의식을 집행한 관원, 도구(道具)를 만들었거나 공사에 참여한 장인(匠人)들의 명단, (3) 의식의 날짜별 진행과정, (4) 의식에 쓰인 비용, 즉 인건비와 물건비, (5) 의식의 주요 장면과 의식에 쓰인 주요 도구들의 그림, (6) 의궤 편찬 과정 등이

10) 나례(儼禮)는 연말에 궁중에서 잡귀를 쫓기 위해 행하거나, 궁 안에 있는 신주(神主)를 3년상을 마친 뒤에 종묘에 모시기 위해 행차를 떠날 때 시행되었다.

11) 『국조오례의』에 대한 설명은 본 보고서 9~10쪽에도 상세한 설명이 되어있음.

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의식의 주요장면과 의식에 쓰인 주요 도구들을 천연색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점이다. 그래서 의궤는 **의식의 현장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기록문화의 꽃으로 불려도 좋은 것이다¹²⁾.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화원(畵員)을 고용하고 있는 이유는 초상화(肖像畵) 제작, 지도(地圖) 제작, 그리고 의궤(儀軌)를 만드는 데 화원의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의궤의 가치는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의식을 집행할 때 여러 관청이 어떻게 협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상세한 물건비(物件費)와 인건비(人件費)를 적어놓은 것은 경제사, 특히 재정사연구의 좋은 자료가 되고 있으며, 의식의 모습과 의식에 쓰인 각종 도구들을 통해서 궁중생활사와 궁중풍속사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해준다. 가령, 의궤에 그려진 각종 반차도(班次圖)는 왕실의 혼례 때 신부를 데리고 궁으로 들어오는 친영행차(親迎行次)의 모습이나, 상여가 산릉(山陵)으로 떠나는 발인행차 모습, 또는 3년상을 마친 뒤에 궁 안의 혼전(魂殿)에 있던 신주(神主)를 모시고 종묘(宗廟)로 가는 부모행차(耐廟行次)의 모습, 또는 임금의 왕릉에 참배하기 위해 지방으로 행차하는 모습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참가자의 복장(服裝)과 의장(儀仗) 등을 천연색으로 그려 놓아 복식(服飾)을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잔치 때 먹은 음식메뉴를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그 음식을 만드는데 쓰인 재료까지 적어놓아 궁중음식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이밖에도 의식에 쓰인 각종 물품의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전통적인 생활어휘(生活語彙)들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미장이는 니장(泥匠), 지게는 지가(支架), 보신탕은 구증(狗蒸)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의식은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이제 의식이 어떻게 집행되었으며, 누가 의궤를 편찬했는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 임시관청을 설치하는데 이를 **도감(都監)**이라고 불렀다. 예를 들어 혼례(婚禮)나 장례(葬禮) 등을 집행하려면 어느 한 관청에만 관련된 일이 아니고, 여러 관청과 지방의 관찰사나 수령들과의 협조가 절대 필요했기 때문이다.

12) 김문식, 신병주, 《조선왕실기록문화의 꽃, 의궤》, 돌베개, 2005.

도감의 직제는 대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총책임자에 해당하는 도제조(都提調) 1인은 정승급(영의정)에서 임명되었으며, 부책임자급인 제조(提調) 3-4명은 판서급에서 맡았다. 실무 관리자들인 도청(都廳) 2-3명, 낭청(..廳) 4-8명 및 감독관에 해당하는 감조관(監造官) 6명은 당하관의 벼슬아치들 중에서 뽑았으며, 그 아래에 문서작성, 문서수발, 회계, 창고정리 등의 행정 지원을 맡은 산원(算員), 녹사(..事), 서리(書吏), 서사(書士), 고지기(庫直), 사령(使令) 등이 수명씩 임명되었다. 도감에서는 행사를 지휘하는 관리자들과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고르게 배치하였으며, 행사의 성격에 따라 인원의 증감이 있었다. 요즘으로 치면, 여러 관청이 연합된 임시위원회(臨時委員會)에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일이 끝나면 도감은 자동적으로 해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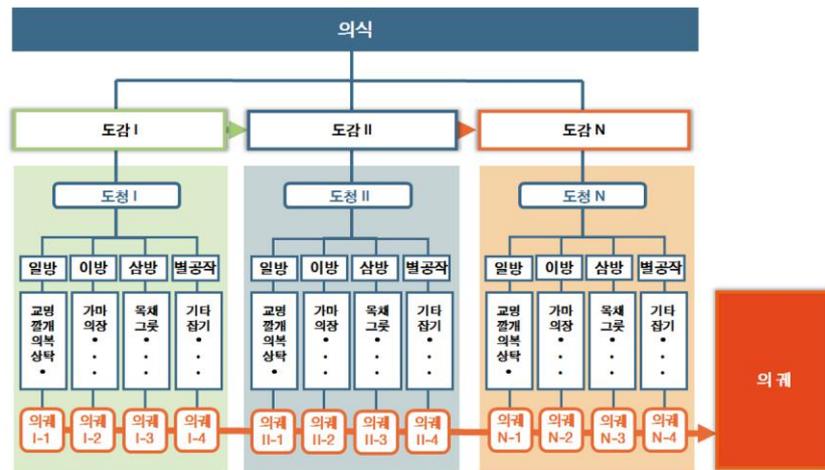


그림 4. 의궤의 제작과정과 직제

의궤의 제작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궤에 기록된 각종 행사 준비를 위해서 임시로 설치되는 도감은 행사의 명칭에 따라 각각 그 이름이 달랐다. 즉 왕실의 혼례의 경우에는 **가례도감(嘉禮都監)**, 국왕이나 왕세자의 책봉의식에는 **책례도감(册禮都監)**, 왕실의 장례에는 **국장도감(國葬都監)**, 사신을 맞이한 행사일 경우에는 **영접도감(迎接都監)**, 궁궐의 건축과 같은 일을 행할 때는 **영건도감(營建都監)** 등과 같은 이름을 붙였으며, 이들 임시기구인 도감에서는 각기 맡은 행사를 주관하였다.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취임식이나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특별한 행사를 위해 대통령취임식 준비위원회, 올림픽조직위원회, 월드컵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과 비슷한 경우이다.

또한, 한번의 의식에 도감이 하나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면 장

례(葬禮)를 치르는 경우에도 네 개의 도감이 설치되었다. 국장을 총괄하는 국장도감(國葬都監)이 있고, 시신을 모신 빈전(殯殿)을 관장하는 빈전도감(殯殿都監), 신주(神主)를 봉안하는 혼전도감(魂殿都監), 왕릉(王陵)을 조성하는 산릉도감(山陵都監)이 따로 있었다. 그리고 각 도감 아래에는 업무를 분담하는 작은 기구들이 설치되었다. 예를 들면, 각 도감마다 일을 총괄하는 도청(都廳)이 있고, 도청 아래에는 일방(一房), 이방(二房), 삼방(三房), 별공작(別工作) 등이 있었다. 그리고 산릉도감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구 이외에도 조성소(造成所; 건축 담당), 부석소(浮石所; 돌 채취), 노야소(爐台所; 철물 제조), 보토소(補土所; 흙과 잔디 관장), 수석소(輸石所; 돌 운반), 번와소(燔瓦所; 기와 제조) 등의 기구가 있었다. 또, 가령 국혼(國婚)을 치르는 경우에는 가례도감(嘉禮都監)을 설치하는데, 일을 총괄하는 도청(都廳)을 두고, 그 아래에 몇 개의 방(房)을 두어 업무를 분장했다.

예를 들면 일방(一房)은 교명(敎命)이나 깔개, 의복, 상탁(床卓) 등을 관장하고, 이방(二房)은 가마, 의장(儀仗) 등을 관장하고, 삼방(三房)은 옥책(玉冊)이나 그릇 등을 관장했다. 이밖에 자질구레한 집기들을 만드는 별공작(別工作)을 따로 두었다. 이와 같은 업무분담은 모든 도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다. 가령, 궁궐이나 종묘를 짓는 토목공사의 경우에도 돌을 조달하는 기구, 목재를 조달하는 기구, 흙을 조달하는 기구, 기와를 조달하는 기구, 단청을 전담하는 기구, 도배를 전담하는 기구 등이 따로 있고, 이들이 집행결과를 독자적으로 기록하여 작은 의궤를 만든 다음, 일이 끝나면 작은 의궤들을 합쳐서 최종적인 의궤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의궤 속에 많은 작은 의궤(‘의궤속의 의궤’)들이 들어 있는 것이다(〈그림4〉).

3. 의궤의 제작과 보관¹³⁾

1) 의궤의 제작

이렇게 도감의 일은 종적, 횡적으로 세밀한 업무분담에 의해 집행되었으므로 일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었으며, 각 소기구(小器具)는 자기 관할의 일을 일방의 궤(一房儀軌), 이방의 궤(二房儀軌), 삼방의 궤(三房儀軌), 별공작의 궤(別工作儀軌) 등 독립된 의궤로 작성했으므로 의식이 끝나고 나서 바로 작은 의궤들

13) 신병주, 〈조선왕조 의궤의 제작과 보관〉, 조선왕조 의궤 학술 심포지움, 2007

을 모으면 빠른 시일 안에 전체적인 의궤가 편찬될 수 있었던 것이다.

행사의 성격에 따라 구성된 각 도감에서는 행사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전 과정을 낱자순으로 정리한 등록(騰錄)을 먼저 만들고 이를 정리하여 의궤를 제작하였다. 의궤는 보통 5부에서 9부를 만들었다. 국왕이 친히 열람하는 어람용 의궤 1부는 규장각에 올리고(고종대 이후에는 황제와 황태자용 의궤를 비롯하여 2부 이상의 어람용 의궤를 제작하였다). 나머지 의궤는 의정부, 춘추관, 예조 등 관련 부서와 지방의 각 사고(史庫)에 나누어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의궤의 표지에 ‘정족산상(鼎足山上)’ , ‘오대산상(五臺山上)’ 등으로 쓴 것은 각각 정족산 사고와 오대산 사고에 보내져 보관되어 온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국왕이 친히 열람한 어람용(御覽用) 의궤 대부분은 외규장각에 보내졌다. 어람용 의궤는 국왕이 열람한 후에 규장각에 보관하였다가 1781년 강화도 외규장각을 설치한 후에는 이곳에 옮겨 보관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어람용 의궤는 종이로 고급 초주지(草注紙)를 사용하고 사자관(寫字官)이 해서체(楷書體)로 정성들여 글씨를 쓴 다음 붉은 선을 둘러 왕실의 위엄을 더했다. 어람용은 장정 또한 호화로웠다. 늦쇠 물림(경첩)으로 묶었으며, 원환(圓環), 5개의 국화동(菊花童) 등을 사용하여 장정하였다. 표지는 비단으로 화려하게 만들어서 왕실의 품격을 한껏 높였다. 어람용이 아닌 일반 의궤에는 초주지 보다 질이 떨어지는 저주지(楮注紙)가 사용되었으며, 검은 선을 두르고 표지는 삼베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장정에는 정철(正鐵)과 박을정(朴乙丁) 3개가 사용되었다. 국가의 주요 행사를 기록한 만큼 어람용 의궤의 그것을 보면 문외한이라도 그 화려함과 품격에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지만 일반 분상건 의궤의 장정이나 글씨 또한 매우 뛰어나다.



그림 5. 어람용 의궤 『영의전영건도감의궤』와 분상용 의궤 『창덕궁영건도감의궤』

아래의 표는 1759년(영조 35)에 제작된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의 경우 어람용 의궤와 일반의궤를 만드는 데 들어간 재료를 비교한 것이다.

● 어람용 의궤

구 분	재 료	단 위
책표지감	초록경광주(草綠經光紬)	2척 2촌
제목감	백경광주(白經光紬)	길이 7촌 너비 1촌
홍협(紅挾)감	홍경광주(紅經光紬)	길이 7촌 너비 5푼
면지감	초주지	2장
후배(後裨)감	옥색지	1장
기장자리 부분	두식(豆錫)	
기타	국화동(菊花童) 박철원환(朴鐵圓環)	

표 3. 어람용 의궤의 재료와 단위

● 일반 의궤

구 분	재 료	단 위
책표지감	홍정포(紅正布)	2척 2촌
배접감	백휴지(白休紙)	6장
면지감	저주지	2장
후배(後裨)감	옥색지	1장
기 타	정철, 변철, 박철원환(朴鐵圓環), 합교말(合膠末)	* 합교말 3승

표 4. 일반 의궤의 재료와 단위

2) 의궤는 어느 곳에 보관하였을까

의궤는 편찬 방법에 따라 **필사본**과 **활자본**으로 구분되었는데, 대부분의 의궤는 담당자가 손으로 직접 기록한 필사본이었다. 필사본 의궤는 보통 9부 내외로 제작되었고, 이는 다시 열람자나 보관처에 따라 어람용과 분상용(여러 곳에 나누어 보관한 의궤)으로 구분되었다. 어람용 의궤는 국왕이 직접 열람하는 의궤로 통상 1부가 제작되었으며, 1776년(정조 즉위년)에 규장각이 설립된 이후 주로 규장각에서 보관했다. 일반 보관용인 분상용 의궤는 국가전례를 관장하던 기관과 서울과 지방의 사고(史庫)에 분산 보관되었다. 분상용 의궤는 사고에 보관하는 것은 기본이고 행사와 관련한 부서에 보내졌다. 결 혼식을 정리한 가례도감의궤류의 경우 예조에 보내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궁궐 건축을 기록한 영건도감 의궤류는 공조에 반드시 보내졌다. 『대사례의궤』의 경우 이 행사가 성균관에서 열렸기 때문에 성균관에도 한 부가 보내져 보관되었다.

의궤의 보관처를 알고 싶으면 의궤의 겉표지를 보면 된다. 의궤의 겉표지에

는 통상 책의 제목이나 제작 연대와 함께 보관처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령 표지에 ‘禮曹上’ 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이 의궤는 예조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고, ‘五臺山上’ 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이는 오대산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다. 제작된 의궤 전체가 어떤 곳에 보관되었는가를 파악하려면 의궤의 기록 중에서 「의궤사목(儀軌事目)」으로 정리된 기록을 보면 된다. 「의궤사목」에는 ‘어람 1건, 분상 8건’ 등으로 기록한 다음에 4대 사고를 비롯한 분상처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의궤사목의 기록을 토대로 현재 남아 있는 의궤를 조사하면, 나머지 전해지지 않는 의궤가 원래 어느 곳에 있었다가 유실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 의정부와 예조

의궤가 보관된 대표적인 국가기관으로는 의정부와 예조가 있었다. 의정부는 국가전례를 심의 결정하는 기관이고, 예조는 국가 전례를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이었으므로 이들 기관에는 반드시 의궤가 배포되었다. 한말에 오면 관제 개혁에 따라 의궤의 보관처가 장례원(掌禮院), 비서원(秘書院), 예식원(禮式院) 등으로 바뀌는데 역시 국가전례를 집행하던 기관이었다.

◎ 의궤의 최대 보관처, 사고(史庫)

의궤가 가장 많이 보관된 곳은 역시 사고였다. 중앙의 춘추관 사고를 내사고(內史庫)라 하였고, 지방의 산간 지역에 설치한 사고를 외사고(外史庫)라 하였다. 사고는 의궤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실록』 등 조선 역대의 중요 자료들이 보관된 곳이었다. 사고는 대개 왕실관계 자료를 보관한 선원보각(璿源寶閣)과 실록 등을 보관한 사각(史閣)으로 구성되었으며, 사고를 지키는 수호 사찰을 꼭 설치하였다. 1872년에 그려진 무주부 지도에는 적상산 사고의 모습이 자세히 나타나 있다. 이 지도에는 선원보각과 사각을 비롯하여, 수호 사찰, 참봉전, 군기청 등 사고를 구성하는 주요한 건물의 위치와 이름이 자세히 나타나 있다. 사고는 2층의 목조건물로 구성되었고, 방화를 위하여 2층으로 된 방화벽을 설치하는 등 세심한 신경을 아끼지 않았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도들에는 사고가 꼭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조선시대에 사고가 중시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그림 7>). 특히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천재화가 김홍도가 정조의 명을 받아 관동지방의 뛰어난 경치를 그리면서 오대산사고를 포함시킨 것에서 조선시대인들에게 사고의 비중이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시대와 해방기를 거치면서 사

고는 우리의 관심 속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다. 그나마 최근에 와서 조선후기의 4대 사고들이 복원되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고에 대한 의미를 강화하는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이 다행스럽게 여겨진다.

의궤는 편찬이 완료되면 실록과 마찬가지로 춘추관과 지방 네 곳의 사고에 분산 보관되었다. 춘추관과 지방의 사고라 하면 우리는 얼른 조선왕조실록을 떠올리지만, 실제 사고에는 실록만이 아니라 의궤를 비롯하여 왕실의 족보인 선원보(璿源譜)나,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취급된 『고려사』, 『동국통감(東國通鑑)』, 『여지승람(輿地勝覽)』, 『동문선(東文選)』 등과 같은 역사서, 지리서, 예서들도 함께 사고에 보관되었다.

◎ 조선시대 사고 체제의 변화

조선시대의 사고체제는 임진왜란을 경험한 조선 후기 이후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즉 조선 초기에는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서울의 **춘추관사고**와 지방의 **충주사고**라는 2원 체제로 운영되다가, 다시 세종대에 이르러 경상도 **성주사고**와 전라도 **전주사고**를 추가하여 4사고 체제가 되었다. 그러나 조선전기의 4사고는 교통의 요지인 서울과 지방관이 거주하는 읍치(邑治)에 위치해 있어서 화재나 도난에 의한 서책의 훼손 가능성이 언제나 제기되었다. 실제 중종대에는 비둘기를 잡으려다 화재가 발생하여 실록을 비롯한 대부분의 책들이 소실되기도 했다.

1592년의 임진왜란은 교통과 인구가 밀집한 읍치에 소재한 사고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즉 왜적들의 주요 침입루트가 된 춘추관, 충주, 성주의 사고는 모두 병화의 피해를 입고 그 존재가 사라졌다. 다행히 전주사고본의 책들은 사고 참봉(參奉)인 오희길(吳希吉)과 전주 지역 유생인 손홍록(孫弘祿), 안의(安義)와 같은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내장산까지 옮겨지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보존될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난 후 사고가 지역 중심지에서 험준한 산 위로 올라간 것은 바로 이러한 경험 때문이었다. 여러 곳에 분산하여 보관함으로써 완전한 소실은 면했지만 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전쟁이나, 화재, 도난의 우려가 커서 완벽하게 보존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하였던 것이다. 조선후기에 사고들이 산으로 간 까닭이 여기에 있다. 당대인들이 관리하고 보존하기에는 훨씬 힘이 들지만 후대에까지 길이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 험준한 산지만을 골라 사고를 설치했던 것이다.

임진왜란이 끝난 광해군대 이후 조선의 사고는 5사고 체제로 운영되었다. 서울의 **춘추관사고**를 비롯하여 강화도의 **마니산사고**, 평안도 영변의 **묘향산**



그림8. 강화 정족산사고, 무주 적상산사고, 강릉 오대산사고, 봉화 태백산사고, 「해동지도」

사고, 경상도 봉화의 태백산사고, 강원도 평창의 오대산사고가 그것이다. 춘추관사고를 제외한 모든 사고를 지역별 안배를 가한 후에 험준한 산지에 배치한 것이다. 그 후 묘향산사고는 후금(뒤의 청나라)의 침입을 대비하여 적상산성이라는 천연의 요새로 둘러싸인 전라도 무주의 적상산사고로 이전했으며, 강화의 마니산사고는 병자호란으로 크게 파손되고 1653년(효종 4) 화재가 일어나면서 1660년(현종 1)에 인근의 정족산사고로 이전하였다. 따라서 조선 후기 지방의 4사고는 정족산, 적상산, 태백산, 오대산으로 확정되었고 이 체제는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그대로 지속되었다. 현재 태백산, 오대산, 정족산에 보관된 의궤의 대부분은 현재의 서울대 규장각으로 이어졌고, 적상산사고의 의궤들 대부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으로 이관되었다.

이처럼 사고를 산간지역에 둔 것은 무엇보다 외적의 침입에 대처하려는 뜻이 담겨져 있다. 특히 전란 속에서 사고가 훼손되자 무엇보다 적의 침입에 노출되지 않은 지역을 선택한 것이다. 사고 옆에 수호 사찰을 두어 승병들로 하여금 사고를 지키게 한 것도 이러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일반

인들의 접근도 용이하지 않는 지역을 선택함으로써 화재나 도난과 같은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 우리가 외규장각에 보관되었던 어람용 의궤 이외에 대부분의 의궤 실물을 접할 수 있는 것도 조선 후기에 사고를 가장 안전한 곳에 배치한 선인들의 지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 외규장각 의궤, 그 영광과 수난의 역사

의궤 중에서도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강화도 외규장각에 보관되었다가, 1866년 프랑스군에 의해 약탈된 후 현재는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외규장각 의궤이다. 조선의 22대왕 정조(正祖)가 1776년 25세의 젊은 나이로 왕위에 올라 제일 먼저 한 일은 규장각과 친위부대인 장용영의 설립이었다. 정조는 규장각을 본격적인 정치, 학문기구로 설립한 지 얼마 후에 정조는 강화도에 외규장각을 지을 것을 명했다. 역사적 경험상 궁궐 내에 국가의 중요 기록물이 보관되어 있는 것이 불안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782년(정조 6) 2월 당시 국왕 정조의 비상한 관심 아래 추진되었던, ‘강화도 외규장각 공사의 완공’을 알리는 강화유수의 보고가 올라왔다. 1781년 3월 정조가 강화도에 외규장각의 기공을 명령한 지 11개월이 지난 즈음이었다. 이를 계기로 강화도 외규장각에는 왕실의 자료들을 비롯하여 주요한 서적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관되었으며, 이후 100여년간 외규장각은 조선 후기 왕실문화의 보고(寶庫)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1784년에 편찬된 『규장각지(奎章閣志)』에 따르면, 외규장각은 6칸 크기의 행궁(行宮)의 동쪽에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외규장각은 인조 이래 강화도에 행궁과 전각이 세워지고 왕실관계 자료들이 별고(別庫)에 보관된 것을 계기로, 국방상 안전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이들 자료들을 관리할 목적으로 세워졌다. 이로써 외규장각은 창덕궁에 위치하면서 조선 후기 문화운동을 선도했던 규장각의 분소와 같은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곳을 ‘규장외각’ 또는 ‘외규장각’이라 부른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규장각은 정조 이후 그 위상이 커지면서 열성조의 어제, 어필을 비롯하여, 국가의 주요한 행사 기록을 담은 의궤, 각종 문집 등 조선 후기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들을 간행하고 이를 보존해 왔으며, 외규장각에는 이 중에서도 어첩, 어필, 의궤 등 왕실 관련 자료들이 집중적으로 보관되었다.

외규장각은 정조대의 영광을 뒤로 하고,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의 침

공으로 철저히 파괴되었다. 강화도에 주둔했던 프랑스군은 조선군의 강렬한 저항으로 퇴각하면서 외규장각에 보관되었던 우리 문화의 보고(寶庫)들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은과 19상자와 함께 그들의 눈을 자극한 것은 채색 비단 장정에 선명한 그림으로 장식된 어람용 의궤들이었다. 프랑스군이 외규장각에 소장된 각종 도서 중에서 유독 의궤류만을 집중적으로 약탈한 것도, 화려하고 품격 있는 의궤의 장정과 비단표지, 그리고 의궤에 그려진 채색그림이 지닌 가치와 예술성이 벽안의 눈에 번쩍 띄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89종 340여 책의 의궤는 이들의 퇴각과 함께 약탈당했으며, 당시 화염에 휩싸였던 외규장각은 그 흔적만을 남긴 채 백여 년을 뛰어넘어 다시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현재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구관)에는 297책의 의궤가 보관되어 있다.

외규장각에 소장되었다가 약탈당한 의궤가 다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1993년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 이곳에 소장되어 있다가 1866년 프랑스군에 의해 약탈당했던 『휘경원원소도감의궤』라는 책을 한국 정부에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이후였다. 1993년 프랑스에서 의궤 2책이 반환되어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의궤의 선명한 글씨와 아름답게 장식된 장정을 보고 감탄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의궤가 원형의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은 조선시대의 의궤 자체가 뛰어난 재질의 종이로 만들어졌고, 의궤에 첨부된 그림의 물감은 천연의 광물이나 식물에서 채취하여 그 색채의 생명력이 오래 갔기 때문이었다. 의궤에는 조선시대 우리 선인들의 뛰어난 기록 보존의 정신이 함축되어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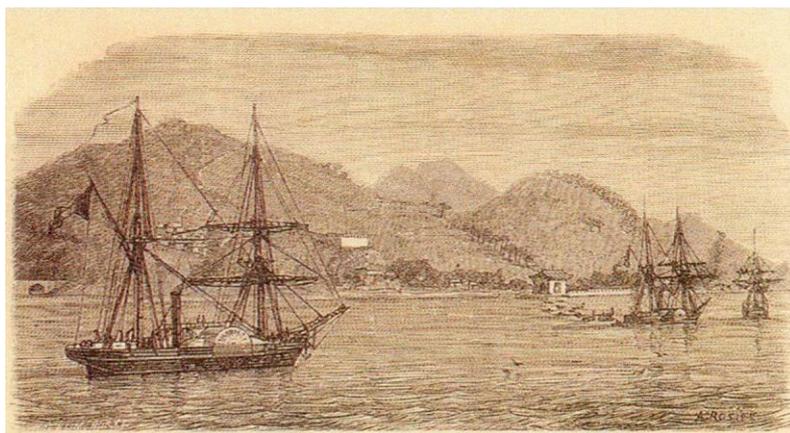


그림 7. 강화부 갑곶진에 정박한 프랑스 함대 주베르, 1866년

1866년 강화도를 침공했던 프랑스의 해군장교 주베르가 ‘이 곳에서 감탄

하면서 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어디든지 책이 있다는 사실이다' 고 고백했듯이, 조선인들은 누구나 책을 가까이 했으며 이러한 조선 문화의 최선봉에 규장각과 외규장각이 있었다.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정수를 담아왔던 외규장각의 건물 복원이 최근에 이루어졌다. 물론 정조대의 화려함과 품격은 갖추지 못했지만 외규장각이 조선 후기 문화의 정수를 고스란히 간직했던 공간임을 인식한다면 이곳을 찾는 의미도 훨씬 커질 것이다.

4) 현존하는 의궤의 왕대별 종류¹⁴⁾

의궤의 편찬은 정치의 연속성,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선시대 유교정치의 산물로서 우리 역사상 조선시대가 유일하다. 그리고 왕조 차원에서 국가의 각종 행사를 이처럼 그림을 곁들여 상세한 보고서를 남긴 예는 다른 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의궤는 조선왕조 기록문화의 정수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기록문화의 보배가 아닐 수 없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의궤로서 현존하는 630여 종 의궤의 종류를 각 왕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선조대(1567~1608 ; 재위 41년) : 5종
- 광해군대(1608~1623 ; 재위 15년) : 19종
- 인조대(1623~1649 ; 재위 27년) : 38종
- 효종대(1649~1659 ; 재위 10년) : 16종
- 현종대(1659~1674 ; 재위 15년) : 20종
- 숙종대(1674~1720 ; 재위 46년) : 68종
- 경종대(1720~1724 ; 재위 4년) : 13종
- 영조대(1724~1776 ; 재위 52년) : 128종
- 정조대(1776~1800 ; 재위 24년) : 46종
- 순조대(1800~1834 ; 재위 34년) : 68종
- 헌종대(1834~1849 ; 재위 15년) : 33종
- 철종대(1849~1863 ; 재위 14년) : 40종
- 고종대(1863~1907 ; 재위 44년) : 95종
- 순종대(1907~1910 ; 재위 4년) : 26종
- 일제시대(1910~1945) : 24종

여기서 우리는 시대가 내려갈수록 의궤 편찬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14) 한영우, <조선시대 의궤 편찬 시말>, 한국학보 제29호, 2003

있는데, 이러한 비율은 의궤의 분량을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이는 의궤 편찬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세밀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여기에서, 의궤의 각 소장처 별로 의궤목록을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5) 국내외 의궤 소장처¹⁵⁾

<국내>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명실상부한 의궤의 최대 소장처이다. 현재 규장각에는 조선왕조 의궤 약 546종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는 현재까지 파악된 전체 의궤 종수의 80%를 훨씬 넘는 양이다.

규장각 소장 의궤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凶禮: 國葬都監儀軌(40종), 殯殿魂殿都監儀軌(45종), 山陵都監儀軌(40종), 遷奉, 遷陵, 陵改修관련 의궤(31종), 祔廟(祔宮)都監儀軌(32종)
- 吉禮: 宗廟·永寧殿·社稷, 樂器관련 의궤(14종), 眞殿관련 의궤(7종), 景慕宮, 大報壇, 顯思宮등 관련 의궤(10종)
- 嘉禮: 嘉禮都監儀軌(21종), 冊封, 冊禮, 冠禮관련 의궤(31종), 進饌儀軌(8종), 進爵儀軌(4종), 進宴儀軌(2종), 園幸乙卯整理儀軌(1종), 기타(2종)
- 賓禮: 使臣관련 의궤(16종)
- 軍禮: 火器都監儀軌(1종), 大射禮儀軌(1종)
- 기타 : 尊號·尊崇·追崇관련 의궤(67종), 廟號, 諡號관련 의궤(9종), 璿源譜略관련 의궤(100종), 實錄纂修廳관련 의궤(15종), 宮闕營建관련 의궤(11종), 御眞·景楨模寫관련 의궤(10종), 胎室관련 의궤(9종), 國朝寶鑑·三綱行實간행 관련 의궤(5종), 功臣錄勳관련 의궤(4종), 親耕儀軌(2종), 親蠶儀軌(2종), 金寶·玉印·寶印제조 관련 의궤(3종), 華城城役儀軌(1종), 기타(2종)

이상 규장각에 소장된 의궤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후기에 이루어진 왕실 행사에 관련된 다양한 의궤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규장각에는 국가의 주요 의례인 각 오례에 관한 의궤 이외에도, 선원보 등 왕실도서 간행 과정, 궁궐 조성, 어진 제작 등 왕실에서 행한 여러 가지 행사를 기록한 의궤가 전해지고 있다.

둘째, 오례에 관한 의궤 중에는 특히 흉례(凶禮)에 관한 의궤의 종류수가 많다.

15) 심재우, <조선왕조 의궤의 현존상황과 보존방안>, 조선왕조 의궤 학술 심포지움, 2007

셋째, 시기적으로 임진왜란 이후의 의궤만 남아 있으며, 왕대별로는 영조대와 고종대의 의궤가 많다. 특히 영조대 이후의 의궤가 많이 현존하는 이유는 18세기 이후 문화의 중흥기를 맞이하면서 의궤의 제작이 활발해진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규장각에는 어람용 의궤를 비롯한 고급 의궤가 다수 전해지고 있다.

◎ 한국학 중앙연구원 장서각

규장각 다음으로 의궤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이다. 장서각 소장 왕실 도서 가운데 올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의궤는 모두 287종이며, 이 가운데 60여종 이상이 유일본이며, 어람용 고급 의궤도 10종 내외가 있다.¹⁶⁾

● 어람용

[眞宗永陵]墓所都監儀軌(1728), [淑嬪]上諡封園都監儀軌(1753), [英祖仁元后淑嬪貞聖后]尊崇都監儀軌(1756), [毓祥宮]上諡都監儀軌(1772), 景慕宮儀軌(1784), 義王英王册封儀軌(1900), 淳妃册封儀軌(1901), 高宗御眞圖寫都監儀軌(1902), [淳妃]進封皇貴妃儀軌(1903), [眞宗憲宗哲宗]皇帝追尊時儀軌(1908), 國朝寶鑑監印所儀軌(1909)

● 유일본

[昭顯世子]册禮都監儀軌(1634), 祀典別儀軌(1643), 儲承殿儀軌(1648), [孝宗..陵]修改都監儀軌(1660), [世祖]景奩修補都監儀軌(1670), [孝宗..陵]遷奉山陵都監儀軌(1673), [顯宗崇陵]修改都監儀軌(1677), [翼祖]智陵丁字閣改建儀軌(1732), 璿源譜略修正時宗簿寺儀軌(1756), 璿源譜略修正時全羅道赤裳山城奉安儀軌(1757), 璿源譜略修正時全羅道茂朱赤裳山奉安儀軌(1758), 宗廟儀軌續錄(1766), [恩彦君恩信君]冠禮儀軌(1767), 宗廟儀軌續錄(1770), 淸瑾縣主嘉禮儀軌(1772), 璿源譜略修正儀軌(1772), 仁淑元嬪宮禮葬儀軌(1779), 宗廟儀軌續錄(1785), 永禧殿儀軌(1777-1800), 宗廟儀軌(1706, 1784, 1800), 華城城役儀軌附編(1801), 社稷署儀軌(1842), 關王廟儀軌(1902), 宗廟儀軌(1897-1906), 景孝殿儀軌(1897-1906, 1907-1910), 懿孝殿儀軌(1904-1910), 各宮儀軌(1897-1906), 宗廟儀軌(1907), 文廟儀軌(1897-1908, 1907-1910), 崇義廟儀軌(1907-1908), 社稷儀軌(1863-1907), 私廟儀軌(1863-1907), 永禧殿儀軌(1900-1908), 懷墓成墓儀軌(1875-1908), 殿廟壇祝式儀軌(1907-1910), 宣武祠儀軌(1907-1910), 靖武祠儀軌(1907-1910), (1899-1910), 社稷儀軌(1907-1910), 各陵儀軌(1897-1910), 廟殿宮園壇墓儀軌(고종대), 純獻貴妃..葬儀軌(1911), 純獻貴妃園所儀軌(1911), 純獻貴妃殯宮魂宮儀軌(1911), 各宮園儀軌(1911), 高宗太皇帝御葬主監儀軌(1919), 高宗太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1919), 高宗太皇帝山陵主監儀軌(1919), 洪陵遷奉主監儀軌(1919), 高宗太皇帝明星太皇后祔廟主監儀軌(1921), 純宗孝皇帝御葬主

16) 장서각 소장 어람용 및 유일본 의궤 목록은 한영우, 2005 앞 책의 부록에 실린 「의궤종합 목록」에 의거하여 작성하였다.

監儀軌(1926), 純宗孝皇帝裕陵山陵主監儀軌(1926), 純宗孝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1926), 裕陵遷奉山陵主監儀軌(1926), 裕陵遷奉主監儀軌(1926), 純宗孝皇帝純明孝皇后祔廟主監儀軌(1928), 各陵儀軌(1935), 廟殿宮園壇墓儀軌(1935), 宗廟永寧殿儀軌(1928이후, 1942)

장서각 소장 의궤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서각 의궤는 조선시대 전라도 무주 적상산 사고에 보관되었던 의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일제시대에 모두 21종의 의궤가 만들어졌는데, 이들 의궤는 모두 장서각에만 소장되어 있는 유일본이다. 장서각에 소장된 일제시대 의궤는 비록 분량도 적고 채색 班次圖가 없지만 일제시대 쇠퇴해 가던 황실의 위상과 의궤의 실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있다. 한편, 장서각에는 의궤의 내용을 보충할 수 있는 謄錄자료가 많이 소장되어 있는 점도 장점이다. 특히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약 375건의 등록 가운데 왕실의례 관련 등록이 270여건에 달하는데¹⁷⁾, 이들 등록은 의궤의 내용을 보완해줄 수 있다.

◎ 국립문화재연구소

번호	서명	책수(장수)	연대	비고
1	[高宗純宗]御眞圖寫都監儀軌	1책(195장)	1902년(광무 6)	
2	[太祖元宗]御眞移模都監儀軌	1책(95장)	1872년(고종 9)	
3	[世祖]影射模寫都監儀軌	1책(132장)	1735년(영조 11)	
4	[肅宗]影射模寫都監儀軌	1책(178장)	1748년(영조 24)	
5	[太祖肅宗英祖正祖純祖文祖憲宗]影射模寫都監儀軌	1책(325장)	1901년(광무 5)	
6	[太祖高皇帝]影射模寫都監儀軌	1책(223장)	1900년(광무 4)	
7	宗廟改修都監儀軌	2책(475장)	1726년(영조 2)	
8	景福宮昌德宮增建都監儀軌	1책(73장)	1900년(광무 4)	
9	眞殿重修營建都監儀軌	1책(70장)	1772년(영조 48)	
10	昌慶宮營建都監儀軌	1책(124장)	1834년(순조 34)	
11	昌德宮萬壽殿修理都監儀軌	1책(175장)	1657년(효종 8)	유일본
12	昌德宮修理都監儀軌	1책(184장)	1647년(인조 25)	
13	惠陵石物追排都監儀軌	1책(80장)	1722년(경종 2)	
14	璿源譜略修正時儀軌	1책(10장)	1776년(영조 52)	

표 5.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의 의궤 목록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도 모두 14종 15책의 의궤를 소장하고 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주로 궁궐 수리, 어진 모사에 관한 것이 다수이다. 이 가운데 효종이 인조의 계비 慈懿大妃趙氏를 잘 모시기 위해 조성한 창덕궁의 만수전(萬壽殿)수리 보고서인 『昌德宮萬壽殿修理都監儀軌』(1657)는 다른 기관에

17) 김혁, 「장서각소장 등록의 성격」 『藏書閣所藏謄錄解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는 없는 유일본 의궤이다.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는 표에서 보듯이 16건의 의궤가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 의궤 중에는 앞서 언급한 활자본 의궤도 있지만, 흥미 있는 의궤도 몇 종 있다. 활자본 의궤를 제외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주요 의궤의 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서 번호	명칭	책수	연도	비고
古5213-1	王子阿只氏安胎儀軌	1	1608년(광해군 즉위)	유일본
일산古159-21	園幸乙卯整理儀軌	7	1795년(정조 19)	
한古朝29-95	肇慶壇濬慶墓永慶墓營建廳儀軌	2	1901년(광무 5)	
한古朝71-5	肇慶壇濬慶墓永慶墓營建廳儀軌	1	1901년(광무 5)	下編 缺
위창古152-4	朝鮮迎接都監都廳儀軌	1	1932년(민국 21)	北平故宮博物院 撰, 鉛活字本
古6025-25	朝鮮迎接都監都廳儀軌	1		
古6025-24	朝鮮迎接都監都廳儀軌	1		
한古朝29-116	朝鮮迎接都監都廳儀軌	1		
한古朝29-92	進爵儀軌	1	1828년(순조 28)	
일산古159-20	進爵儀軌	1	1828년(순조 28)	
古朝29-2	(純祖己丑)進饌儀軌	4	1829년(순조 29)	
일산古159-18	(高宗壬寅)進宴儀軌	3	1902년(광무 6)	
古朝29-3	進饌儀軌	4	1877년(고종 14)	
일산古6021-6	華城城役儀軌1	1	801년(순조 1)	
한古朝29-92	華城城役儀軌	9	1801년(순조 1)	
	徽慶園園所都監儀軌	1	1822년(순조 22)	1993년 반환문화재

표 6.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의궤 목록

첫째, 『王子阿只氏安胎儀軌』는 유일본이다. 광해군 즉위년인 1608년 11월에 선조와 貞嬪閔氏소생의 王子(1604-1651 : 광해군 2년에 仁興君에 봉해짐)의 태실을 경상도 咸昌孤山(현재의 경북 상주시 함창면 태봉리)에 조성하는 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둘째, 『肇慶壇濬慶墓永慶墓營建廳儀軌』는 황실 조상에 대한 추숭사업의 일환으로 1899년부터 행한 전주의 조정단(시조), 삼척의 준경묘, 영경묘(穆祖의 아버지, 어머니)의 영건 및 정비사업 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셋째, 『朝鮮迎接都監都廳儀軌』는 1621년 광해군 13년 4월에 明景宗의 등극을 알리기 위해 조선에 온 登極詔使劉鴻訓과 楊道寅일행을 조선에서 영접한 사실을 기록한 의궤이다.

넷째, 1993년 9월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방한 때 파리국립도서관에 보관 중이던 외규장각 의궤 가운데 어람용 『徽慶園園所都監儀軌』 상하 2책 중 1책을 우리 정부에 반환하였는데, 그 때 반환된 1책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 기타 소장처

사천시에는 경상도 곤양군 소곡면(현재의 사천시 곤명면) 소곡산에 위치한 세종과 단종의 태실 보수과정을 기록한 유일본 의궤 3종이 전해진다. 다음으로 청원군에서 소장하고 있는 『英祖大王胎室加封儀軌』는 1729년(영조 5) 10월에 청주목 경내에 있던 영조의 태봉에 석조물을 고쳐 조성한 과정을 기록한 유일본 의궤이다.

그밖에 서울역사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고려대학교 등에도 일부 의궤가 전해진다. 이들 기관에 소장된 의궤는 여러 부수가 제작된 정조대 이후의 활자본 의궤가 대부분이어서 자료 가치가 높은 것들은 아니다.

소장처	명칭	책수	연도	비고
사천시	世宗大王胎室石欄干修改儀軌	1	1601년(선조 34)	경남 유형문화재 제404호
	世宗大王端宗大王胎室修改儀軌	1	1731년(영조 7)	
	世宗大王端宗大王胎室表石豎立時儀軌	1	1734년(영조 10)	
청원군	英祖大王胎室加封儀軌	1	1729년(영조 5)	충북 유형문화재 제170호
서울역사박물관	追封册封儀軌	1	1907년(융희 1)	운1162
	華城城役儀軌	9	1801년(순조 1)	서1886
	進宴儀軌	1	1828년(순조 28)	서8200
	進宴儀軌	1	1902년(광무 6)	서8005
	進饌儀軌	1	1829년(순조 29)	서8201
국립중앙박물관	進饌儀軌	2	1848년(헌종 14)	서8202
	華城城役儀軌	9	1801년(순조 1)	도서실
	(高宗壬寅)進宴儀軌	4	1902년(광무 6)	도서실
	(高宗壬寅)進宴儀軌	4	1902년(광무 6)	신수 7363
고려대학교	進饌儀軌 板木	3	미상	본관 9921, 국립청주박물관 이관
	進宴儀軌	1	1901년(광무 5)	박물관
	宮園儀	2	1780년, 1785년	
	園幸乙卯整理儀軌	8	1795년(정조 19)	
	華城城役儀軌	9	1801년(순조 1)	
	進饌儀軌	4	1901년(광무 5)	
	進饌儀軌	1	1877년(고종 14)	
	進饌儀軌	1	1829년(순조 29)	
	進饌儀軌	3	1892년(고종 29)	도서관
	進饌儀軌	1	1829년(순조 29)	
	進饌儀軌	1	1848년(헌종 14)	
	進饌儀軌	4	1902년(광무 6)	
	進饌儀軌	3	1902년(광무 6)	
	進饌儀軌	1	1902년(광무 6)	
進饌儀軌	1	1888년(고종 25)		

표 7. 기타 의궤 소장처와 목록

<국외>

◎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에는 191종 297책의 의궤가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책들은 원래 외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던 것들로 1866년 병인양

요 때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점령하고 가져간 것들이다. 당시 프랑스군은 외규장각 소장 1,042종 6,130책 가운데 상당수를 불태우고 의궤 등 일부만 본국으로 가지고 갔다. 이들 의궤에 대해서는 그 도서관 시궤로 근무하던 박병선에 의해 국내에 소개되었으며, 최근 프랑스 소장 의궤의 반환 문제로 규장각과 장서각 소속 학자들이 파리국립도서관에 방문하여 실사 작업을 거쳤으며 그 성과는 책자로 간행되었다.¹⁸⁾

지금까지의 검토 결과 파리국립도서관 소장 191종의 의궤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186종이 고급 어람용 의궤이며, 나머지 5종이 분상용 의궤로 밝혀졌다. 그리고 191종 가운데 국내에 없는 유일본 의궤가 18종이다.¹⁹⁾ 아쉬운 점은 12책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급 의궤가 원래의 비단 표지가 아닌 상태로 개장되었다는 점이다.

연번	書名	冊數	刊行年度	비고	연번	書名	冊數	刊行年度	비고
1	哲宗大王國葬都監儀軌	4卷4冊	고종 원년	오대산사고	37	追封冊封儀軌	不分卷	융희 원년	오대산사고
2	哲宗大王殯殮禮都監儀軌	5卷3冊	고종 원년	오대산사고	38	中和殿鑿建都監儀軌	不分卷	광무 8년	오대산사고
3	睿陵山陵都監儀軌	2卷2冊	고종 원년	오대산사고	39	追封皇后追封皇后儀軌	不分卷	융희 원년	오대산사고
4	嘉禮都監儀軌	2卷2冊	고종 3년	오대산사고	40	壽奉都監儀軌	不分卷	융희 원년	오대산사고
5	王世子冊禮都監儀軌	表紙蟲書	고종 12년	오대산사고	41	追諡時儀軌	不分卷	융희 2년	오대산사고
6	寶印所儀軌	不分卷1冊	고종 13년	오대산사고	42	御宗都監儀軌	不分卷1冊	고종 2년	정축산사고
7	哲仁王后殯殮禮都監儀軌	3卷3冊	고종 15년	오대산사고	43	上御院都監儀軌	不分卷1冊	고종 10년	정축산사고
8	睿陵山陵都監儀軌	2卷2冊	고종 15년	오대산사고	44	哲仁王后國葬都監儀軌	4卷4冊	고종 15년	정축산사고
9	加上冊禮都監儀軌	不分卷	고종 25년	오대산사고	45	明成皇后殯殮山陵都監儀軌	2卷2冊	고종 32년	정축산사고
10	廟統都監儀軌	不分卷	고종 27년	오대산사고	46	統陵上莎草改修都監儀軌	不分卷1冊	광무 4년	정축산사고
11	加上冊禮都監儀軌	不分卷	고종 27년	오대산사고	47	眞殿重建都監儀軌	不分卷1冊	광무 5년	정축산사고
12	神貞王后國葬都監儀軌	4卷4冊	고종 27년	오대산사고	48	影繪摹寫都監儀軌	不分卷1冊	광무 5년	정축산사고
13	神貞王后殯殮禮都監儀軌	3卷3冊	고종 27년	오대산사고	49	皇壇增修儀軌	2卷2冊	영조 25년	태백산사고
14	統陵山陵都監儀軌	2卷2冊	고종 27년	오대산사고	50	昌慶宮營建都監儀軌	不分卷	순조 34년	태백산사고
15	追上冊禮都監儀軌	不分卷	고종 27년	오대산사고	51	上御院儀軌	不分卷	고종 3년	태백산사고
16	神貞王后柩庫都監儀軌	不分卷	고종 29년	오대산사고	52	王世子嘉禮都監儀軌	2卷1冊	고종 19년	태백산사고
17	上統都監儀軌	不分卷	고종 29년	오대산사고	53	皇慶禮禮慶人禮慶禮禮儀軌	2卷2冊	광무 5년	태백산사고
18	明成皇后國葬都監儀軌	不分卷	고종 32년	오대산사고	54	國幸乙卯整理儀軌	10卷6冊	정조 22년	태백산사고
19	明成皇后殯殮禮都監儀軌	3卷3冊	고종 32년	오대산사고	55	國朝寶蓋監印所儀軌	不分卷	융희 3년	규장각
20	大禮儀軌	不分卷	광무 원년	오대산사고	56	皇壇供奉儀軌	不分卷	순조 22년	기타본
21	影繪摹寫都監儀軌	不分卷	광무 4년	오대산사고	57	道殿儀軌	4卷4冊	헌종 14년	기타본
22	追諡時儀軌	不分卷	광무 3년	오대산사고	58	哲宗大王冊禮都監儀軌	不分卷	고종 3년	기타본
23	上統都監儀軌	不分卷	광무 4년	오대산사고	59	元子阿只氏安胎神錄	不分卷	고종 11년	기타본
24	永綏殿鑿建都監儀軌	不分卷	광무 4년	오대산사고	60	上統都監儀軌	不分卷	고종 12년	기타본
25	增建都監儀軌	不分卷	광무 4년	오대산사고	61	道殿儀軌	4卷4冊	고종 14년	기타본
26	上統都監儀軌	不分卷	광무 6년	오대산사고	62	哲仁王后 卍 廟都監儀軌	不分卷	고종 17년	기타본
27	孝定王后國葬都監儀軌	4卷4冊	광무 7년	오대산사고	63	道殿儀軌	4卷4冊	고종 24년	기타본
28	孝定王后殯殮禮都監儀軌	5卷5冊	광무 8년	오대산사고	64	道殿儀軌	4卷4冊	고종 29년	기타본
29	裕慶園新所都監儀軌	2卷2冊	광무 8년	오대산사고	65	影繪摹寫都監補完儀軌	不分卷	광무 4년	기타본
30	神廟祀禮祭禮都監儀軌	不分卷	광무 8년	오대산사고	66	道殿儀軌	4卷4冊	광무 5년	기타본
31	純明太后國葬都監儀軌	4卷4冊	광무 8년	오대산사고	67	道殿儀軌	4卷4冊	광무 5년	기타본
32	景陵山陵都監儀軌	2卷2冊	광무 7년	오대산사고	68	道殿儀軌	4卷4冊	광무 6년	기타본
33	洪陵石儀重修都監儀軌	不分卷	광무 2년	오대산사고	69	道殿儀軌	5卷4冊	광무 6년	기타본
34	孝定王后柩庫都監儀軌	不分卷	광무 9년	오대산사고	70	道殿儀軌	4卷4冊	광무 6년	기타본
35	慶源宮重修都監儀軌	2卷2冊	광무 10년	오대산사고	71	瑞源御時正儀軌	不分卷	광무 9년	기타본
36	皇太子嘉禮都監儀軌	2卷1冊	광무 10년	오대산사고	72	瑞源御時正儀軌	不分卷	광무 11년	기타본

표 8.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의 의궤 목록

● 유일본

豊皇都監儀軌(1630), [恭惠后純陵]修改都監儀軌(1648), [定宗]厚陵修改都監儀軌(1667), 集祥殿修改儀軌(1668), [顯宗]祔廟都監別三房儀軌(1676), [保社功臣].. 勳都監儀軌(1680), [莊烈后]殯殿都監儀軌(1688), [莊烈后]魂殿都監儀軌(1688),

18) 김문식, 신병주, 이종묵, 정경희, 김혁, 2003,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 외규장각 의궤 조사 연구』, 외교통상부.
 19) 자세한 것은 한영우, 2005 앞의 책, pp. 870~871.

慶德宮修理所儀軌(1693), [保社功臣]..勳都監儀軌(1694), 別三房儀軌(1726), [神懿后]齊陵神道碑營建廳儀軌(1744), [世宗]英陵表石營建廳儀軌(1744), 穆陵徽陵惠陵表石營建廳儀軌(1746), [懿昭世孫]墓所都監儀軌(1752), 禮陵泰陵孝陵康陵章陵表石營建廳儀軌(1753), 厚陵顯陵光陵昌陵宣陵靖陵表石營建廳儀軌(1754)

◎ 일본 궁내청과 기타 소장처

일본에도 의궤가 다수 소장되어 있는데,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宮內廳書陵部에 72건의 의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²⁰⁾ 이 책들은 1922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일본 정부에 기증하는 형식으로 가져간 것으로, 대부분 오대산 사고에 소장되어 있던 의궤들이다. 따라서 오대산 실록을 가져갈 때 함께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²¹⁾

궁내청 소장 의궤는 대부분 고종대에 편찬된 것인데, 다행히 어람용과 유일본 의궤는 한 종도 없다. 참고로 2007년 10월 현재 문화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궁내청 소장 의궤 목록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소장처	서명	연대	책수	비고
일본 천리대	慈慶殿進爵整禮儀軌	1827년(순조 27)	2권 1책	整理字
	(辛丑)進饌儀軌	1901년(광무 5)	4책	再鑄整理字
	華城城役儀軌	1801년(순조 1)	1책	整理字
	進爵儀軌	1828년(순조 28)	1책	整理字
	華城城役儀軌	1801년(순조 1)	9권 9책	整理字
키자흐스탄 국립도서관	進爵儀軌	1848년(현종 14)	1책	整理字
	慈慶殿進爵整禮儀軌	1827년(순조 27)	2권1책	整理字
	進爵儀軌	1828년(순조 28)	2권1책	整理字
	進爵儀軌	1848년(현종 14)	2권3책	整理字
영국 대영도서관	園幸乙卯整理儀軌	1795년(정조 19)	1책	生生字
	進爵儀軌	1829년(순조 29)	4책	整理字
	進爵儀軌	1890년(고종 27)	3권 2책	再鑄整理字
프랑스 기메박물관	(惠慶宮)己巳進表裏進饌儀軌	1809년(순조 9)	1책(164장)	도서번호 Or.7458
	進饌儀軌	1817년(순조 17)	3권 4책	整理字
프랑스 동양어학교	(丁丑)進饌儀軌	1890년(고종 27)	4권 4책	再鑄整理字
	(丁亥)進饌儀軌	1887년(고종 24)	4권 4책	再鑄整理字
미국 BERKELEY大學 (U.C.Berkeley)	당나의궤	미상	12권 12책	한글공체(낙실본)
	進饌儀軌	1887년(고종 24)	4권 4책	再鑄整理字
	進宴儀軌	1901년(광무 5)	4권 4책	再鑄整理字
	進宴儀軌	1901년(광무 5)	4권 4책	再鑄整理字
	華城城役儀軌	1801년(순조 1)	1책	初鑄整理字
	慈慶殿進爵整禮儀軌	1827년(순조 27)	2권 1책	初鑄整理字
	進爵儀軌	1828년(순조 28)	3권 2책	初鑄整理字
미국 COLUMBIA大學	園幸乙卯整理儀軌	1795년(정조 19)	9권 8책	初鑄整理字
	進饌儀軌	1892년(고종 29)	3권 3책	再鑄整理字
	慈慶殿進爵整禮儀軌	1827년(순조 27)	3권 1책	初鑄整理字
	進饌儀軌	1829년(순조 29)	不分卷 1책	生生字

표 9. 일본과 기타 지역의 소장처와 의궤목록

이밖에도 일부 의궤가 국외에 현존하고 있는데, 그 중 주목되는 것은 영국

20) 宮內廳書陵部는 일본 황실의 譜錄, 實錄, 도서, 공문서 등의 업무를 편수·관리하는 곳으로 宮內省圖書寮라 불리다가 1949년 宮內廳書陵部로 개편하였다고 한다(한국해외전적조사연구회, 2001, 『海外典籍文化財調査目錄-日本宮內廳書陵部韓國本目錄』)

21) 한영우, 2005, 앞의 책, pp. 871~872.

런던의 대영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惠慶宮) 己巳進表裏進饋儀軌』이다.

2장. 의궤의 분야별 자료적 특징

1. 서지적(書誌的) 특징

의궤는 우선 크기에 있어서 일반 서적과 구별된다. 의궤에 따라 크기에 차이가 있지만, 대개는 길이가 50cm 전후에 이르고, 폭이 35cm 전후에 이른다. 일반서적 보다 두 배 정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태실의궤(胎室儀軌)는 가장 커서 길이가 약 90cm에 이른다.

의궤는 이렇게 덩치가 크기 때문에 끈으로 제본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무쇠나 고급 놋쇠로 변철(邊鐵)을 댔다. 변철에는 세 개 혹은 다섯 개의 박을못(朴乙釘)을 박아 책을 고정시키고,²²⁾ 변철의 중앙에는 둥근 고리를 달았다. 이는 책을 벽에다 걸고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크고 무거운 책은 누어 놓으면 바람이 통하지 않아 습기 제거가 어려우므로 벽에다 걸고 사용하는 것이 관례였다. 의궤뿐 아니라 길이가 1미터 정도에 이르는 호적(戶籍)이나 양안(量案; 토지대장)도 고리를 달아 사용했다.

어람용 의궤는 표지에 비단을 사용하고, 고급 놋쇠로 변철을 만들었는데 변철에는 아름다운 꽃문양이 조각되었다. 또한 박을못을 5개를 사용하며, 못이 빠지지 않도록 국화판(菊花瓣)을 댔다. 종이는 고급 초주지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미 말했지만, 이밖에 본문의 인찰선(印札線)을 붉은색으로 만든 것도 특징이다. 보통의궤는 검은 인찰선을 쓴다. 비단 의궤만이 아니라, 왕실족보인 선원보(璿源譜)도 붉은 인찰선을 사용하여 일반 족보와 차별화했다. 의궤는 대부분 필사본이기 때문에 여러 건을 제작하는 경우, 쪽수, 체재,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현존하는 의궤는 보관상태도 제각기 다르다.

의궤는 왕실풍속사, 왕실생활사, 경제사, 행정사, 국어사, 건축사, 미술사 등 여러 분야에서 풍부한 정보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특히 풍부한 시각자료는 전통 문화 콘텐츠의 개발 사업에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22) 보통 의궤는 3개의 변철을 대고, 어람용 의궤는 5개의 변철을 댔다.

2. 한국사 사료로서의 특징²³⁾

의궤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던 것은 당대 최고 수준의 전문가가 필사하고 장정을 했으며 삼백 년 이상에 걸쳐 국가의례를 중심으로 거의 모든 국가적 행사에 관한 기록이 정리되어 있음을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의궤의 기록이 가지는 한국사 사료적 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행사의 완벽한 재현 자료_의주(儀註)

의궤가 사료로서 가지는 첫 번째 특징은 왕실이나 국가에서 거행한 행사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좋은 예로, 『[고종]대례의궤』는 1897년 10월 고종이 대한제국의 황제가 될 때 거행한 행사를 기록한 것인데, 여기에는 대한제국의 탄생과 관련한 23가지 행사의 의주가 정리되어 있다. 이때에는 왕국에서 황제국으로 격상되는 뜻 깊은 행사였기에 많은 의식이 치러졌는데, 의궤에 수록된 의주²⁴⁾는 다음과 같다.

고종대의 「대례의궤」 의 의주	
친림서계의(親臨誓戒儀)	환구단 제사가 있기 3일전 폐하가 경운궁 태극전에서 맹세를 하는 의식
친사환구시 출환궁의(親祀圜丘時出還宮儀)	폐하가 환구단을 오갈 때 경운궁을 나오고 들어가는 의식
친사환구출환궁시 왕태자수에 행례의(親祀圜丘出還宮時王太子隨詣行禮儀)	폐하가 환구단 제사를 거행할 때 왕태자가 수행하는 의식
친사환구시 성생기성정확시척개시 왕태자배참의(親祀丘時省牲器省鼎視滌瀝時王太子陪參儀)	폐하가 환구단 제사를 거행할 때 희생과 제기를 살피고 솥을 세척하는 것을 살피는 것을 왕태자가 수행하는 의식
친사환구의(親祀丘儀)	폐하가 환구단에서 천지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의식
친사환구시 왕태자배참의(親祀丘時王太子陪參儀)	폐하가 환구단에서 천지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을 왕태자가 수행하는 의식
등극의(登極儀)	환구단 제사 후 황제위에 등극하는 의식
황제어태극전 수백관하표의(皇帝御太極殿受百官賀表儀)	황제가 경운궁 태극전에서 백관들의 축하를 받는 의식
책황후의(冊皇后儀)	황제가 경운궁 태극전에서 왕후를 황후로 책봉하는 의식. 명성황후에게 금책(金冊)과 금보(金寶)를 줌
황후책보 봉예빈전행례의(皇后冊寶奉詣殯殿行禮儀)	황후의 금책과 금보를 명성황후의 빈전으로 가져가는 의식

23) 김문식, <한국사 사료로서의 조선왕조 의궤>, 조선왕조 의궤 학술 심포지움, 2007

24) 나라 전례(典禮)의 절차를 주해(註解)하여 기록한 책.

책황태자의(冊皇太子儀)	황제가 경운궁 태극전에서 왕태자를 황태자로 책봉하는 의식. 황태자에게 금책과 금보를 줌
황태자 조사빈전의(皇太子朝謝殯殿儀)	책봉을 받은 황태자가 명성황후의 빈전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 의식
반조의(頒詔儀)	황제가 경운궁 태극전에서 조칙을 반포하는 의식
황태자 진치사우빈전의(皇太子進致詞于殯殿儀)	황태자가 명성황후의 빈전에 치사(致詞)를 올리는 의식
백관진箋賀皇太子儀)	황태자가 경운궁 함녕전에서 책봉을 축하하는 백관들의 전문(箋文)을 받는 의식
명헌태후 상보의(明憲太后 上寶儀)	황제가 경운궁 태극전에서 명헌왕후를 태후로 책봉하는 의식. 명헌태후(헌종의 비인 명헌왕후)에게 옥보를 올리는 의식
책황태자비의(冊皇太子妃儀)	황제가 경운궁 태극전에서 왕태자빈을 황태자비로의 책봉 의식. 황태자비에게 금책(金冊)과 금보(金寶)를 줌
황태자비 수책보의(皇太子妃 受冊寶儀)	황태자비가 내전(內殿)에서 금책과 금보를 받는 의식
황태자비 조알의(皇太子妃 朝謁儀)	황제가 내전에서 황태자비의 조알을 받는 의식
황태자비 조알빈전의(皇太子妃朝謁殯殿儀)	황태자비가 명성황후의 빈전에 가서 조알하는 의식
황태자비 조알명헌태후의(皇太子妃朝謁明憲太后儀)	황태자비가 내전에서 명헌태후에게 조알하는 의식
황태자비 회궁예황태자행례의(皇太子妃回宮詣皇太子行禮儀)	황태자비가 황제와 황후에게 조알을 마치고 궁으로 돌아와 황태자에게 절을 올리는 의식

표 10. 고종대의 『대례의궤』의 행사 내용 목록

이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행사는 고종이 환구단²⁵⁾에서 천지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친사환구의(親祀丘儀)와 고종이 제사를 올린 자리에서 황제위에 등극하는 등극의(登極儀)이다. 그러나 『[고종]대례의궤』에는 대한제국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황제, 황태자, 황태자비가 거행했던 수많은 행사들의 의주가 모두 수록되어 있다.

2) 행사의 완벽한 재현 자료_도설(圖說)

국가 행사를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해서는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와 복식, 행사장에 나타나는 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의궤에는 행사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및 각자의 복식, 행사에 소요된 물품의 모양, 크기, 색깔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있어 원형대로의 복원을 가능하게 한다. 의궤의 장점은 이러한 기록과 함께 당시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도설(圖說)이 있다는 점이다. 의궤에 수록된 도설은 문자 기록만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25) 환구단(圓丘壇)은 천자(天子)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단(壇)이다. 원구단(圓丘壇)이라고도 하는데, 예로부터 '천원지방(天圓地方)'이라 하여 하늘에 제사지내는 단은 둥글게, 땅에 제사지내는 단은 모나게 쌓았기 때문이다. 사적 157호로 지정된 환구단은 고종 대에 있었던 환구단 터로, 서울시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조선호텔 자리이다.

수 없는 실물의 모습을 전해주는데, 행사 배치도의 경우에는 수백 명 내지 수천 명에 이르는 행사 참여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혜경궁 홍씨가 탄 가마의 설계도는 가마의 구조와 재료, 가마에 그려진 문양까지 원형대로 복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9. 『경모궁의궤』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경모궁의궤』²⁶⁾는 정조대에 건설한 사도세자의 사당인 경모궁의 연혁과 관련 제도를 정리한 의궤인데, 여기에 수록된 도설은 다음과 같다.

『경모궁의궤』의 도설 목록		
경모궁도설 (本宮全圖說)	경모궁의 전도(全圖)에 해당함	
	정당(正堂)20칸, 이안당(移安堂)6칸, 어재전(御齋殿)15칸, 재실(齋室)10칸, 망묘루(望廟樓)1칸(재실 안에 있음)을 비롯하여 경모궁 안의 건물과 문, 우물 등을 표시함. 경모궁(景慕宮)이란 3글자는 정조의 어필임.	
봉안의물도설 (奉安儀物圖說)	경모궁 정당 안에 모신 물품들의 그림	
	신의(神椅)	신탕(神榻) 위에 두는 것으로 신령이 앉는 의자
	신탕(神榻)	앉게 되는 걸상으로 신장(神幟)의 안에 있음.
	인장도설(印藏圖說)	각종 인(印)을 보관하는 가구로, 신장의 왼쪽.

26) 정조8년(1784), 사도세자와 그의 사당인 경모궁에 관계된 기록과 제사 의식을 정리한 의궤임.

	책봉옥인도설(冊封玉印圖說)과 옥인전문(玉印篆文)	병진년(1736)에 사도세자를 왕세자로 책봉할 때 내려진 옥인과 인면을 그린 그림
	증시옥인전문(贈諡玉印篆文)	임오년(1762)에 시호를 추증할 때의 옥인 인면을 그린 그림. 사도세자지인(思悼世子之印)
	추상존호옥인전문(追上尊號玉印篆文)	병신년(1776)에 존호를 추가로 더할 때의 옥인 인면을 그린 그림.
	가상존호옥인전문(加上尊號玉印篆文)	계묘년(1783)에 존호를 더할 때의 옥인 인면을 그린 그림.
	책장도설(冊幀圖說)	각종 책(冊)을 보관하는 가구로, 신장 오른쪽에 있음
	교명축도설(敎命軸圖說)과 궤(櫃)	병진년(1736)에 사도세자를 왕세자로 책봉한다는 교명과 교명을 넣은 상자의 그림
	교명문(敎命文)	병진년(1736)에 사도세자를 왕세자로 책봉하는 교명 본문
	책봉죽책도설(冊封竹冊圖說)과 궤(櫃)	병진년(1736)에 사도세자를 왕세자로 책봉할 때의 죽책과 죽책을 넣은 상자의 그림
	죽책문(竹冊文)	병진년(1736)에 사도세자를 왕세자로 책봉하는 죽책 본문
	추상존호죽책문(追上尊號竹冊文)	병신년(1776)에 존호를 추가로 더할 때 죽책의 본문
	가상존호죽책문(加上尊號竹冊文)	계묘년(1783)에 존호를 더할 때 죽책본문
정당내 좌우의장도설 (正堂內左右儀仗圖說)	경모궁 정당의 좌우에	둔 의장들의 그림
	작선(雀扇)	공작이 그려진 부채
	청개(靑蓋)	청색 천으로 만든 햇빛 가리개
	내주렴도설 (內朱簾圖說)	신장(神幟) 앞에 설치한 주렴의 그림
외주렴도설 (外朱簾圖說)	대문에 설치한 주렴의 그림	
향사반차도설 (享祀班次圖說)	제사를 지낼 때 제관들이 서는 위치를 그린 그림	
	설찬도설(設饌圖說)	정식 제사의 음식을 진열한 그림
	속절식망설찬도설 (俗節朔望設饌圖說)	속절 초하루와 보름에 지내는 제사의 음식을 진열한 그림
	작헌례설찬도설 (酌獻禮設饌圖說)	작헌례를 올릴 때의 음식을 진열한 그림
제기도설 (祭器圖說)	경모궁에 있는 제기의 그림. 변명구(?幕具), 두개구(豆蓋具) 등 42종의 제기가 있음	
악기도설 (樂器圖說)	경모궁에 있는 악기의 그림. 편종(編鐘), 종(鐘), 방향(方響) 등 32종의 악기가 있음	
무기도설 (舞器圖說)	경모궁에 있는 무기의 그림. 독(籥), 악(?), 적(翟) 등 7종의 무기(舞器)가 있음	
악도설(樂圖說)	경모궁 제사를 지낼 때 연주되는 악기의 배치도	
	등가(登歌)	당상(堂上)에 배치된 악기도

	헌가(軒架)	묘정(廟廷)에 배치된 악기도
일무도설 (佾舞圖說)	경모궁 제사를 지낼 때 공연되는 일무의 배치도	
	문무(文舞)	문무(文舞) : 문무 육일무의 배치도
	무무(武舞)	무무 육일무의 배치도
제복도설 (祭服圖說)	경모궁 제사를 지낼 때 제관들의 복식 그림	
	전하면복도설 (殿下冕服圖說)	국왕의 면류관과 대례복 그림. 규(圭), 면(冕) 등 21종의 그림이 있음
	왕세자면복도설 (王世子冕服圖說)	왕세자의 면류관과 대례복 그림. 규(圭), 면(冕) 등 17종의 그림이 있음
	사관제복도설 (祀官祭服圖說)	제사를 지내는 관리들의 복식 그림. 관(冠), 홀(笏) 등 13종의 그림이 있음
	종친문무관배향관관복도설 (宗親文武陪享官冠服圖說)	제사에 참여하는 종친, 문관, 무관, 배향관의 복식그림. 관(冠), 조대(?帶) 등 4종의 그림이 있음
공인관복도설 (工人冠服圖說)	제사에 참여하는 악사(樂師), 문무공인(文舞工人), 무무공인(武舞工人)들의 복식 그림	
이의도설 (肄儀圖說)	예행 연습을 할 때의 배치도	
일첨문도설 (日瞻門圖說)	경모궁 정당의 북쪽에 있는 일첨문의 그림. 창덕궁에서 경모궁으로 갈 때 거치는 문	
유근문도설 (迪覲門圖說)	함춘원 서북에 있는 유근문의 그림	
유첨문도설 (迪瞻門圖說)	함춘원 서쪽 담장에 있는 유첨문의 그림	
궁지도설 (宮池圖說)	경모궁 담장 북쪽에 있는 연못의 그림	
척도도설 (尺度圖說)	각종 자의 그림. 포백척(布帛尺), 주척(周尺), 영조척(營造尺), 조예기척(造器尺) 그림이 있음	

표 11. 『경모궁의궤』의 도설 목록

이를 보면 경모궁의 전경과 정당(正堂) 건물에 모셔진 각종 물품, 의장물, 제사를 지낼 때의 진설도, 제기, 악기, 무용 도구, 건물 구조 등을 그림으로 그리고 이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여 그 실상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의궤에 수록된 의주와 도설은 행사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안타까운 점은 위의 『경모궁의궤』의 각종 도설 목록과 함께 실제 도설(그림)을 나열하지 못한 점이다. 다만 위의 목록을 보면서 하나의 의궤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이처럼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집대성되어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 의궤 안에 표현된 구체적인 도설 그림은, 분야는 다르지만 다음 장에서 『헌종대무신진찬의궤』의 도설을 예로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3) 국가 운영 시스템의 파악의 자료

의궤에는 행사를 거행하는 동안 관청 사이에 오간 공문서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주로 계사(啓辭), 예관(禮關), 이문(移文), 내관(來關), 품목(稟目) 등에 나타난다. 이중에서 ‘계사’는 국왕의 명령과 신하들이 건의한 사항을 낱짜별로 모은 것이고, ‘예관, 이문, 내관’은 업무를 분장하는 예조, 병조, 호조 등에서 유관 기관과 주고받은 문서, ‘품목’은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으로 품의한 문서를 모은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A관청에서 B관청에 요청하는 사항을 기록한 문서가 있고, 이에 대해 B관청에서 A관청에 답변서를 보내거나, 또는 B관청에서 A관청의 문서를 바탕으로 C관청에 보내는 문서가 모두 나타난다. 이처럼 의궤에 수록된 공문서에는 각 관청의 역할 및 유관 기관과의 상하 관계, 업무 협조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다.

국가 행사의 규모가 클 때에는 업무의 분장과 함께 의궤도 여러 개의 의궤로 구분되어 작성되는데, 이는 ‘의궤 속의 의궤’라 할 수 있다. 앞서 ‘의궤 제작과정’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의 국가 행사 가운데 규모가 큰 행사로는 국장과 가례를 꼽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업무를 분장한 일방(一方), 이방(二房), 삼방(三房)의 의궤가 작성되고, 추가로 국장의 경우에는 우주소(虞主所), 표석소(表石所), 지석소(誌石所), 별공작(別工作), 장흥고(長興庫), 전설사(典設司)의 의궤가, 가례의 경우에는 별공작(別工作), 수리소(修理所)의 의궤가 작성된다. ‘의궤 속의 의궤’가 이처럼 많은 것은 규모가 큰 국가 행사를 거행하기 위해 많은 부서가 업무를 세분하여 담당했음을 보여준다. 의궤에 수록된 공문서와 ‘의궤 속의 의궤’를 분석하면, 조선시대 국가의 운영 시스템을 파악할 수가 있다.

4) 물명(物名) 자료

의궤에는 행사를 거행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물품의 내역이 모두 기록되어 있으므로, 물명(物名)에 관한 자료가 풍부하게 나타난다. 가령 가례를 거행할 때에는 예물에 옷감 이름이 많이 나타나는데, 1759년에 작성된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에서 옷감 예물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 옷감 예물 목록	
별궁예물(別宮禮物) : 삼간택 후 올림	대홍정주(大紅鼎紬) 10필
	남정주(藍鼎紬) 10필
	백정주(白鼎紬) 10필

	초록정주(草綠鼎紬) 10필
	연초록정주(軟草綠鼎紬) 10필
	백토주(白吐紬) 10필
정친예물(定親禮物) : 납채 후 3일째 되는 날 보 냄	현색초(玄色?) 2필
	훈색초(?色?) 2필
납징예물(納徵禮物) : 납징하는 날 보냄	대홍주(大紅紬) 16필
	초록주(草綠紬) 16필
본방예물(本房禮物)	현색운문대단(玄色雲紋大緞) 2필
	훈색운문대단(?色雲紋大緞) 2필
	현색화단(玄色禾緞) 2필
	훈색초(?色) 2필
	대홍토주(大紅吐紬) 5필
	초록토주(草綠吐紬) 5필
	황토주(黃吐紬) 5필
	남토주(藍吐紬) 5필
	백토주(白吐紬) 20필
	홍염주(紅染紬) 5필
	황염주(黃染紬) 5필
	백면주(白綿紬) 10필

표 12.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 옷감 예물 목록

이상의 물명을 보면 옷감 이름은 먼저 색깔을 기록하고 다음으로 문양을 기록하며 마지막에 재료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옷감의 재료만 하더라도 정주(鼎紬), 주(紬), 초(綃), 대단(大緞), 토주(吐紬), 염주(染紬) 등으로 구분되어 각 재료에 대한 정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사용한 물품의 이름을 오늘날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의궤에 나타나는 물명 자료를 꾸준히 비추함으로써 우리 말 단어를 늘리고 전통시대의 생활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해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물명 사전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5) 인물 자료

의궤는 인물 자료의 보고(寶庫)라 할 수 있다. 의궤에는 행사 주인공은 물론이고 행사에 참여한 관리와 군인, 장인(匠人)들의 이름이 모두 나타난다. 가령 1795년 정조의 화성행차를 기록한 『원행음묘정리의궤』에는 반차도에 나타난 인원만 1,779명에 이르고, 현지에 미리 가 있거나 도로변에 대기하면서 근무한 자를 포함하면 6천 명에 이르는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다. 의궤에는 이 행사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과 소속 관청, 담당 업무가 기록되어 있다.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 장인 명단	
화원(畫員)	현재항 이최인 이복규 신한동 이필한 이광필 신덕흠 (일방) / 장지징 한조일 이필성 김응한 이도민 이종욱 허섭 (이방) / 정덕홍 이필성 한사근 장벽만 (삼방)
진칠장(眞漆匠)	김상휘 허인 조상벽 임윤금 공태휘 (이방)
가칠장(假漆匠)	정태근 유수량 김복수 이대창 (일방) / 정만재 유수량 (이방)
칠장(漆匠)	김순만 공태신 이진홍 문필성 이해빈 박세득 김윤구(일방) / 이영만 김덕중 최성근 (삼방)
주렴장(朱簾匠)	김세달 정석주 이시택 정만재 양두꺼비(..斗巨飛) 이상 고양 출신 (이방)
침선비(針線婢)	차애 흥해 분애 옥대 (일방) / 초정 행화 두매 옥랑 (이방) / 춘향 재정 일에 취열 (삼방)

표 13.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 장인명단_일부분

의궤의 인물 자료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장인이나 의녀(醫女), 침선비(針線婢)와 같이 하층민에서 동원된 인물에 관한 자료이다. 이들의 이름은 주로 「공장질(工匠秩)」에 나타나는데, 이 자료를 분석하면 특정 인물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다. 가령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 일방의궤에는 22종 67명, 이방의궤에 45종 109명, 삼방의궤에 42종 119명의 장인 명단이 나타나 당시 수공업이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 중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표 13〉).

이상을 보면 화원 이필성은 이방과 삼방에 참여했고, 칠장(漆匠)은 진칠장과 가칠장으로 기능이 분화되었으며, 주렴장은 모두 고양에서 차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렴장 가운데 양두꺼비는 천인 출신으로 생각된다. 또한 침선비는 12명이 참여했는데, 모두 천인이었기 때문에 성은 없고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

『진연의궤』 기녀 명단	
선창(先唱)	예분(원주), 현매(해주)
구호(口號)	자경화(안주), 밀성운(안주)
헌선도(獻仙桃)	예분(원주), 해월(공주), 개화(청주), 목단(평양), 분명(성천), 환춘앵(성천)
풍물차비(風物差備) 기생	거문고 채옥(안동), 장고 죽선(공주) 수금(광주), 가야금 단애(황주)
관현맹인(管絃盲人)	피리 김진성 신찬휘 전득추 윤덕상 백봉익, 거문고 이필강

표 14. 『진연의궤』 기녀 명단_일부분

『진연의궤』를 보면 궁중 잔치에 동원된 기녀들의 명단이 나타난다. 1744년 영조가 51세의 나이로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축하할 때 대왕대비를 주인

공으로 하는 내진연이 열렸는데, 의궤에는 악가무(樂歌舞)를 담당한 기녀들의 명단과 출신지가 나타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표 14〉를 보면 원주 출신 기녀인 예분은 선창과 헌선도를 담당했고, 내진연이므로 악기의 연주까지도 여성이 담당했다. 그런데 관현맹인에는 남성의 이름이 나타나 맹인 연주자인 경우에는 남성도 내진연에 참여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자료 가운데 하층민의 동향을 실명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희귀한데, 의궤에는 이에 관한 자료가 많이 나타난다. 의궤 기록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검색할 수 있다면, 특정 인물의 움직임 좀 더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 미술사 사료로서의 특징²⁷⁾

1) 의궤(儀軌)에 나타난 미술 관련 자료의 특성

의궤에서 찾을 수 있는 미술사 관련 자료는 대부분의 의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화원(畫員)과 공장(工匠), 반차도(班次圖)와 장식, 의례용 병풍 같은 궁중회화, 궁중 의물(儀物)을 포함한 공예품 등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 현존하는 전체 의궤 수의 1/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빈전혼전(殯殿魂殿), 국장(國葬), 산릉(山陵), 천봉(遷奉, 遷陵), 부모(祔廟), 가례(嘉禮), 책례(冊禮), 존숭도감의궤(尊崇, 尊號都監儀軌) 등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이 의궤들은 현존하는 의궤의 전체시기에 걸쳐 골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의궤의 체제를 보여준다. 그러나 시대 혹은 종류에 따라 몇몇 의궤는 대부분의 의궤가 공유하는 특징 이외에 미술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비교적 깊이 있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 장에서는 미술사적으로 특징 있는 의궤들에 관해 간략하게 짚어보기로 하겠다.

◎ 영접도감의궤(迎接都監儀軌)

영접 관련 의궤 중 유일한 1609년 『영접도감사제청의궤(迎接都監賜祭廳儀軌)』의 반차도(班次圖)는 전체가 손으로 그려진 방식으로서 17세기 후반 나

27) 박정혜, 〈미술사 사료로서의 조선왕조의궤〉, 조선왕조 의궤 학술 심포지움, 2007

타나기 시작하는 목판 기법이 혼용된 반차도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손으로 그린 그림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필선의 변화와 생동감은 일률적인 보통의 목판 반차도에서는 느낄 수 없는 맛이다. 그러나 겹치기 표현, 즉 선후관계나 원근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표현이 미숙하며 인물과 사물간의 비례 및 유기적 관계 묘사도 어색하다. 의궤의 반차도 중 가장 시대가 올라가는 1604년 『[선조]재존호도감의궤([宣祖]再尊號都監儀軌)』의 반차도와 함께 17세기 초 반차도의 특징을 잘 알 수 있다.

◎ **대사례의궤(大射禮儀軌)**

의궤로서는 처음으로 행사도 형식의 채색화 御射禮圖, 侍射禮圖, 侍射官賞罰圖의 세 장면이 12쪽에 걸쳐 그려져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이외에는 반차도나 기물도(器物圖)가 없으며 그림 바로 뒤에 <대사례도해(大射禮圖解)> 라는 항목을 두어 그림의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고 있는 점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다. 의궤와 같은 내용의 그림에 좌목(座目), 시사(侍射) 성적, 병조판서의 서문(序文)을 더하여 제작된 궁중기록화인 <대사례도(大射禮圖)>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대사례의궤』는 정조년간의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에 선행하여 행사도 형식의 그림을 최초로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술사적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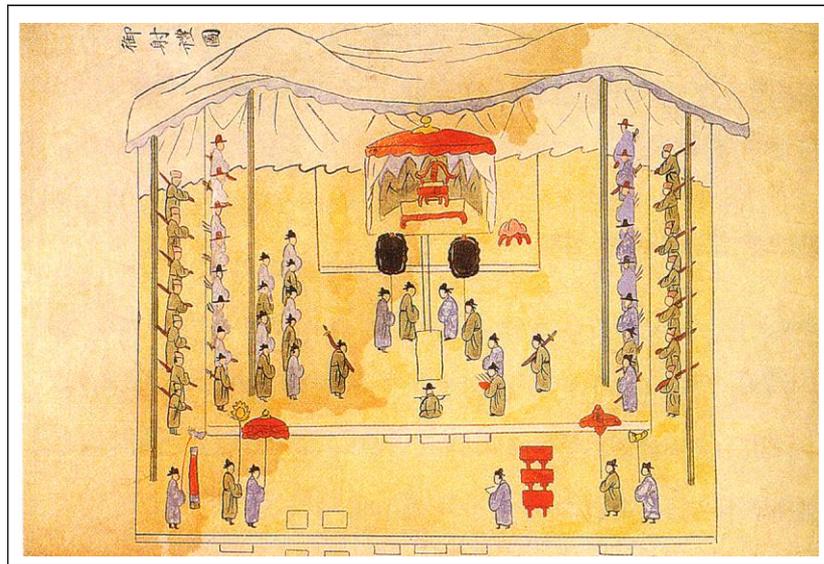


그림 9. 『대사례의궤』 어사례도(임금의 활쏘기)

◎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와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원행을묘정리의궤』와 『화성성역의궤』는 행사의 현장이 화성(華城)으로서 내용상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을묘년(1795)의 원행과 화성 축조완공

의 기념화로서 제작된 〈華城陵行圖屏〉, 김홍도의 〈西城羽獵〉, 〈聞亭品菊〉과 직결되어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은 의궤가 아니었다면 제작 현황과 자세한 내용 고찰이 불가능했을 그림이기 때문이다. 미술사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두 의궤의 특징은 모든 종류의 그림을 권수(卷首)의 〈도식(圖式)〉에 한꺼번에 모아놓은 점, 분방(分房) 체제에 의한 편차가 아니라는 점, 본문은 금속활자인 정리자(整理字)로 인쇄하고 그림은 목판화로 제작한 점,²⁸⁾ 반차도, 기물도, 건물도 등 기존 의궤 그림의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 다양한 내용의 그림을 실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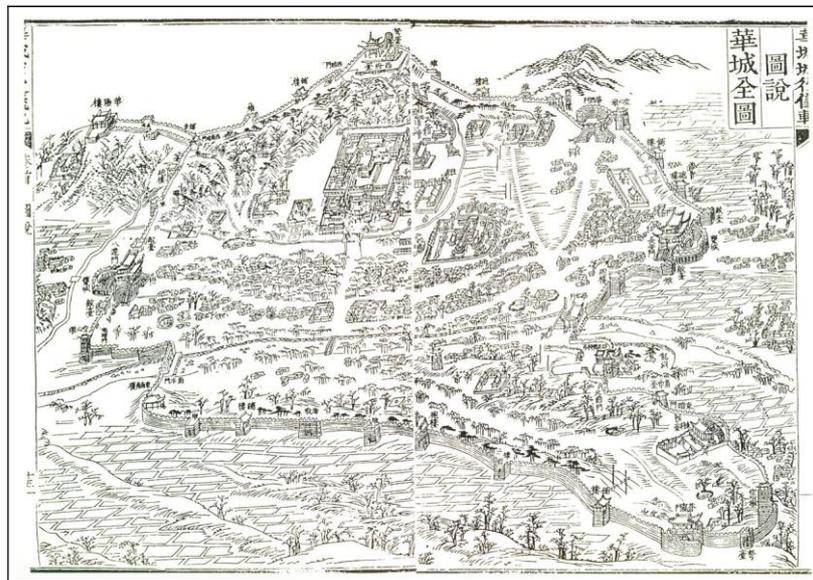


그림 10. 『화성성역의궤』 화성전도

이 두 의궤의 그림은 정조대 목판화의 높은 수준을 대변하며 당시 서양화법의 수용과 과학적 사고의 반영을 잘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원행을묘정리의궤』는 19세기 연향 관련 의궤의 체제를 바꾸어 놓은 영향력 있는 의궤였으며, 그 결과 일부 의궤이기는 하지만 보수성이 강한 의궤 그림의 일정한 패턴을 깨뜨리고 다양한 내용의 의궤 그림이 한층 제고(提高)된 수준으로 제작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원행을묘정리의궤』가 19세기의 다른 종류의 의궤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유독 연향 관련 의궤에만 전거가 된 점은 전례(前例)를 중시하는 의궤가 종류에 따라 유형화되는 한 경향이기도 하다.²⁹⁾

28) 판화 기법은 17세기 후반부터 반차도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며 『園幸乙卯整理儀軌』에서 처음으로 한 면

29)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19세기의 연향관련 의궤는 『園幸乙卯整理儀軌』 附編 「延禧堂進饌」에 의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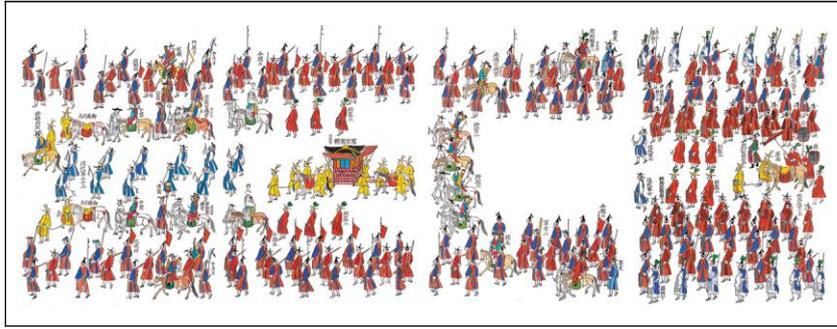


그림 11. 『원행을묘정리의궤』의 반차도

◎ 풍정도감의궤(豊呈都監儀軌), 진연의궤(進宴儀軌), 진찬의궤(進饌儀軌), 진작의궤(進爵儀軌)

연향관련 의궤는 어느 종류의 의궤보다도 미술관련 자료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것은 『원행을묘정리의궤』의 체제와 간인방식을 따른 19세기의 의궤에 해당하는 말이다. 1630년(인조 8)의 『풍정도감의궤(豊呈都監儀軌)』, 1719년(숙종 45)와 1744년(영조 20)의 『진연의궤(進宴儀軌)』, 1765년의 『수작의궤(受爵儀軌)』 등 18세기까지는 보통의 책례도감의궤나 가례도감의궤처럼 분방(分房)에 의한 편차와 필사(筆寫)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그림이 전혀 없으며 각방(各房)에서 일한 화원과 공장의 이름 및 의물의 제작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을 뿐 상대적으로 미술관련 자료가 빈약한 편이다. 반면에 19세기의 『진작의궤』, 『진찬의궤』, 『진연의궤』는 행사도 형식의 연향 장면, 행사장 건물도, 정재도(呈才圖), 채화도(綵花圖), 기용도(器用圖), 의장도(儀仗圖), 정재의장도(呈才儀仗圖), 악기도(樂器圖), 복식도(服飾圖) 등이 있어서 의례의 세부 절목에 관한 명료한 이해를 돕는다. 19세기의 대표적인 궁중기록화인 진찬도병(進饌圖屏) 및 진연도병(進宴圖屏)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이 도병들은 행사 후에 진찬소(進饌所), 혹은 진연청(進宴廳)에서 계병(契屏)으로 제작한 것인데 만일 의궤가 없었다면 그림의 자세한 내용 파악은 물론 계병의 제작 현황과 비용, 제작 화원 등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향 관련 의궤는 같은 종류의 의궤이지만 18세기와 19세기의 차이가 가장 큰 종류라 할 수 있으며, 그 시대적 특징은 1795년을 기점으로 전후의 두 시기로 뚜렷이 구분된다.

한편 영국국립도서관 소장의 19세기 의궤인 『기사진표리진찬의궤(己巳進表裏進饌儀軌)』(1809년)의 경우 체제는 『원행을묘정리의궤』를 따랐으나 그림만은 모두 손으로 그렸는데 그 섬세한 표현과 화려한 채색은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³⁰⁾ 행사 자체가 자내설행(自內設行)이었으므로 의궤도 분상용 없

이 내입용으로 특별히 한 두건만을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어람용 의궤의 그림 수준을 알 수 있는 좋은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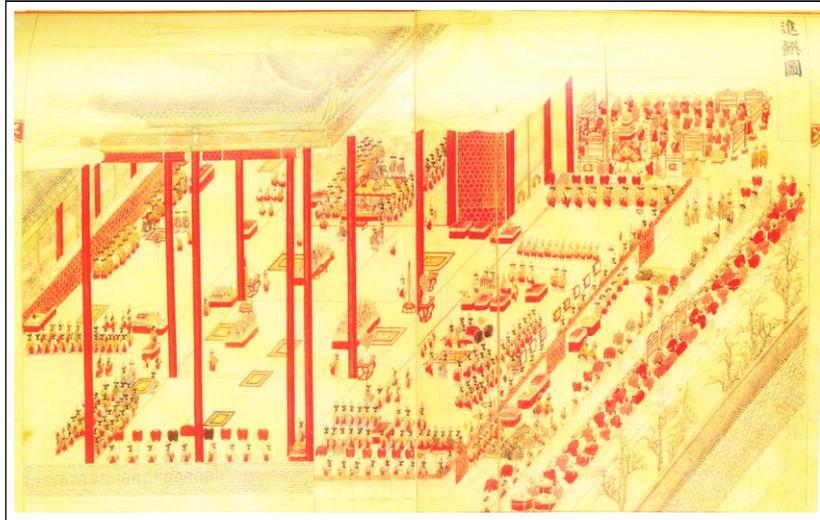


그림 12. 『기사진표리진찬의궤』 창경궁 경춘전 진찬도

◎ 의궤의 그림 : 반차도(班次圖)와 도설(圖說)

의궤를 미술사에서 연구대상으로 주목하였던 첫 번째 동기는 그림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의궤는 업무 분장에 따라 각방 혹은 각소 의궤별로 편찬되고, 각방 혹은 각소 의궤의 본문 사이사이에 행렬반차도와 행사 준비 과정에서 신조(新造)된 각종 물품의 소략한 기물도(器物圖)를 신는 체제가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런 출발은 예외 없이 계속되다가 영조·정조 년간에 변화의 계기를 맞았다. 즉 본문과 분리된 ‘도설(圖說, 圖式)’이라는 항목의 신설은 많은 양의 그림을 일목요연하게 수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기존의 일반적인 편집 체제를 따르지 않은 의궤들은 이러한 도설 항목을 통해 다양한 제재의 그림을 소화할 수 있었다. 이런 체제는 제1책이 모두 「도설」로 편집된 숙종대의 『종묘의궤(宗廟儀軌)』(1706년)에서 채택된 이후 정조대의 일부 의궤에서 계승되었으며,³¹⁾ 19세기의 연향(宴享) 관련 의궤와 영건(營建) 관련 의궤에서 볼 수 있는데 많은 양의 그림을 체계적으로 실을 수 있으며 열람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제작기법에 따르면 **손으로 그리는 방법**과 **판화기법**의 두 가지로 구분되며,

30) 행사 장면을 進表裏圖, 進饌圖, 殿內圖, 東補階圖, 西補階圖로 나누어 그린 점이 특이한데, 이러한 구세기의 연향 관련 의궤 중 『慈慶殿進爵整禮儀軌』(1827년) 까지만 이어졌다.

31) 『宮園儀』(1780년), 『社稷署儀軌』(1783년), 『景慕宮儀軌』(1783년), 『文禧廟營建廳膳錄』(1789년), 『園幸乙卯整理儀軌』 『華城城役儀軌』 등의 의궤가 있다.

형식에 따라 분류하면 반차도(班次圖), 기물도(器物圖: 일종의 見樣), 건물도(建物圖), 행사도(行事圖) 등이 있다. 도감의 종류에 따라 수록되는 그림의 내용이 같은 것은 역시 의궤 편찬 자체가 전례(前例)의 철저한 상고를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반차도는 주로 행렬반차도이며 도감(都監)의 종류에 따라 행렬의 내용이 다르다. 국장도감의궤(國葬都監儀軌)에는 모두 발인반차도(發靛班次圖)이며,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에는 왕비가 별궁으로부터 입궐하는 행렬이나 왕이 친영의(親迎儀)를 마치고 함께 입궐하는 행렬이, 책례도감의궤(冊禮都監儀軌)에는 교명(敎命)·죽책(玉冊, 竹冊)·보인(寶印)을 만들어 내입(內入)하는 행렬이, 존숭(尊崇)·존호도감의궤(尊號都監儀軌)는 책인(冊印)을 꺾내나 경모궁(景慕宮), 태묘(太廟), 빈전(殯殿) 등 행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봉안 장소로 들어오는 행렬이 그려져 있다. 어진(御眞) 관련 의궤에는 새로 완성된 어진을 봉안하러 가는 행렬이나 구본(舊本)을 모사 장소로 옮기는 행렬이 그려져 있다. 때로는 『국조보감감인청의궤(國朝寶鑑監印廳儀軌)』의 완성된 국조보감을 종묘에 봉안하는 행렬이나 『[純祖]왕世子冠禮冊儲都監儀軌』(1800년)의 <관례도(冠禮圖)>와 <책례도(冊禮圖)>처럼 글자로 된 문반차도(文班次圖)가 대체하기도 한다.³²⁾

반차도는 측면관, 정면관, 배면관의 인물과 말 등이 정해진 위치에 일정한 순서와 숫자만큼 그려져 있는 단순한 그림이지만 인물의 신체비례, 얼굴의 묘법, 사용된 채색과 색감 등에서 시대적인 차이를 읽을 수 있으며 각종 궁중행사도의 인물 양식과도 잘 비교가 된다.

기물도는 행사 과정에서 신조(新造)된 각종 의물과 기물의 모양을 그려놓은 것이다. 각방의궤(各房儀軌: 一房·二房·三房), 혹은 각소의궤(各所儀軌: 虞主所·表石所·誌石所·分長興庫·分典設司·造成所·三物所·大浮石所·小浮石所 등)의 해당 기물의 설명 뒤에 간단하게 그려져 있다. 시각적인 그림은 해당 기물의 용도, 외형적 특징, 제작 공정, 포장과 보관, 소용 물자와 단가 등에 관한 설명을 상호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건물도는 계화(界畵) 기법의 평면도(平面圖)와 정면도(正面圖)로 나눌 수 있다. 평면도는 국가 제사와 관련된 『종묘의궤(宗廟儀軌)』(1706년)의 <종묘전도(宗廟全圖)>와 <영녕전전도(永寧殿全圖)>, 『경모궁의궤(景慕宮儀軌)』(1784년)의 <본궁전도설(本宮全圖說)>,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1804년)

32) 한편, 19세기의 『進爵儀軌』, 『進饌儀軌』, 『進宴儀軌』의 「圖式」에는 행사도 형식의 그림에 앞서 행사도의 각 장면에 해당하는 문반차도가 있어서 그림에 그려진 인물의 위치와 직위, 기물의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의 <사직서전도(社稷署全圖)>와 산릉도감의궤의 <門圖>에서 볼 수 있다. 정면도는 19세기의 영건도감의궤의 『도설』 항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仁政殿營建都監儀軌』(1805년)의 <인정전>, 『西闕營建都監儀軌』(1832년)의 <隆福殿> 등). 17·18세기의 궁궐이나 진전(眞殿)의 영건 및 수리 관련 의궤에서는 그림을 찾아볼 수 없다.

행사도 형식의 그림은 정조대 『원행을묘정리의궤』와 『화성성역의궤』로부터 본격적으로 촉발되었으나 사실상 의식의 과정을 세 장면으로 압축하여 실었던 영조대 『대사례의궤(大射禮儀軌)』의 전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그림들이 모두 목판화로 제작된 점은 판화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데 특히 『화성성역의궤』의 「도설」 판각기술과 소재의 운용 면에서 정조년간 절정을 이룬 판화 수준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단순한 건물도에 그칠 수 있는 소재인 <迎華亭圖>, <迎華驛圖> 같은 장면은 산수화와 건물도의 경계에서 회화성이 넘치는 한 폭의 훌륭한 산수화로 승화되어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전달한다. 판화이지만 원근법과 투시도법, 명암법을 뚜렷이 표시하여 당시 화단의 경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과학적인 사고에 의한 전도(全圖)와 분도(分圖)를 그린 점(<駕輪圖>, <舉重機>), 성곽시설을 필요에 따라 외도(外圖), 내도(內圖), 이도(裏圖)의 여러 모습으로 그려둔 점(<東北空心地墩內圖>와 <裏圖>, <東北角樓外圖>와 <內圖>) 등은 후대 참고자료로서의 활용을 극대화시킨다.

2) 미술사적 의궤 연구의 과제

의궤를 미술사적으로 연구할 때 앞으로 요구되는 몇 가지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회화사에서는 행렬반차도(行列班次圖)와 도식(圖式, 圖說)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행렬반차도의 경우 가례도감의궤와 책례도감의궤 등을 통해 그 회화적 특징과 시대적 변화에 대한 분석이 있었다. 그 결과는 어느 종류의 반차도에 대입해도 무난히 적용되리라 믿는다. 그러나 전체 반차도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요망되는 것은 일부분을 가지고 논했을 때 많은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음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시대별 반차 내용의 변화, 제작 기법의 차이(예를 들어, 목판기법이 혼용된 가장 이른 반차도의 규명, 刻法), 양식적 특성(예를 들어, 인물과 말의 유형별 특징과 묘법, 의물과 의장기의 표현), 채색의 사용(洋彩의 사용여부, 색감) 등을 면밀하게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는 궁중회화, 기록화, 채색화 연구의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장도감의궤(國葬都監儀軌), 산릉도감의궤(山陵都監儀軌)와 천봉도감의궤(遷奉都監儀軌)를 중심으로 왕실의 능원(陵園)에 대한 조각사적 고찰이 요망된다. 이미 의궤를 통해 일부 왕릉의 석물에 대한 연구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이 역시 행렬반차도에서 기대되는 것처럼 왕릉에 조성된 석난간(石欄干), 석수(石獸), 문무인석(文武人石), 장명등(長明燈), 망주석(望柱石), 정자각(丁字閣), 비각(碑閣) 등에 대해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현전하는 왕릉의 석물과 함께 비교·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조각사는 주로 불교조각사 위주로 연구·서술되어 왔는데 이 편중된 연구방향을 조선시대 왕릉의 석물 연구가 상당 부분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왕의 태실(胎室)을 태봉(胎峰)으로 격상시킬 때 조성된 석물에 대한 연구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태실(胎室) 관련 의궤는 많지 않지만 태조, 성종, 경종, 정조, 순조, 익종 태봉의 석물조배(石物造排)에 대한 의궤가 남아 있다.

셋째, 의궤의 내용은 사실 공예사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화원보다는 공장에 대한 기록이 훨씬 방대하다. 「감결질」과 「품목질」에는 공장들이 사용하였던 각종 물종으로 가득 차 있으며 각방과 각소의궤는 물건의 제작 공정과 물종(物種)에 대한 내용이다. 민예품 제작의 연구에 비해 궁중의례용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실정에서 의궤 연구만이 이를 메워줄 수 있다고 본다.

교명(敎命), 죽책(竹冊)·옥책(玉冊)·금책(金冊), 보인(寶印), 이들을 보관하기 위한 함(函)과 갑(匣), 보자기[褙], 가마[輦·輿], 의장기[鹵簿] 등을 현전하는 실물 작품과 연계하여 의궤를 분석한다면 궁중의례용품의 특성과 그 제작에 관한 종합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일부 의궤를 대상으로 조선시대 공장(工匠)의 종류와 시기별 변화양상의 대략적인 윤곽은 파악되었으나 전체 의궤로 범위를 확대하여 종합적인 공장의 실태 파악이 요구된다.

넷째, 미술사와 관련된 물명(物名:채색, 재료, 용구 등)과 용어에 대한 사전적 정리가 요구된다. 최근 의궤 용어사전 편찬이 분야별로 시도되고 있으나 미술사에서는 아직 그러한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명칭과 용어를 추출하여 그 뜻을 밝혀내는 작업은 현재 일본어에 의해 많이 변질된 미술 관련 용어의 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본다.

다섯째, 의궤가 가지고 있는 미술사적 자료의 개별적인 특성과 의의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앞으로의 연구는 어떤 주제로 접근하던지 반드시 전체 의궤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의궤는 전례(前例)를 고수하는 보수성이 강한 문헌이다. 그림이 비슷비슷하고 별 차이가 없는 듯 보여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그 안에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민감하게 수용되어 있으며 동시대의 미술경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의궤 전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망할 때 보다 심도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3. 건축사 사료로서의 특징³³⁾

건축은 사회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다. 건축을 보면 그것이 지어지던 당시 사회를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그만큼 건축은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존속해 왔다. 하나의 건축이 지어지는 데는 당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제반 여건이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 집을 짓는 데 참여한 기술자들의 기술이 또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건축물은 지상에 서 있는 건축물 자체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종종 오래된 건축물은 정확히 언제 지어졌는지 알 수 없고 중간에 어떤 부분이 어떤 이유로 달라지게 되었는지도 건물만 들여다보고는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 건축물에 대한 기록물이다. 집의 내력을 파악할 수 있는 소상한 기록물이 수반되었을 때 하나의 건축물은 역사적인 증거물로서 그 가치를 더해준다.

유감스럽게도 한국건축은 충분한 기록을 갖고 있지 못하다. 잦은 전쟁이나 화재 등으로 기록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건축물에 대한 무관심으로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이런 가운데 조선 시대에 작성된 의궤는 조선시대 건축에 대한 기록물이란 측면에서 다른 어떤 유형의 기록물보다 충실하고도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이다. 의궤는 조선시대 문화 전반에 걸친 소중한 기록물이지만 건축에 대해서도 각별한 중요성을 지닌 자료이다.

1) 조선시대 건축에 대한 기록물과 의궤

조선시대의 역사적 기록물은 다양한 형태로 많은 양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건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에 한정해서 본다면 그 종류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양도 얼마 되지 않는다. 특히 건축공사와 관련한

33) 김동, <건축사 사료로서의 조선왕조 의궤>, 조선왕조 의궤 학술 심포지움, 2007.

기술적인 문제를 다룬 자료는 근소하다.

조선시대에 작성된 그림 자료 가운데 건축물을 묘사한 것은 많다. 그러나 대개는 풍경의 일부 또는 풍속화의 배경으로 그려지는 것이어서 이것을 가지고 당대 건축물을 고찰하기는 한계가 있다. 예외적으로 직접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그려놓은 기록물들이 있는데, 창덕궁과 창경궁의 전경을 그린 『동궐도』는 그 대표적인 자료일 것이다.

다만 『동궐도』³⁴⁾ 역시 조감도의 형식으로 궁궐 전체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어서 건물의 정면과 측면 한쪽의 모습은 묘사되고 있지만 뒷면이나 나머지 다른 측면이 어떤 모습인지는 알 수 없다. 또 실제의 건물모습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그림이 갖는 한계가 적지 않다.

화원이 그린 그림이 아니고 어느 정도 건물의 치수를 의식하고 도면의 형식을 빌려 작성된 자료가 일부 전한다. 『동궐도형』이나 『북궐도형』³⁵⁾, 『사대부가도형』³⁶⁾, 『창의궁배치도』³⁷⁾ 등 ‘도형(圖形)’이라는 이름으로 전하는 이들 자료는 아직 어떤 건물들에 대한 도형이 작성되었고 그것을 만든 목적이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의 성격을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이들 도형은 대체로 1900년 이후에 와서 근대적인 측량기술이 도입되면서 작성된 것들이어서 그 작성 배경이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건축 관련 자료와는 다르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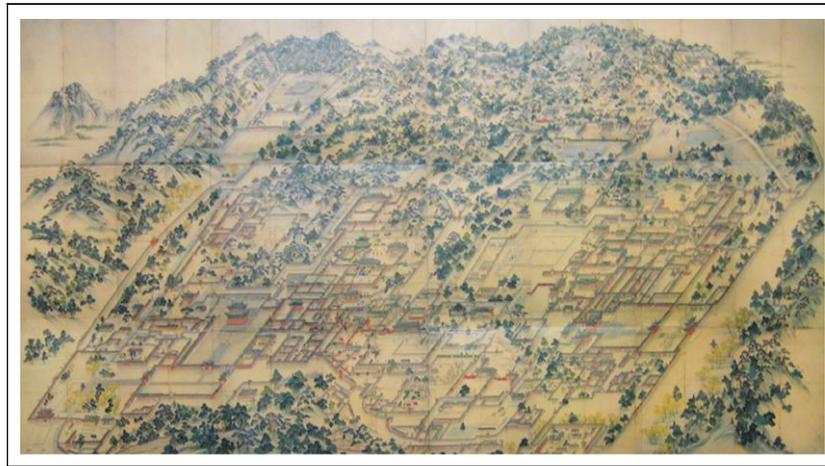


그림 13. 『동궐도』

34) 창덕궁과 창경궁의 전모를 묘사한 채색도. 1830년경에 제작된 것이며 현재 고려대학교 박물관,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35) 동궐도형은 창덕궁과 창경궁의 배치평면을, 북궐도형은 경복궁의 배치평면을 그린 것으로, 제작시기는 1907-8년 사이로 추정된다. 현재 동궐도형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북궐도형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36) 한국학중앙연구원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사한 명칭의 가옥배치도를 총칭함. 동 도서관에는 제작시기가 불분명한 가옥배치도가 20여 종 알려져 있다.

37) 영조의 잠저인 창의궁의 배치평면을 그린 것으로 1907년 이후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려대학교박물관에 소장

의궤라는 형식으로 작성된 건축 관련 사료는 다른 기록물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건물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의궤는 주로 왕실에서 거행되는 각종 의식이나 행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지만 간혹 궁궐이나 왕실 사묘 또는 국가적인 차원의 축성 공사를 기록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시대 의궤는 637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가운데 건물을 새로 짓거나 수리한 내용을 다룬 의궤는 32종정도가 있다. 이 밖에도 『산릉도감의궤』나 『빈전훈전도감의궤』에도 산릉을 조성하면서 정자각, 재실 등을 짓는 내용이 있고 ‘빈전’이나 ‘훈전’을 차리면서 기존 건물을 수리하고 또 일부 부속시설을 새로 짓는 공사 내용이 있다. 또한 ‘진찬’이나 ‘진연행사’를 기록한 의궤에도 행사가 거행되는 건물에 대한 그림을 수록하고 행사에 앞서 건물의 부분적인 수리를 적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이 가운데 건축 관련 사료로서 가장 중요한 의궤는 궁궐이나 왕실 사묘의 신축이나 수리 등을 다룬 의궤이다.

또한, 의궤는 후대에 유사한 공사를 벌일 때 이전에 했던 일의 내용이나 절차를 기록으로 남겨서 참고로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건축공사의 경우, 의궤를 작성하기에 앞서 공사 현장에서 관리들이 자재의 출납이나 감독관, 장인, 단순노역자 등의 인적사항과 이들에게 지불되는 노임 등을 일일이 적어서 등록의 형태로 보관하게 된다. 공사가 끝나면 등록에다가 공사와 관련한 왕의 명령이나 관련 관청 사이에 오고 간 문서들을 수합 정리해서 편찬체계에 맞추어 날짜순으로 내용을 일정한 것이 건축 관련 의궤이다. 때로는 해당 건물의 간단한 배치도나 개별 건물의 형상을 그림으로 그려서 삽입하기도 한다. 물론그림은 화원이 그린다. 따라서 건축공사를 다룬 의궤 역시 건축기술자가 내용을 직접 기록하거나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공사와 관련한 문서를 모으고 사용된 자재내용을 적고 일에 참여한 장인의 인적사항을 밝혀 놓은 점에서 건축 사료로서의 가치는 조선시대 다른 어떤 자료보다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본다.

2) 건축 관련 의궤에 나타난 채색 체계 특성³⁸⁾

조선시대 궁궐건축의 채색 특성은, 첫째 왕궁의 위엄을 상징하는 위계 특성으로 이것은 사용 색과 단청법으로 표현되는데 궁궐별, 전각별로 각각 그 특성이 다르다. 채색의 위계에 있어서 정궁과 이궁과는 뚜렷한 구별이 나타나나 정전과 편전, 침전에서는 공간 사용의 위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위계를 평가하는 주요 인자는 붉은색의 사용정도였다.

38) 정유나, <조선시대 궁궐건축의 건축채색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대학원 석사논문, 1995

둘째는 조형적 특성으로 건축형태를 강조하는 채색과 건축형태를 보완하는 채색, 또 건축형태와 대응하는 채색으로 구분하였다. 강조 특성은 초매기, 이매기에서 수평색긋기로 처마선 강조, 공포부재의 주홍육색긋기로 인한 수직성 강조 등이며 보완 특성은 도리와 평방, 창방에서 부재의 길이에 따라 채색 문양을 조절하는 것 등이고, 대응 특성은 점차 부리와 부연 부리처럼 같은 형태의 부재에서 같은 채색법이 대응되는 것 등이다.

셋째는 구조적 특성으로 건축 구조 강조와 구조 대응 특성에 있다. 강조 특성은 전통 가구식 구조에서 구조 의미가 강한 선재(線材)에는 붉은색을 사용하고 그 부분을 채우는 면재(面材)에는 푸른색을 사용한 것 등이다. 구조 대응은 전통 건축 채색의 기본 원리로 건축 구조 부재에 따른 일정한 채색법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특히 궁궐건축에서 나타난 공통 원리를 부재별로 기술하였다.

의례적인 행사를 담당하였던 상징적인 정전보다 실제로 정사를 맡아 행하였던 편전에서 높은 채색위계를 보였고 침전도 전체적으로 높은 채색위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위계 정도를 평가하는 요인은 사용 색에서는 적색 > 청색 > 녹색의 사용정도와 같은 색이라 할지라도 순도가 높은 색이었다. 또 다른 평가요인인 단청법은 건물 전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재별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3) 현존하는 건축 관련 의궤³⁹⁾

최근 조선시대 의궤의 종합적인 목록조사를 한 정리한 『규장각소장 의궤 종합목록』(2002, 서울대학교규장각)에 의하면 궁궐이나 사묘의 신축 또는 수리를 다룬 직접적인 건축 관련 자료는 32종정도가 파악된다. 이 가운데 편찬 시기가 가장 앞선 것은 1633년의 『창경궁수리소의회궤』이다.⁴⁰⁾ 물론 이보다 앞선 시기에도 건축 관련 의궤가 있었겠지만 임진왜란 때 의궤를 보관하던 사고가 소실되었기 때문에 이 때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⁴¹⁾ 마지막으로 대한 제국기에 만든 1906년의 『경운궁중건도감의회궤』를 꼽을 수 있다. 32종의 의궤를 내용별로 보면 궁궐 관련한 것이 14종, 왕실 사묘를 다룬 것이 16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능의 정자각이 1종, 그리고 축성공사를 다룬 『화성성역의회궤』가 있다.

39) 김동, <건축사 사료로서의 조선왕조 의궤>, 조선왕조 의궤 학술 심포지움, 2007.

40) 현존 의궤 가운데는 1601년(선조34)에 만든 『빈전훈전도감의회궤』(의인왕후)가 가장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규장각소장의회궤종합목록』, 2002에 의함) 여기서는 건축 관련 의궤에 한정하였다.

41) 조선초기에 경복궁을 지으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경복궁조성의궤』라는 책 이름이 실록에 보이지만 책 이름 외에는 전하는 것이 없다 『성종실록』 권172 성종15년 11월 정해)

의궤에 그림이 나타나는 것은 현존 가장 오랜 의궤인 1601년의 『의인왕후 빈전혼전도감』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건축 관련 의궤에서는 좀처럼 그림이 보이지 않다가 1752년(영조28)의 『의소묘영건청의궤』에서 처음으로 간략한 배치도를 삽입한 사례가 나타난다. 이후로 건축 관련 의궤에도 조금씩 그림이 삽입되기 시작하여 순조대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의궤에 그림이 들어간다. 다만 채색그림이 있는 경우는 드물어서 『현사궁별묘영건도감의궤』와 『중묘영녕전중수도감의궤』에서 갑실 등을 채색으로 그린 그림이 있을 따름이다.

이들 건축 관련 의궤류 가운데 『화성성역의궤』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특별하다. 우선 그 분량이 전체 667장에 달하여 다른 의궤들이 많아도 200여장인 것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 이것은 『화성성역의궤』의 공사가 단일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록에 있어서 상세함을 갖춘 까닭이라고 하겠다. 그림도 분량이 많을 뿐 아니라 내용도 다른 의궤에서 볼 수 없는 상세함이 돋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의궤가 궁궐이나 왕실사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대하여 화성성역만이 유일하게 성곽공사를 다루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또한 대부분의 의궤가 필사본인데 비해서 『화성성역의궤』는 활자본으로 인쇄되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화성성역의궤』가 활자본이 된 이유는 『화성성역의궤』 편찬이 정조의 명에 의해 정리소에서 주관하여 활자본으로 간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처럼 『화성성역의궤』는 규모에 있어서나 체제, 그림의 수록 등 모든 면에서 돋보이는 기록물임을 알 수 있다.

4) 건축사 자료로서 의궤의 가치

건축공사 관련 의궤는 당대의 구체적인 건물신축이나 수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 또한 공사에 참여한 감독관이나 장인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자료를 전해준다.

공사에 소용되는 자재의 수급은 의궤에서 가장 소상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다. 예를 들어, 1796년 화성성역을 할 때는 충청도 안면도에서 바람에 쓰러진 나무를 주로 가져다 쓰고 큰 괴목은 전라도 남쪽 섬에서까지 구해다 썼다고 한다. 단청을 칠하는 데 쓰는 뇌록은 서울에서 뇌록을 취급하는 상인들에게서 사다 썼다.

당시의 건축용어 역시 의궤가 제공해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화성성역의궤』 도설편은 가장 풍부한 내용을 그림을 곁들여 설명해주고 있다. 시대에 따른 용어의 변화 역시 의궤에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공포의 한 종류인 익공은 17세기에는 입주(立工), 엽공(葉工) 등으로 쓰이다가 18세

기 후반에 와서 익공(翼工)으로 통일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들보에 대해서도 17세기의 의궤는 종복(從), 평복(平), 대복(大), 곡복(曲) 등 다양한 명칭으로 쓰이던 것이 19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현재 통용되는 것과 유사하게 대량(大梁), 종량(從梁), 퇴량(退梁) 등으로 정착되는데 의궤는 이러한 변화과정을 잘 보여준다.

건축 관련 의궤는 일반 사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건축공사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려준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건물의 형태나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간 자재의 종류와 수량을 전해준다. 공사에 종사한 감독관이나 많은 장인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입하고 그들이 속한 관청이나 거주하던 지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장인이 사용하던 연장의 종류도 알 수 있다. 건축용어는 의궤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단지 당대 용어의 어휘만이 아니고 용어의 시대적 변천까지 파악할 수 있다.

조선시대 건축물은 대부분이 목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어쩔 수 없이 훼손되거나 원형을 상실하게 마련이다. 물론 지속적인 관리와 수리를 통해서 처음 지었던 형태를 잘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20세기를 거치면서 대부분이 원형과 거리가 먼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금 남아 있는 건물만을 두고 처음 지어졌거나 건물이 활용되었을 때를 상상하는 것은 자칫 허구에 빠질 우려가 크다. 의궤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이 궁궐이나 왕실 사묘나 능침 또는 화성처럼 나라에서 지은 성곽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대 건축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파악하려고 할 때 의궤는 가장 신뢰할만한 사료로 이용될 수 있으며 현존하는 건물을 원형으로 보존,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해 준다.

건축 관련 의궤를 통해서 건물의 기획과 구상, 형태는 물론 공사 감독자와 장인들의 신상, 장인들이 사용한 연장, 자재의 수급과정, 공사경비와 각종 의례에 대한 소상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17세기에서 20세기 초 사이의 건축 관련 제반 기술의 변화상을 읽어내는 일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당대 쓰이던 건축 용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현재 조선시대 건축에 대한 용어는 현장의 기술자들에 따라, 또는 학자들에 따라 서로 다르게 쓰이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러한 차이는 현장의 기술자들이 지역에 따라 또는 기술을 전수받은 계통에 따라 쓰는 용어를 달리하는 데서 오기도 하고 학자들이 특정한 학설이나 주장을 고집하는 데서 초래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문헌 근거가 중요한 지침이 되며 의궤의 용어 사례는 현재로는 가장 믿을만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나가야 할 남북한 간의 용어 통일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 문헌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건축사 사료로서 의궤가 갖는 가치는 단지 과거의 건축적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서 건축문화 유산에 대한 미래를 열어가는 디딤돌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한영우, 《조선왕조 의궤(儀軌)_국가의례와 그 기록》, 일지사, 2010.
- 김문식, 신병주, 《조선왕실기록문화의 꽃, 의궤》, 돌베개, 2005.
- 한영우, 〈조선왕조 의궤란 무엇인가〉, 조선왕조 의궤 학술 심포지움, 문화재청, 2007.
- 신병주, 〈조선왕조 의궤의 제작과 보관〉, 조선왕조 의궤 학술 심포지움, 문화재청, 2007.
- 심재우, 〈조선왕조 의궤의 현존상황과 보존방안〉, 조선왕조 의궤 학술 심포지움, 문화재청, 2007.
- 한영우, 〈조선시대 의궤 편찬 시말〉, 한국학보 제29호, 2003
- 김 혁, 〈장서각 소장 등록의 성격〉, 『藏書閣所藏摺錄解題』, 한국정신 문화연구원, 2002.
- 김문식, 신병주, 이종묵, 정경희, 김혁,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 외규장각 의궤 조사연구』, 외교통상부, 2003.
- 박정혜, 〈미술사 사료로서의 조선왕조 의궤〉, 조선왕조 의궤 학술 심포지움, 문화재청, 2007.
- 김 동, 〈건축사 사료로서의 조선왕조 의궤〉, 조선왕조 의궤 학술 심포지움, 문화재청, 2007.
- 정유나, 〈조선시대 궁궐건축의 건축채색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5

■
제 3부

대표디자인, 의궤

1장. 오례에 근거한 대표적인 의궤

의궤는, 국왕의 혼인을 비롯한 세자의 책봉, 왕실의 혼례, 장례, 궁궐의 건축과 같이 왕실을 중심으로 한 중요한 행사의 모든 사항을 담은 기록이다. 따라서 이번 대표적인 의궤의 선정에 있어서 왕실의 각 오례에 해당되는 의식과 행사 과정을 담은 의궤를 선정하게 되었다.

1. 왕의 탄생_ 왕실의 태를 봉인한 기록

◎ 『정종대왕태실가봉의궤』

왕실에 새왕자가 탄생하면 즉시 왕자의 태(胎)를 보관할 장소를 결정하고 현지에 태실(胎室)을 만들어 정중하게 안장하는데,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태실가봉의궤>이다.



그림 14. 백자 내외호(백자 태항아리)

태를 담은 왕자의 태항아리¹⁾는 산과 강이 있는 경치가 좋은 땅에 묻었다. 태가 묻어 있는 방을 태실이라고 태실일 있는 산을 태봉산이라고 했다. 보통 높고 뾰족한 봉우리가 있는 곳이 태봉산이 되었는데, 조선시대에는 지도에 태실과 태봉산도 기입을 했었다. 태실의궤는 비교적 다른 의궤에 비해 세로의 길이가 길어, 무려 86cm가 되는 것도 있다.

1) 왕실에서 자손을 출산하면 그 태를 항아리에 넣어 모셨는데 이 항아리를 '태옹' 또는 '태호'라고 부른다. 예로부터 태는 태아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이라 여겨, 함부로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보관하였다. 특히 왕실인 경우에는 국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여겨 더욱 귀하게 다루었다. 그림은,보물 1169호 백자 태호, 계미년의 명문이 있는 태지석과 함께 출토되었다. 왕실의 태를 보관하는 항아리이다. 호림박물관 소장.

- 우전석 : 8개, 길이 2척, 넓이 1척 3촌, 두께 1척 1촌
- 면적석 : 8개, 길이 2척 5촌, 넓이 1척 7촌, 두께 1척 1촌

* (1척은 1촌의 열 배) ※척尺(=자) : 30.3cm, 촌寸(=치) : 3.33cm



그림 16. 정종대왕 태실과 태실비

사진은 실제 정조의 태를 모셔 놓은 태실로, 정조가 태어난 다음 해인 1753년(영조29)에 강원도 영월읍 정양리 계족산에 처음 만들어졌다. 정조가 죽자 1800년(순조 1)에 가봉하고 태실비를 세웠다.

◎ 『영조대왕태실가봉의궤』

『영조대왕태실가봉의궤』는 충북 청원군에 있는 조선 영조(재위 1724~1776)의 태줄을 묻은 석실 즉 태실을 조성하는데 따른 경위와 과정, 의식절차 등 모든 관련사실을 적은 필사본이다.

조선시대에는 왕가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의 태실에 위용을 갖추기 위하여 일정한 의식과 절차에 따라 가운데의 받침돌 위에 둥근 기둥돌과 지붕돌을 얹어 태실을 만들고 주위에 호석으로 난간을 두르고 막음하였다.

의궤에 따르면 영조의 태줄은 숙종 20년(1694)에 일등태봉인 충청도 청주목 산내 일동면 무쌍리에 묘좌유향(卯坐西向)의 명당에 안치하였다가, 영조 5년(1729)에 예조의 건의로 태실을 석조물로 치장하였다. 이 의궤에는 이밖에도 날짜별로 자세한 조성경위를 적고 있고 관련인물과 지방별로 동원된 일꾼, 장인, 승군의 인원수와 쓰인 물자내역 또는 각종 석조물과 태실비의 형태 및 크



그림 17. 『영조대왕태실가봉의궤』

기, 세부내용까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우리나라 태실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³⁾.

기타 참고할 의궤로는 『원자아기씨장태의궤』, 『익종대왕태실가봉석난간조배의궤』가 있다.

2. 왕의 결혼_ 조선 왕실 혼례의 이모저모

◎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

1759년에 있었던 영조와 정순왕후의 결혼식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다. 왕과 왕세자의 결혼식인 가례가 있을 경우, 가례도감(嘉禮都監)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결혼식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한 의궤를 만들었다. 특히 이 의궤는 처음으로 2권의 책으로 만들어지고 혼인의식이 재정비 되면서 그에 따라 의궤의 내용도 한층 더 상세해지고 분량도 늘었다. 결혼행렬 반차도만 50쪽이 될 정도이다. 실제 영조가 정순왕후를 데려온 날은 1759년 6월22일이었는데, 이 반차도는 6월14일에 완성하여 미리 예행연습을 했다고 한다.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는 『國婚定例』와 『尙房定例』가 제정된 후 체제

3) 출처: 문화재청 <http://www.cha.go.kr>

와 형식을 갖추어 1책에서 2책으로 편찬된 최초의 가례도감의궤이며, 이러한 형식은 이후에 편찬되는 의궤에도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궤의 편찬 및 정리·수발과정, 보관처 등의 편찬과정을 통하여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부터 주제별 편집에 대한 체제가 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가례도감의궤 최초로 체제와 형식이 제대로 갖추어진 의궤라고 할 수 있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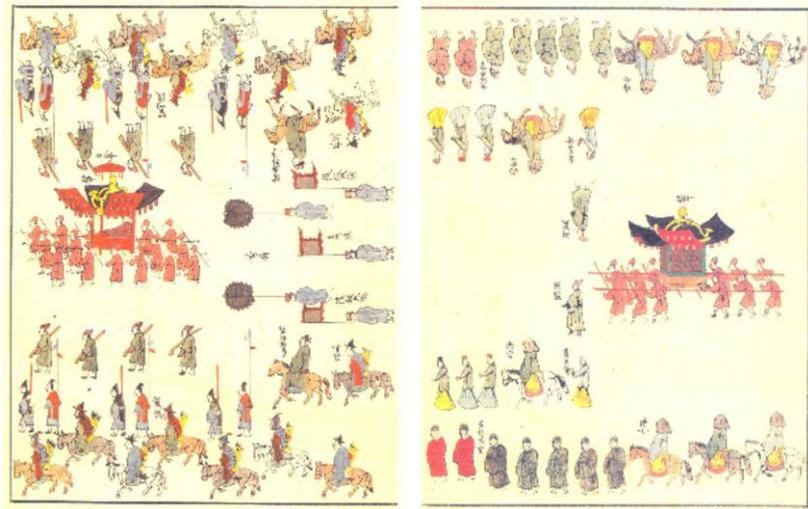


그림 18.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의 반차도 : 왕과 왕비의 가례행렬)



그림 19.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 반차도, 영조의 가마 부분

4) 崔恩榮, 指導教授 宋亮燮,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의 편찬과정과 기록학적 가치, 忠南大學校 大學院, 記錄保存學科記錄管理學專攻,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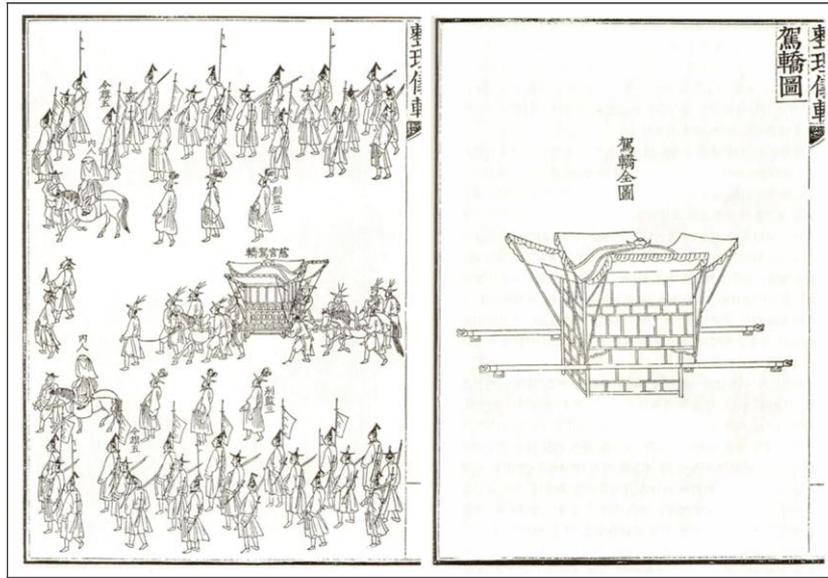


그림 20.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 반차도, 장순후의 가마행렬과 가교도 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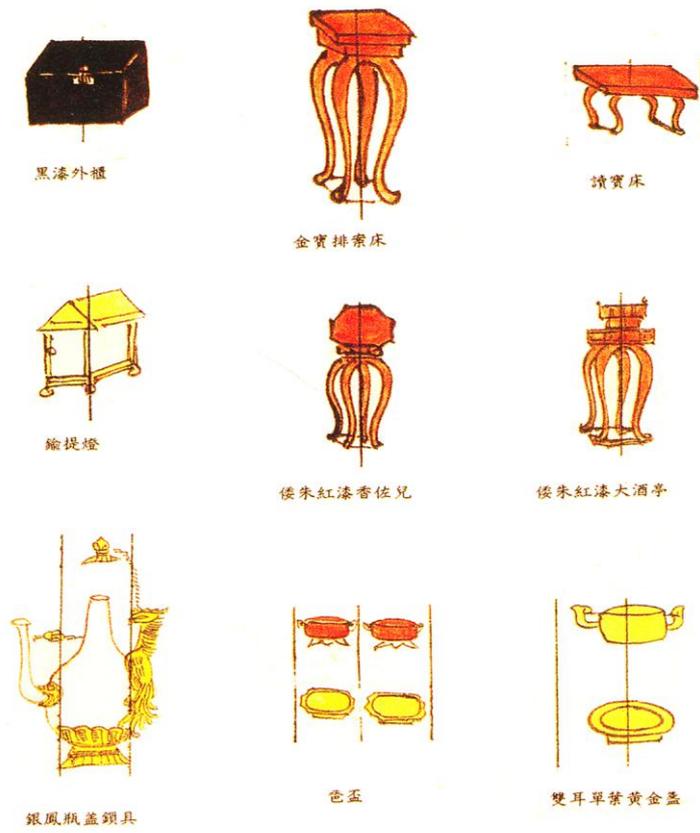


그림 21.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 에 수록된 기명도(부분).

왕의 가마는 사방을 열어 놓았다. 반차도에 나타는 행렬의 인물들은 좌측, 우측, 후면의 다양한 시점으로 그려져 입체감을 살려줌과 동시에 충실한 도상연습의 실용성까지 구현한다. 일반적으로 가례반차도(嘉禮班次圖)를 살펴보면 왕비 혹은 세자빈이 별궁으로부터 동뢰(同牢)연을 치르기 위해 대궐로 들어가는 장면이나 왕 혹은 왕세자가 신부를 맞이하는 친영의(親迎儀)를 마치고 동뢰연을 치르기 위해 대궐로 들어가는 장면의 두 종류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⁵⁾.

3. 왕의 제사_왕조의 통치 질서를 표현하는 제사⁶⁾

◎ 『종묘의궤』

종묘는 조선의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으로, 조선은 건국 초기에 개경에 있던 고려의 종묘 자리에 조선의 종묘를 세웠다가 1395년에 개성에서 서울로 도읍을 옮기면서 현재 자리(종로구 훈정동)에 종묘를 건설하였다. 태조가 서울을 도성(都城)을 건설하면서 종묘와 사직을 궁궐과 함께 제일 먼저 건설하게 한 사실은 종묘와 사직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잘 보여준다.

조선 초 태조가 사망한 후 종묘에는 별묘가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후대 왕들의 신주가 계속 추가되면서 별묘가 필요해졌다. 세종은 태조가 사망하자 별묘를 건설하였다. 이후 종묘에는 후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가 계속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본묘와 별묘의 건물이 계속 증축되었다. 또한 국왕이 사망한 이후 시호(詩號)나 존호(尊號)가 추가로 올려지면 종묘에 모신 신주나 책보(冊寶)도 바뀌었다. 이처럼 종묘의 증축이나 제도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종묘의궤』(宗廟儀軌)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 본이 전해진다.

의궤의 첫 부분인 「종묘영녕전전도」에서는 종묘의 본묘와 별묘의 전경과 부속 건물들의 위치를 알 수 있으며, 각종 진찬도(進饌圖)에서는 4계절과 납일(臘日:초하루)과 망일(望日:15일)에 지냈던 제사의 음식 배치를 알 수 있다. 또한 상세하고 묘사한 그림을 통해 제사를 올릴 때의 악기(樂器)와 익기 배치도, 일무(佾舞), 제기, 국왕과 왕세자의 복식, 악공(樂工)들의 복식 등을 알 수 있다.

<그림 22>를 보면, 오른쪽 면 중앙에 위치한 건물이 정전이며, 왼쪽면에 있는 것이 영녕전. 정전은 현 국왕으로부터 가까운 조상과 공적이 있는 국왕들의 신주를 모셨고, 영녕전은 본묘에서 옮겨진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올리는

5) 출처: e뮤지엄 http://www.emuseum.go.kr/relic.do?action=view_d&mcwebmno=10509

6) 김문식 외, 《조선 왕실 기록문화의 꽃 의궤》, 돌베개,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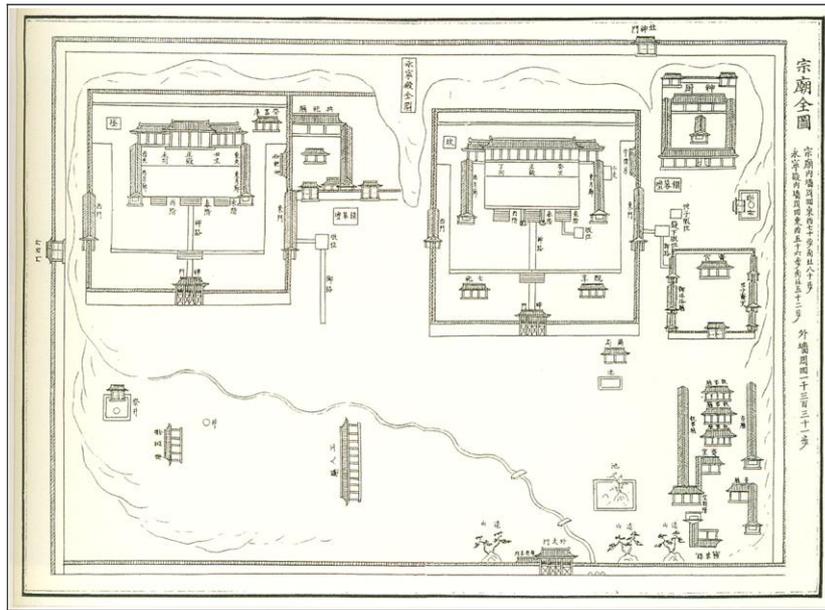


그림 22. 『종묘의례』에 수록된 종묘전도

곳이었다.

종묘의 창건과 증건에 관한 기록, 각 신실(神室)에 모신 신주의 기록, 국왕의 시호와 묘호에 관한 논의, 신주의 봉안과 이전(移轉) 사실, 존호의 추가, 국왕의 친제(親祭) 사실, 지례에 사용되는 악장, 제사 물품, 축문의 양식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 종묘를 수리한 사실이나 종묘의 물건을 도둑맞은 일, 종묘에 얽힌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종묘와 관련된 일화 중에는 세종대에 창덕궁과 수강궁(壽康宮)의 풍수지리상으로 종묘의 맥을 끊는 자리에 있어서 그 위치를 옮기자는 논의가 있었다는 내용도 있다. 또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종묘에 주둔했는데, 매일 밤 신병(神兵)이 나타나 북을 두드리며 공격을 하자 놀란 일본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많은 사망자가 나왔고 이 때문에 주둔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일화도 있다.

제례시의 복장의식을 보면, 국왕과 왕세의 복장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겹옷과 치마, 각종 장식에 들어가는 문양의 종류에서 차이가 난다. 국왕은 구장복(九章服), 왕세자는 칠장복(七章服)이다.

영녕전은 정종의 신주를 종묘에 모실 때 지은 별묘이다. 가운데 4간의 본전에는 추존 4왕과 왕비들의 신주를 모셨고, 나머지 협실에는 정전에 계속 모실 수 없는 신주들을 옮겨 와 모셨다.



그림 23. 『사직서의궐』에서 인용한 제례 시 국왕과 왕세자의 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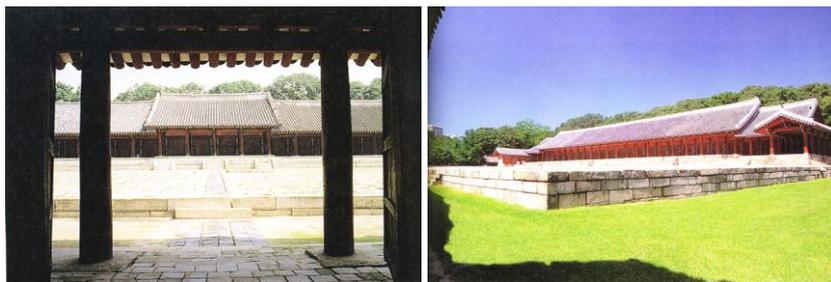


그림 24. 남문에서 바라본 영녕전과 종묘 정전

종묘정전은 당시 재위하던 왕의 4대조와 역대 왕 가운데 공덕이 있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하던 곳이다.



그림 25. 종묘의례 재현행사

4. 왕의 죽음_ 국왕의 장례에 관한 기록

◎ 『정조국장도감의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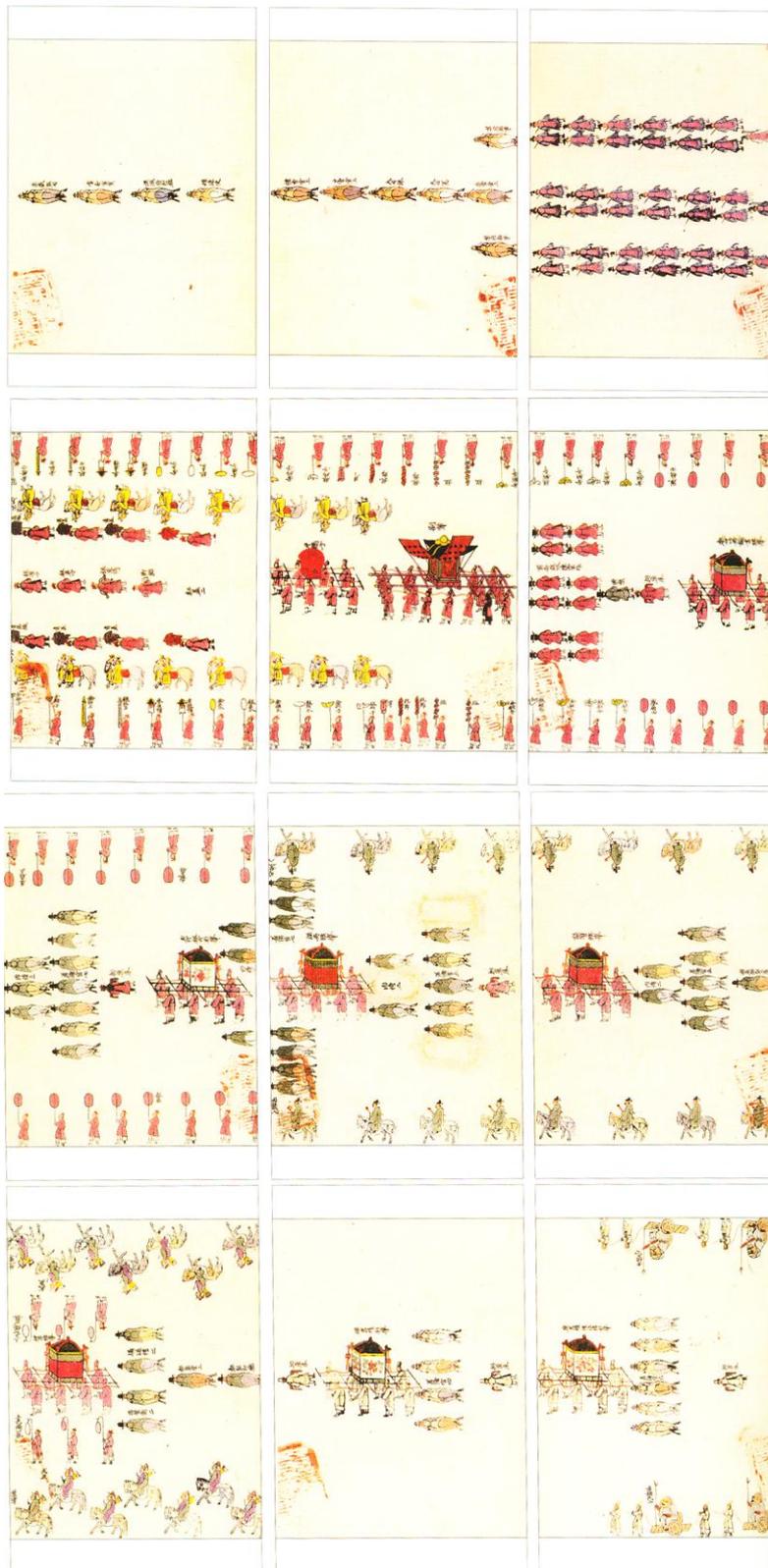
유학을 국가 이념으로 하는 조선시대에는 흉례, 즉 왕실의 상례를 오례의 하나로 정하여 왕도정치를 실천하는 방도로 삼았다.

왕이나 왕비가 사망했을 때는 <국장도감의궤>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는 장례 절차는 물론 장례에 쓰는 상여, 기물, 부장품 등 일체 물품이 그림으로 자세하게 그려져 함께 수록되었다.

국장도의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빈전 마련→ 성복(成服)→ 발안(發鞍)→ 하관(下官)→ 반우(返虞)→ 국장도감 해산의 순서로 진행된다.

『정조국장도감의궤』는 1800년 정조의 장례식 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표지의 제목은 『정종대왕국장도감의궤』이며 여기서 ‘정종대왕’은 정조를 가리킨다. 이해 6월28일 정조가 창경궁 영춘헌에서 승하하자 사망 당일에 국장도감이 설치되고, 7월3일 빈전을 마련하였다.

아래 <그림 26>은 『정조국장도감의궤』 중 반차도 부분이다. 국장행렬을 그



『정조국장도감의궤』 반차도의 앞부분(1열), 전부고취와 의장행렬부분(2열),
 옥인, 은인, 사책을 담은 가마와 방상시 행렬부분(3,4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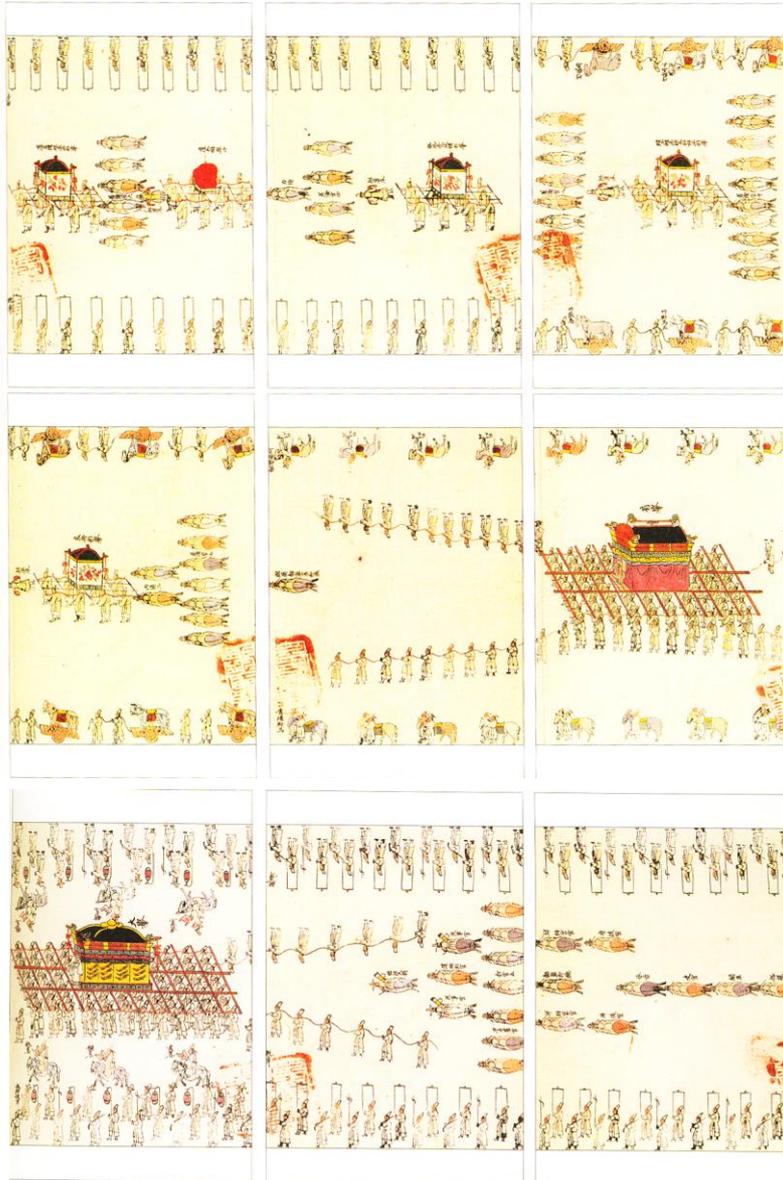


그림 26. 『정조국장도감의궤』에 수록된 반차도 중 부분
반차도 중 죽산마, 죽안마, 견여부분(1, 2열), 대여부분(3열)

린 반차도는 발인하기 열흘 전까지 완성되어야 했다. 발인은 엄숙하고 장중하게 치러야하므로 반차도를 통해 미리 연습하고 행렬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숙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정조의 국장 행렬을 그린 반차도는 총 40면에 1,440명의 인원이 그려져 있다. 맨 앞에는 경기감사가 행렬을 인도하며 뒤에는 국장도감 집행부가 따른다. 뒤로는 선상군(先廂軍) 400명이 정복을 착용하고 따른다(〈78쪽 그림의 1

열)). 다음으로는 의장이 집중 배치되며 악대가 따른다. 연주는 하지 않는데, 삼년상이 끝날 때까지 대사(大祀) 이외에는 음악을 연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78쪽 그림의 2열〉).

그 뒤에는 제기가 있고 양편에는 양산 및 의장물이 줄지어 있다(〈78쪽 그림의 3열〉). 그 뒤에는 옥인, 은인, 시책 등을 담은 가마가 따라간다(〈78쪽 그림의 4열〉).

의장물과 악대, 장례에 사용되는 집기를 싣는 가마가 지나가며 방상시가 따른다(〈79쪽 그림의 1열〉). 죽산마, 죽안마를 싣은 수레가 지나가고 견여(肩輿)가 나온다(〈79쪽 그림의 2열〉). 그 뒤로는 명정(銘旌)을 앞세워 대여(大輿)가 따르며 군사들이 호위하고 있다(〈79쪽 그림의 3열〉). 후미에는 궁녀, 관리, 후상군(後廂軍)이 지나가며 대미를 장식한다.

5. 왕의 행차_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간의 장대한 역사

◎ 「원행을묘정리의궤」

임시기구인 정리소(整理所)⁷⁾를 설치하여 준비하였기 때문에 정리의궤라고도 부른다. 8책 635장 1,270쪽으로 제작되었다. 1795년(정조 19)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을 모시고 장헌세자의 무덤인 현릉원(顯隆園: 莊祖陵)에 행차한 뒤 정리의궤청(廳)을 설치하여 편찬 간행하도록 하였다. 당시 정조는 화성에서 어머니의 회갑연을 열어 주민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내용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또한 행차를 위해 한강에 설치한 배다리[舟橋](〈그림 27〉) 건설, 화성에서 거행한 문무과 별시 등 모든 내용이 그림과 함께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권수 1권, 본문 5권, 부편 4권으로 되어 있으며, 권수에는 택일(擇日)·좌목(座目)·도설(圖說) 등이 실려 있다. 부편에는 탄신경하(誕辰慶賀)·경모궁전배(景慕宮展拜)·영흥본궁제향(永興本宮?享)·온궁기적(溫宮紀蹟) 등을 수록하였다.

이 밖에 자경전(慈慶殿)·진작정례의궤(進爵整禮儀軌) 2책이 붙어 있다. 의궤로서는 처음으로 인쇄 간행된 것이며, 인쇄하기 위하여 생생자(生生字)를 자본(字本)으로 하여 동활자를 주조하였다. 정조는 화성행차 장면을 별도 능행

7) 정리소는 장차 1795년 을묘원행에서 펼쳐질 각종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1794년 12월에 설치한 임시 기관이었는데, 화성 성역이 끝난 후 '외정리소'라 하여 정조를 비롯한 역대 임금의 행차할 때 화성 궁행에서의 행사 준비를 담당하는 관청이 됨.

도병풍(陵幸圖屏風)으로 제작하여 궁중에 보관하였으며 공을 쌓은 신하들에게도 하사하였다.

● <화성행행도병풍(華城行幸圖屏風)>

정조 19년(1795)은 정조의 부모인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가 회갑이 되는 해로, 이해 2월에 정조는 혜경궁 홍씨와 함께 화성에 있는 사도세자의 묘소인 현릉원에 행차하여 성묘를 하고, 화성행궁(華城行宮)에서 혜경궁께 진찬례를 올렸다. 이 병풍은 이때 거행된 행사들 중에서 중요한 장면을 뽑아 8쪽으로 나누어 그린 것이다.

각 쪽을 병풍의 오른쪽부터 살펴보면 화성성묘전배도(華城聖廟展拜圖), 낙남현방방도(洛南軒放榜圖), 봉수당진찬도(奉壽堂進饌圖), 낙남현양로연도(洛南軒養老宴圖), 서장대야조도(西將臺夜操圖), 득중정어사도(得中亭御射圖), 환어행렬도(還御行列圖), 한강주교환어도(漢江舟橋還御圖)의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순서는 당시 행사가 진행된 일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 의궤는 전체적으로 웅장한 화면 구성과 정교한 세부 묘사도 훌륭하지만, 온화하고 안정감 있는 색채를 사용하여 궁중행사도의 품위를 더하고 있다.

● <정조대왕 원행반차도>

<정조대왕 원행반차도>는 이 의궤에 판각화로 삼입되어 있는 기록화다. 목판 인쇄본에는 채색을 하지 않았으나 실제의 행렬 모습을 측면에서 재현하여 각 인물의 표정과 동작 등에 변화를 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섬세한 표현은 자칫 형식적이고 딱딱해지기 쉬운 기록화에 자유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

<정조대왕 원행반차도>가 흑백으로 된 목판본이라면, <화성원행반차도>는 한지에 천연색 물감으로 채색하여 그린 1폭짜리 두루마리 그림이다(규장각 소장). 두 그림 모두 행차의 순서를 그린 반차도이기 때문에 구성이나 배치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 두루마리 그림은 실제 원행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도상을 통해 미리 행렬 연습하기 위한 일종의 그림 교본이었다. 따라서 표현 방법에서도 배열의 순서와 위치를 정확하게 고지하기 위해서 뒤에서 본 시점(부분적으로 측면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세로방향에 맞추어져 있다)으로 각 요소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전체 행렬을 보여주고 있다.

한강을 건너는 데는 배를 타고 건너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지만 때에 따라서는 배다리를 놓는 경우가 있었다. 화성으로 헤이차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한강을 건너는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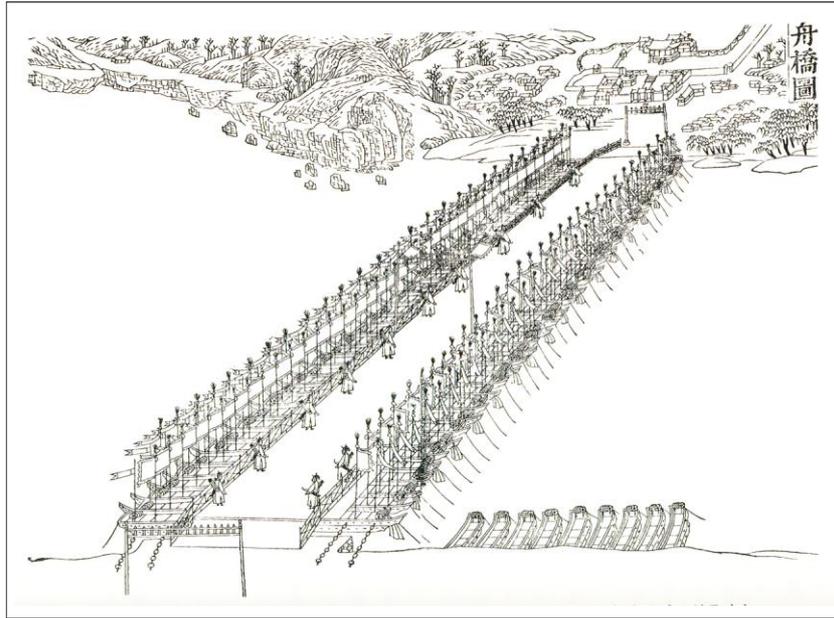


그림 27. 『원행을묘정리의계』에 수록된 한강 주교도

한강을 최소의 비용으로 안전하게 건어기 위해서는 배다리를 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 처음에는 20일 정도 예상했으나 불과 11일 만에 배다리가 건설되었다. 정조가 지시한 대로 기술을 크게 보완하고 치밀하게 준비한 덕분이었다. 한강에 최소의 물자로 단 기간에 배다리가 건설된 것은 이때가 처음으로, 이는 조선시대의 다리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자, 우리 과학기술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사건이었다(〈그림 27〉).

위의 그림에서 아래쪽이 용산, 위쪽이 노량진이다. 휴식처인 용양봉저정이 보인다. 종전에는 400여 척의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는 것이 행차의 관례였으나 여기에 동원되는 민간배들의 피해가 커서 새로이 배다리를 창안하게 된 것이고, 48척의 배다리를 연결하여 만든 것을 알 수 있다⁸⁾.

오방색 깃발이 나부끼는 배다리 위로 1700여명의 행렬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 모습을 상상하면 장관이 아닐 수 없다.

〈봉수당진찬도〉는 혜경궁 홍씨의 회갑잔치 때 헌선도를 비롯한 여러 정재가 이곳에서 공연을 볼 수 있다. 봉수당은 혜경궁의 장수를 기원하는 뜻을 담은 행궁의 본당이였다.

아래 그림은 채색이 되어있는 봉수당에서의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다.

8) 한영우, 《조선왕조 의례》, 일지사,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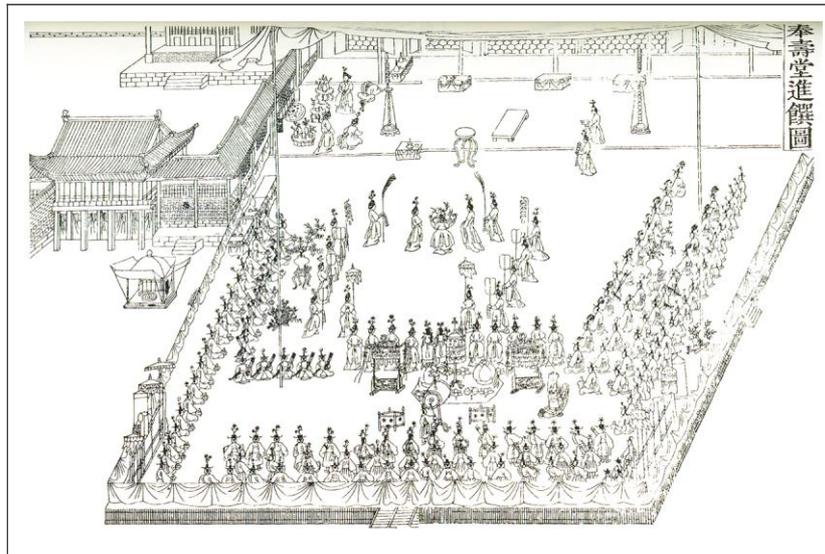


그림 28. 『원행음묘정리의궤』에 수록된 봉수당진찬도



그림 29. <화성능행도>에 있는 봉수당에서의 혜경궁홍씨의 회감연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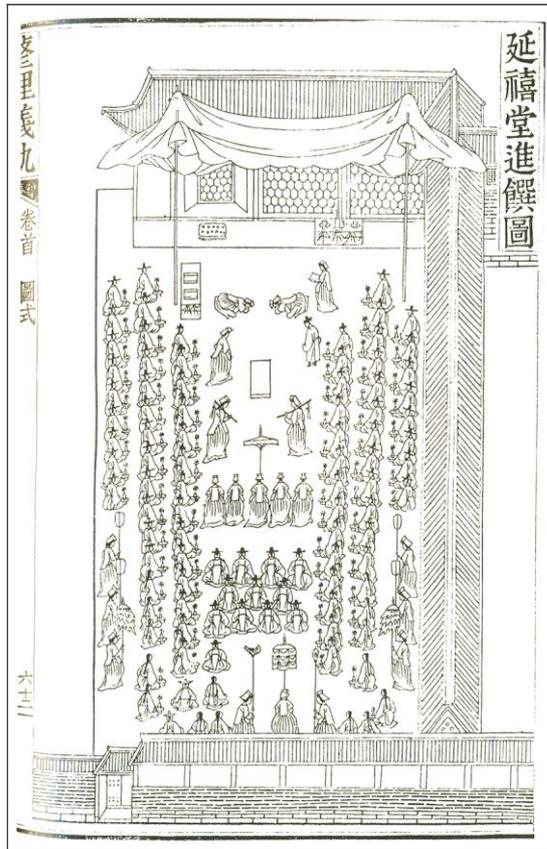


그림 30. 『원행음묘정리의궤』에 수록된 창경궁 연희당 진찬도

정조 19년 (1795) 6월에 창경궁 연희당에서 혜경궁 회감잔치를 다시 열었다.



그림 31. 『원행음묘정리의궤』에 수록된 신평루사미도

정조가 행궁의 정문인 신평루에 앉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죽을 먹였다. 정조는 죽이 차지 않을까 염려하여 직접 맛을 보고 나누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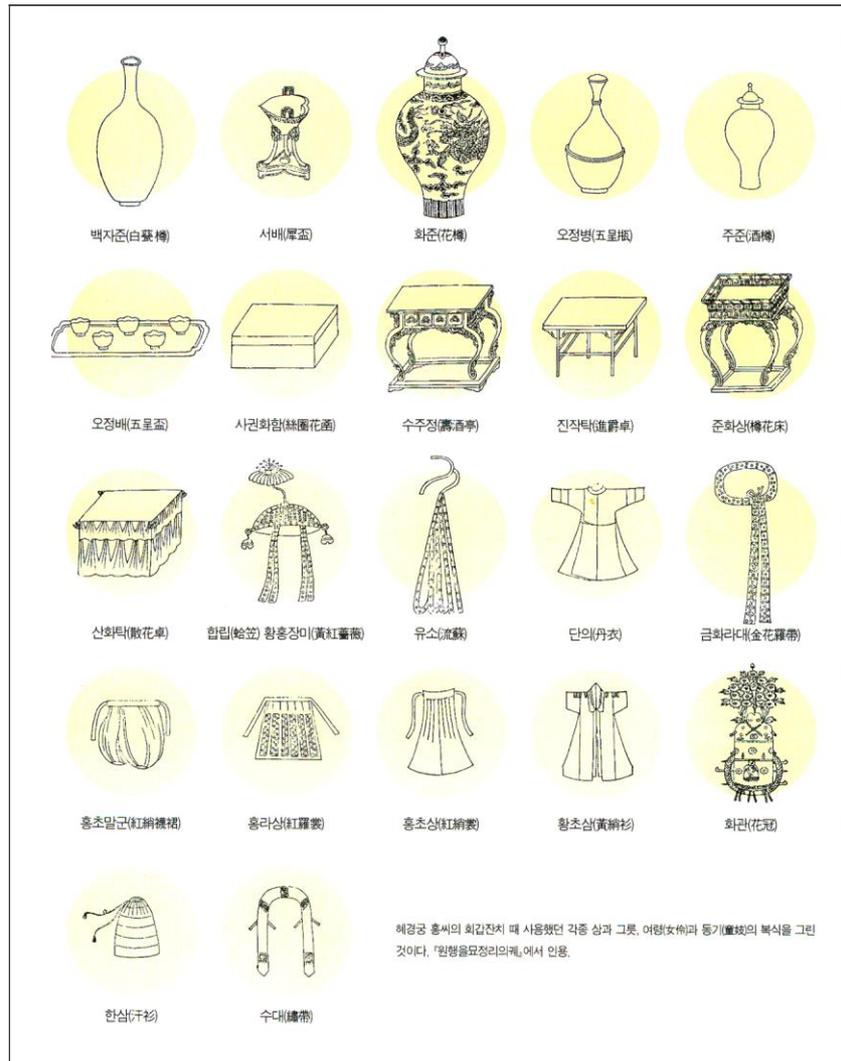


그림 32. 『원행음묘정리의례』에 수록된 기물과 복식

해경궁 홍씨의 화갑잔치 때 사용했던 각종 상과 그릇, 여령(女伶)과 동기(童伎)의 복식을 그린 것이다.

〈그림 33, 34〉은 해경궁 홍씨가 탔던 가마의 가교도이다. 이 가마를 만드는데 2,785냥의 비용을 들였고, 29종의 장인 약 12명이 참여했을 정도로 정조는 가마의 제작에 특별한 정성을 기울였다. 가마의 길이는 5척 4촌, 너비는 3척 5촌으로 가마의 양 끝을 말의 안장에 연결하여 두 마리의 말이 앞뒤에서 끌도록 하였다. 가교란 말이 끄는 가마를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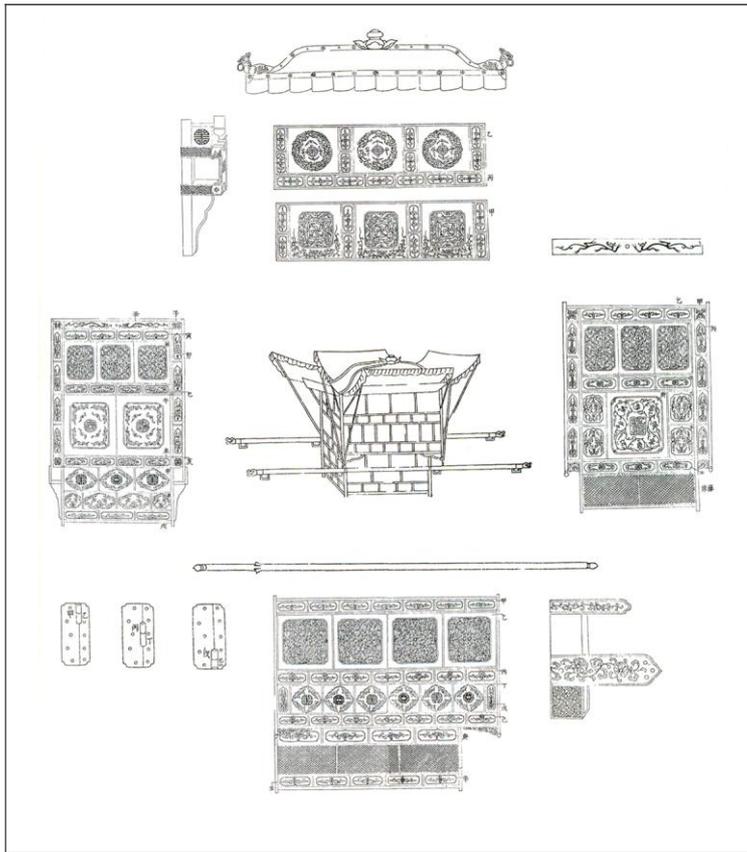


그림 33. 혜경궁 홍씨가 탔던 가마의 부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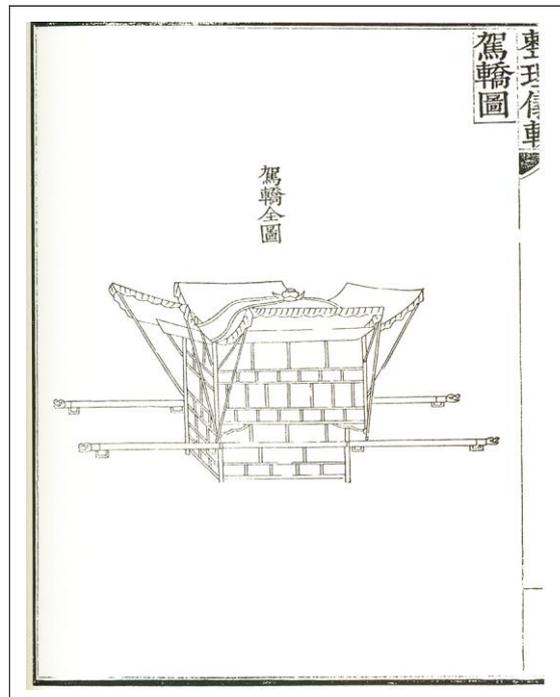


그림 34. 혜경궁 홍씨의 가교도



그림 35. 『원행을묘정리의례』에 수록된 반차도 63쪽 중 제33쪽 (혜경궁 흥씨가 탄 가교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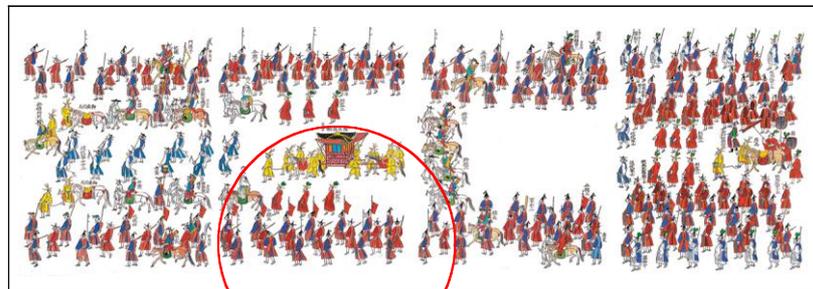


그림 36. 『원행을묘정리의례』의 반차도



그림 37. 『원행을묘정리의궤』를 인용한 혜경궁 홍씨
진찬연 재연행사

2장. 왕실문화의 기록, 의궤

1. 왕의 건축_ 조선왕조 문화절정기의 대역사

◎ 『화성성역의궤』

1795년(정조 19) 윤2월에 정조(正祖)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기념하여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에 행차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사도세자의 묘 현릉원(顯隆園)은 화성(지금의 수원)에 있었다. 한강을 건널 때는 배다리[舟橋]를 이용하였고, 화성에 도착해서는 회갑연을 비롯한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이것 외에도 화성 능행 장면을 8폭의 병풍으로 제작한 화성능행도병(華城陵幸圖屏)도 함께 소장되어 있다. 화성능행도병의 유물 번호는 <덕수1042>이다. 한편 이 때의 능행 전과정을 글과 그림으로 그린 목판본 책자인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義軌)』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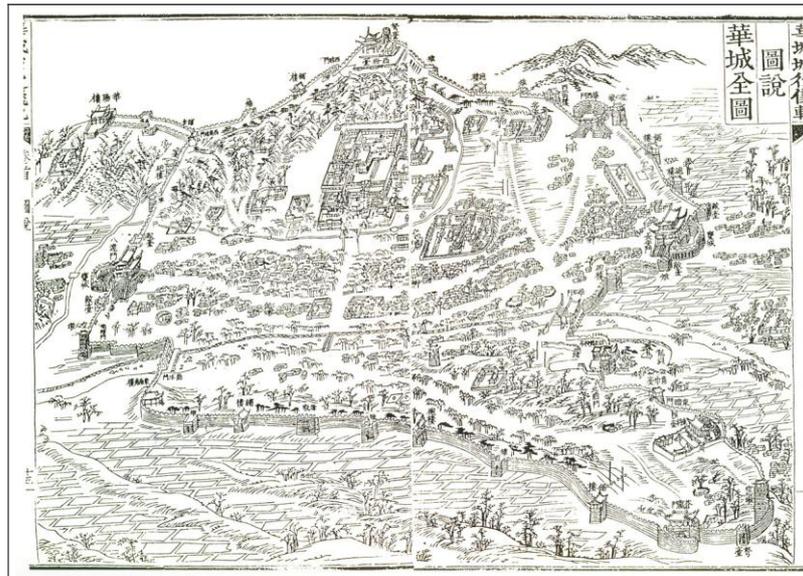


그림 38. 『화성성역의궤』에 수록된 화성전도

그림에서 오른쪽(북쪽)에 장안문, 왼편(남쪽)에 팔달문, 아래(동쪽)에 창룡문, 위쪽(서쪽)에 화서문이 보이며 맨위 팔달산 꼭대기에 서장대, 서장대 아래에 화성행궁이 보인다. 창룡문 쪽은 원래 그곳에 있던 민가를 성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길쭉하게 늘어났다⁹⁾.

9) 한영우, 조선왕조 의궤, 일지사, 2005

화성은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조선 후기의 읍성이다. 정조가 그의 아버지 장헌세자의 원(園)을 양주에서 수원으로 옮기면서 수원의 읍치도 화성 태안에서 수원 화산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 때 정조는 수원부를 화성이라 개칭하고 1794년 2월 영종추부사 채제공(蔡濟恭)의 주관하에 성역을 시작하여 1796년 9월에 완공하였다. 둘레는 5,520m로 서쪽으로 팔달산을 끼고 동쪽으로는 평지에 축성되었다. 부속시설로는 창룡문(蒼龍門)·화서문(華西門)·팔달문(八達門)·장안문(長安門)의 사대문을 비롯하여 암문(暗門)·수문(水門)·적대(敵臺)·공심돈(空心墩)·봉돈(烽墩)·포루(砲樓)·장대(將臺)·각루(角樓)·포사(鋪舍)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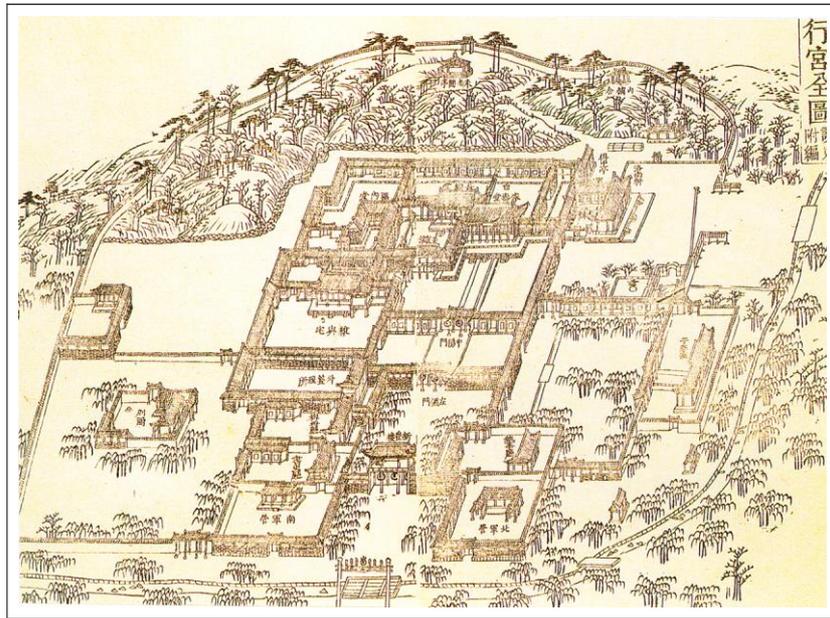


그림 39. 『화성성역의궤』에 수록된 화성행궁전도 도설

<그림 39>에는 정문인 신평루를 비롯하여 봉수당, 유여택, 낙남헌 등의 모습이 보인다. 행궁전도는 화성 행궁의 복원에 큰 도움이 되었다.

수원성의 축조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던 전통적인 축성방식에 정약용, 유흥원 등의 과학적 지식이 활용되어 중국성제의 장점이 더해졌다. 성벽은 돌과 모래로 기초를 다지고 배흘림으로 성벽을 쌓아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읍성이지만 방어력을 강화하여 공심돈을 설치하여 적의 침입을 막게 하였다. 녹로와 거중기 등 과학기기를 활용하였다.

화성 건축 시 무거운 건물을 이동할 때 사용한 거중기는 화성 건설을 위해 정약용이 개발하였다(<그림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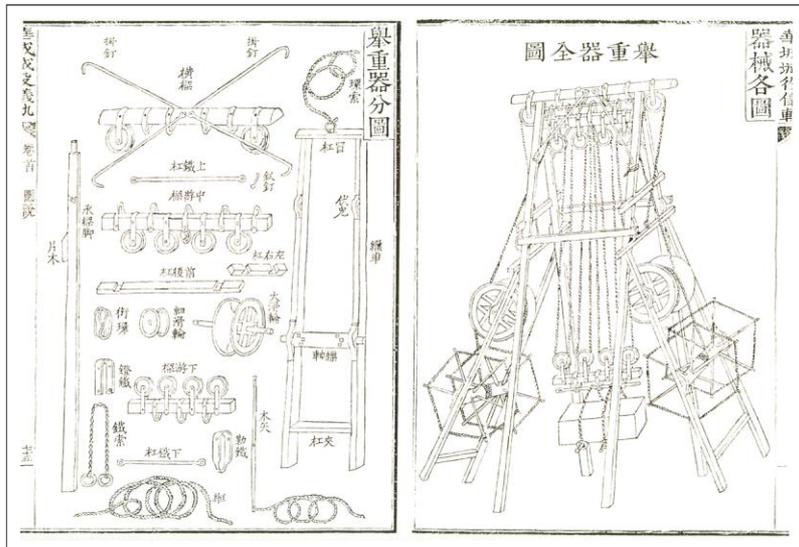


그림 40. 『화성성역의궤』에 수록된 거중기 분해도 및 거중기 도설

특히 1801년 간행된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義軌)』는 이후 1975년 시작된 화성 복원공사에 많은 기여를 했음은 물론이요, 당시의 실정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화성성역의궤에 의하면, 성을 쌓는 기술자가 1만 1,820명, 석재는 18만7,600개, 벽돌 69만5,000개, 쌀6,200석, 콩 4,550석, 기타 잡곡 1,050석, 목재 2만6,200주, 철물 55만9,000근, 철엽2,900근, 솥 6만9,000석, 기와류 53만장, 석회 8만6,000석이 소요되는 등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높게 솟은 팔달산 아래로 화성과 성안의 읍치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으로 현대에 그려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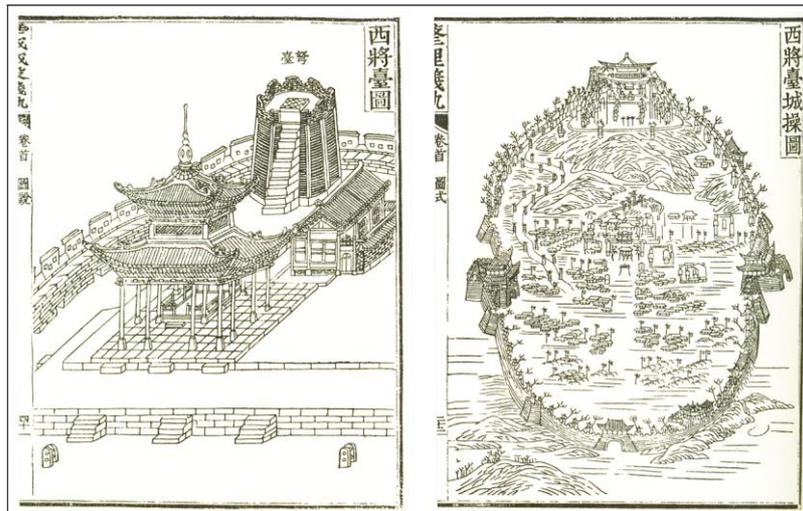


그림 41. 『화성성역의궤』에 수록된 서장대도와 서장대성조도 도설

1795년 화성에 행차한 정조는 서장대에 올라 군사 훈련을 총지휘하였고, 주간에 시작한 훈련은 야간까지 계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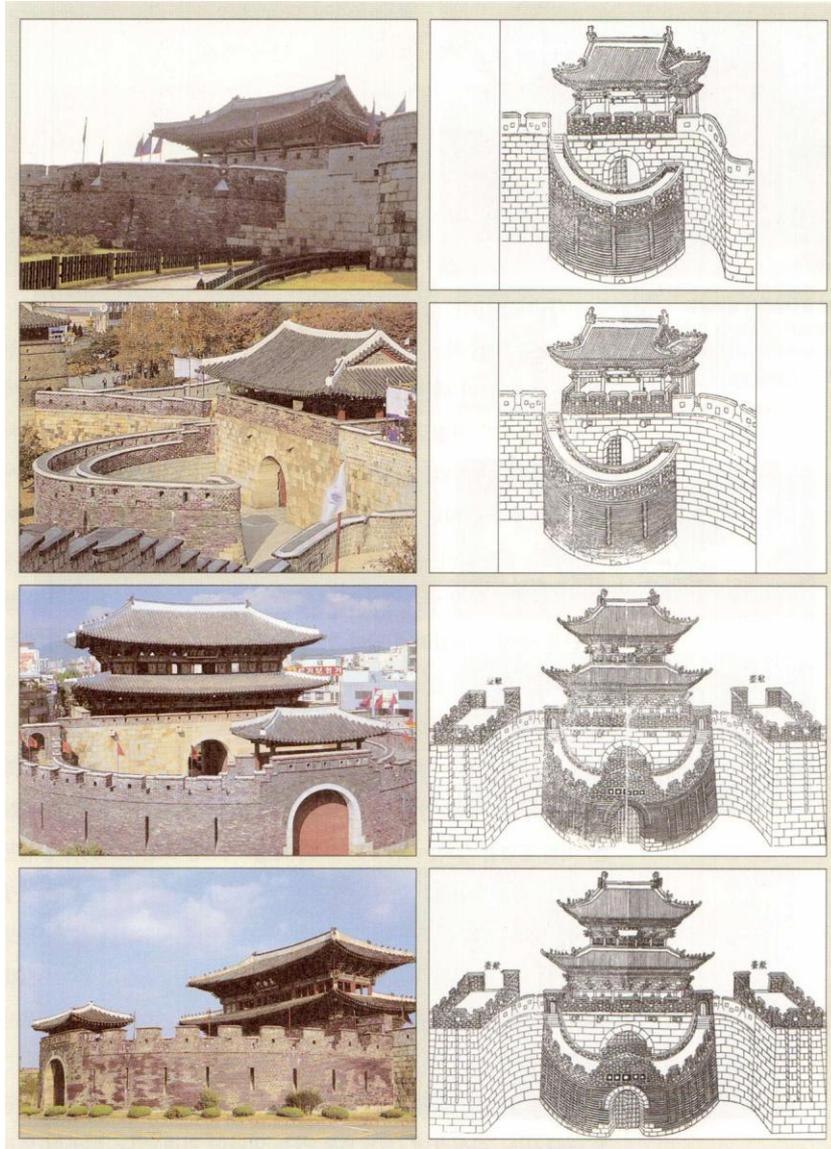


그림 42. 『화성성역의궤』에 인용한 4대문 도설과 현대의 사진.

그림에서 위로부터 창룡문(동문), 화서문(서문), 팔달문(남문), 장안문(북문)을 나타낸다. 화성의 4대문은 모두 방어의 편의를 위해 반달 모양의 용성(甕城)을 가지고 있다. 서울에서 화성을 갈 때는 북문인 장안문을 거쳐서 성안으로 들어가며, 남문인 팔달문을 통해서 경기 남부 지역으로 통하게 된다.

2. 왕의 활쏘기_ 국왕과 신하가 함께하는 활쏘기

◎ 『대사례의궤』

대사례는 왕이 여는 활쏘기 행사며, 활쏘기는 정신 집중과 팔의 힘을 기르기에 알맞아 왕이 즐겨하는 하는 것으로, 신하들이 모처럼 모려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자리였다. 또한 왕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의 질서를 보여주고 왕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강조하기에 효과적인 행사였다. 왕과 신하가 활을 쏘는 장면, 상과 벌을 주는 장면, 실제 성적표 등이 그림에 순서대로 자세히 실려 있다. 조선시대에는 모두 네 차례의 대사례가 있었다. 그중에 의궤를 만든 것은 영조 뿐이다(174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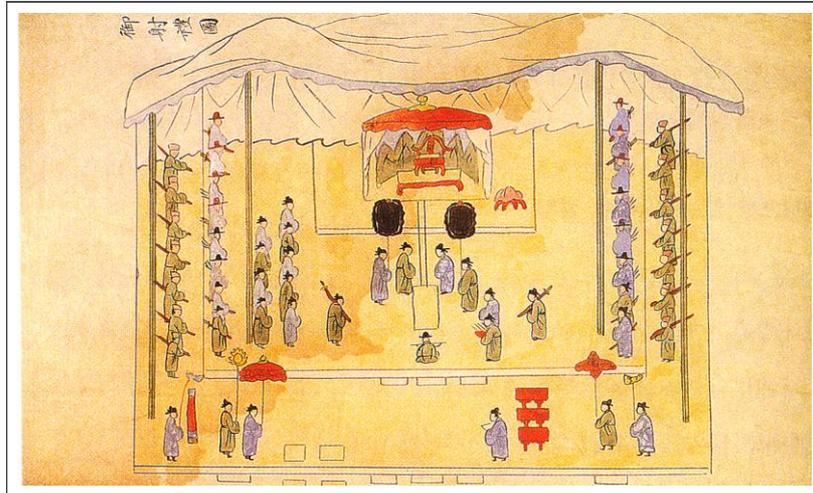


그림 43. 『대사례의궤』에 수록된 어사례도. 임금의 활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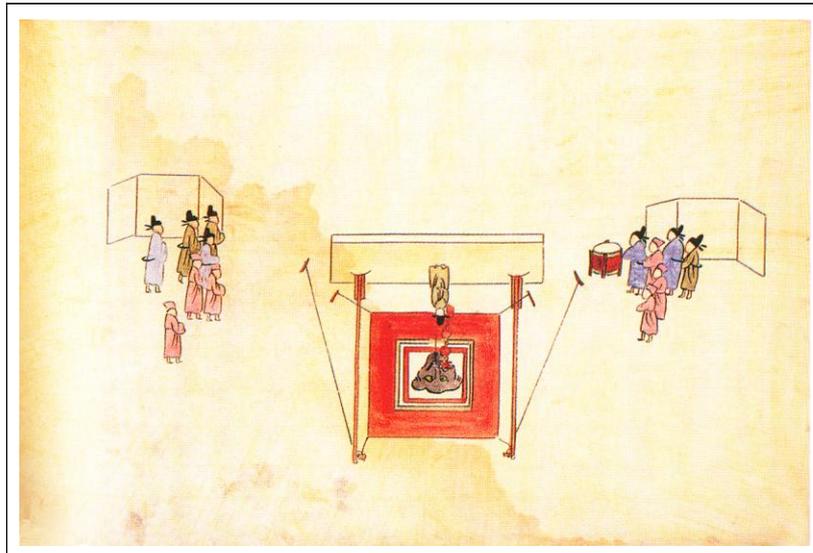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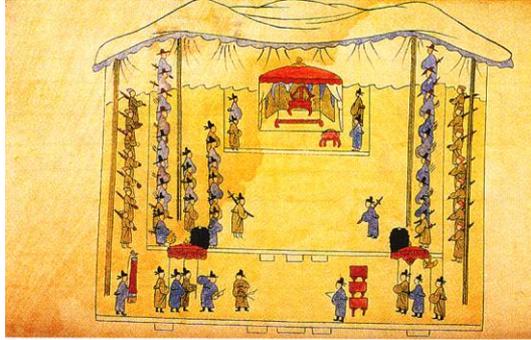


그림 44. 『대사례의궤』에 수록된 어사례도 중 일부.

그림 중앙의 과녁을 ‘웅후’ 라고 하는 데, 왕의 활쏘기에 쓰였다. 웅후(雄侯)는 붉은 바탕의 곰의 머리를 그렸으며, 당시의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과녁을 삼은 것이다.

대사례 절차를 『대사례의궤』의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그림은 왕과 함께 활쏘기에 참여한 사람이 두 명씩 짝을 지어 활쏘는 모습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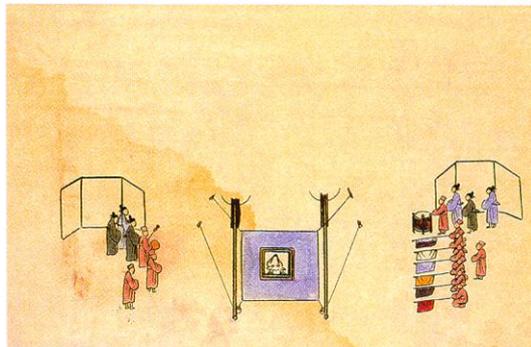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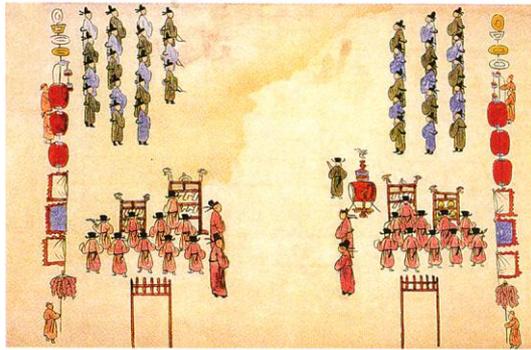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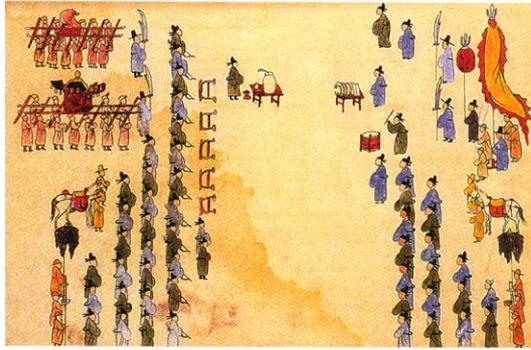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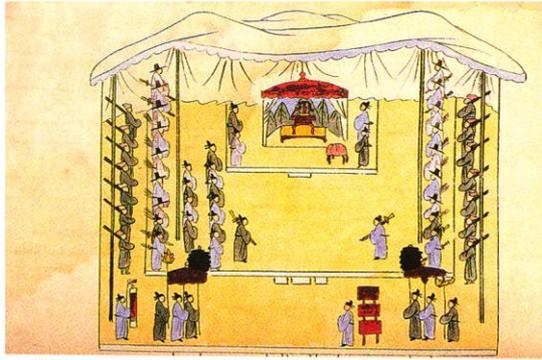


그림 45. 『대사례의궤』에 수록된 시사례도



활쏘기를 마친 후 시상
하고 별주를 주는 장면
이다. 화살을 적중시킨
사람은 표리(表裏:겉옷감
과 속옷감)과 궁시(弓矢:
활과 화살)을 상으로 받
았으며, 맞이지 못한 사
람은 별주를 마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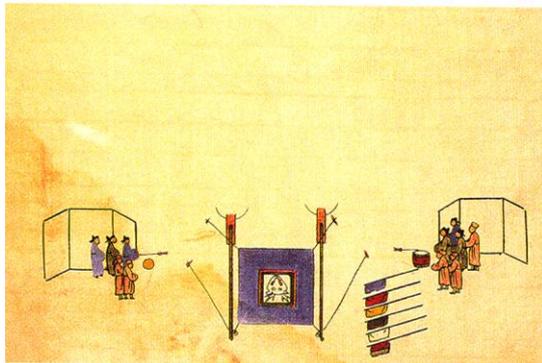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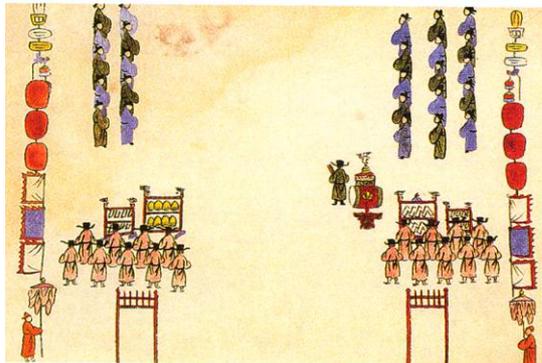


그림 46. 『대사례의례』에 수록된 시사관상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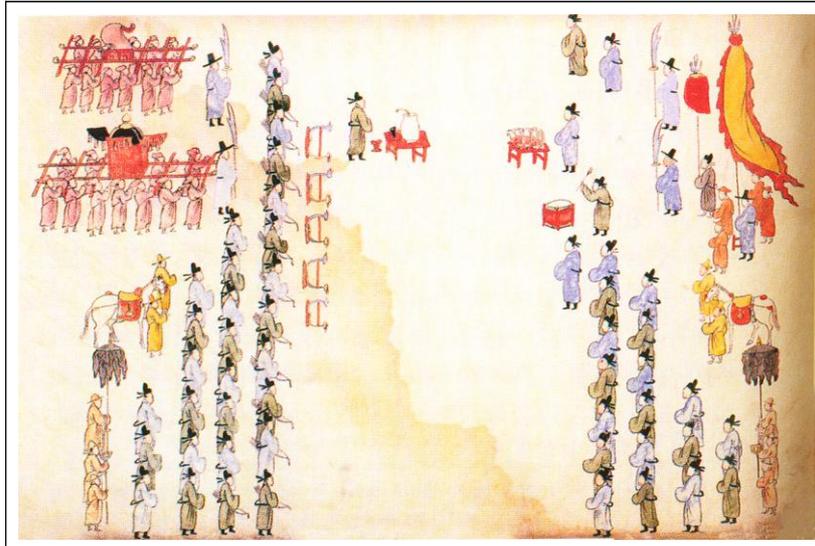


그림 47. 『대사례의례』에 수록된 어사례도. 어가와 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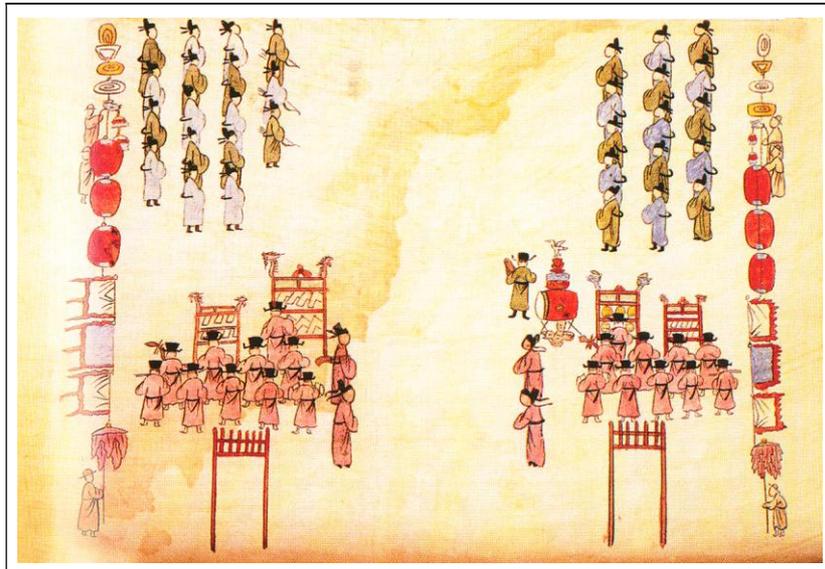


그림 48. 『대사례의례』에 수록된 어사례도.

악대. 동쪽 뿔(乏) 앞에는 북을, 서쪽 뿔 앞에는 금(金)을 두고, 화살이 적중하면 북을 치고 그렇지 못하면 금을 쳤다.

● **대사례 의궤의 스포츠 기록사적 의미**¹⁰⁾

대사례 의궤의 스포츠 기록사적 의미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사례 의궤는 스포츠 이벤트를 다룬 최초의 기록이며, 종합적인 행사 결과보고서로서 스포츠 행정, 운영 그리고 경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

10) 천호준, <대사례 의궤의 스포츠 기록사적 의미>, 체육사학회지 제15호, 2010

다.

둘째, 대사례 의궤는 국가적 차원에서 낭비를 방지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도모 하려는 목적에서 편찬되었다. 이러한 편찬 배경은 현재 다수의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고 또는 개최할 예정인 국내의 상황에서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고 있다.

셋째, 대사례 의궤의 기록화(documentation) 과정 그리고 보존 및 활용에 걸친 사례는 현재의 체육스포츠 분야에서 스포츠 이벤트의 기록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과 방법 마련에 좋은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넷째, 대사례 의궤의 체계적인 정리와 과학적인 관리 방식은 체육스포츠 분야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주고 있으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 마련에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3. 궁중잔치의궤_ 궁중잔치의 화려한 멋

『진연의궤』(進宴儀軌), 『진찬의궤』(進饌儀軌), 『진작의궤』(進爵儀軌) 등은 궁중잔치의 규모와 내용을 보여주는 의궤들이다. 『진연의궤』는 조선시대에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궁중에서 베푸는 잔치의 내용을, 『진찬의궤』는 왕·왕비·왕대비 등의 기념일을 맞이하여 음식물을 올린 의식을 기록한 의식, 『진작의궤』는 왕·왕비·왕대비 등에 대해서 작위를 높일 때 행한 의식을 기록한 의궤이다.



그림 49. <기축진찬도(己丑進饌圖)>, 1892, 견본채색, 8폭, 호암미술관

순조의 사순(四旬)과 즉위 3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창경궁에서 거행된 진찬을 기념하여 만든 병풍이다. 병풍의 오른쪽은 2월 9일 왕과 대신들이 명정전에 모여 잔치를 하는 모습이고, 왼쪽은 2월 12일 자경전에서 왕비를 비롯한 여성들이 참석하여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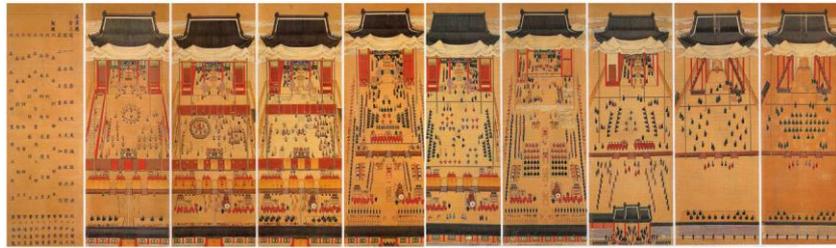


그림 50. <임인진연도(壬寅進宴圖)>, 1902, 견본채색, 10폭, 국립국악원

<그림 50>은 고종의 망륙(51세)이 되는 해로 숙종과 영조의 뒤를 이어 기로소에 들어간 해를 기념한 <진연의궤>로 대한제국에 들어 세 번째 궁중연회가 거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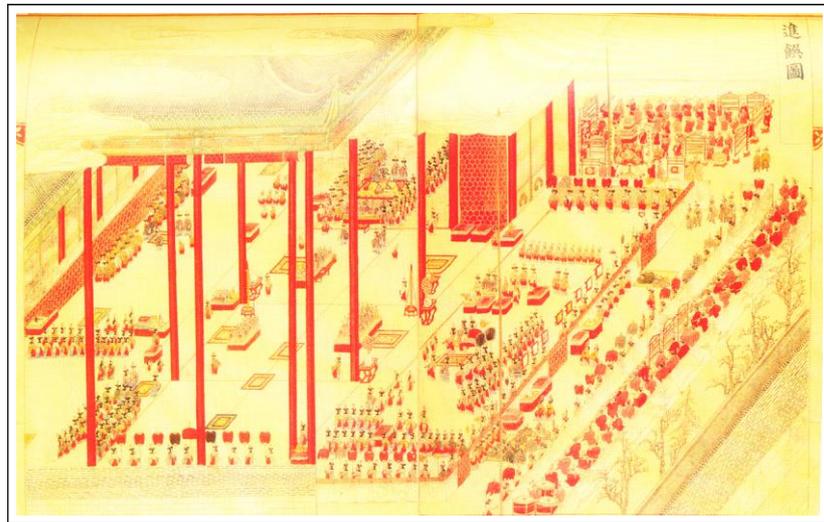


그림 51. 『기사진표리진찬의궤』 창경궁 경춘전 진찬도

<그림51>의 『기사진표리진찬의궤』는 창경궁이 혜경궁이 정조를 출산한 집이기도 하여 여성의 잔치로 남자 악공들이 장막 뒤에서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궁중잔치의 모습을 정리한 의궤는 잔치에 올린 음식물을 비롯하여 필수적으로 따랐던 궁중음악과 궁중무용, 각 무용을 공연한 기생들의 복장과 명단, 왕실에 바쳐진 꽃 등 조선시대 궁중 의식의 면모를 보여주는 생생한 자료들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잔치 때의 참여자들의 위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려놓은 반차도와 궁중무용의 구체적인 모습, 연주된 악기와 복식, 그릇과 상위에 올려진 꽃 등은 잔치 관련 의궤가 아니면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귀중한 자료들이다.

◎ 『헌종무신진찬의궤』

『헌종무신진찬의궤』는 1848년(헌종 14) 3월에 창경구의 통명전에서 순원왕후의 육순을 경축하여 베푼 연향에 대한 기록이다.

잔치의 관한 의궤는 정조대의 효를 근본으로 한 『원행을묘정리의궤』 조선 후기 궁중연향의 규범이 되어 의궤의 기록은 그 이후(1795년), 활자로 간행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 의궤는 악기편성을 그림으로 설명한 반차도를 비롯하여 각종 정제 등을 흑백그림으로 설명한 많은 도설이 실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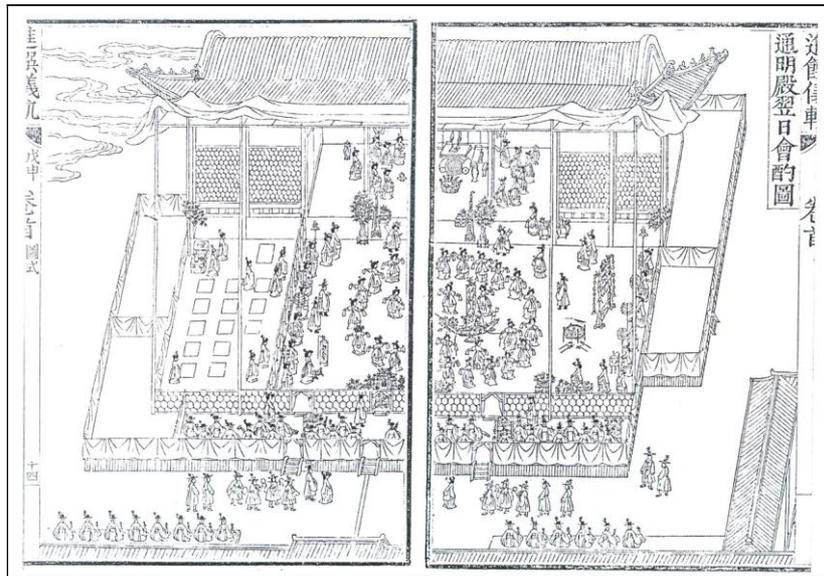


그림 52. 『헌종무신진찬의궤』에 수록된 통명전의일회작도

● 진찬연의 무용

무신진찬에 공연된 정제도 포구락은 기녀들이 좌우로 편을 갈라 포구문에 서서 채구(彩毬)를 던져 넣는 놀이 형식의 무악(舞樂)이며 무고는 동명의 북을 두드리면서 추는 춤이다(〈그림 53〉).

● 조선왕조 궁중연향에 사용된 수파련

수파련은 상화(床花)에 해당하는 꽃으로서, 연회가 있을 때에 찬안(饌案)이나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상에 꽃을 꽂아 화려하게 장식한다. 지위가 높을수록 수가 많고 아름다운 큰 꽃이 올려졌다¹²⁾(〈그림 54〉).

11) 전통예술원, 〈국역 헌종무신진찬의궤〉, 민속원, 2004

12) 정혜승, 〈조선후기궁중연향도의 의궤 분석〉,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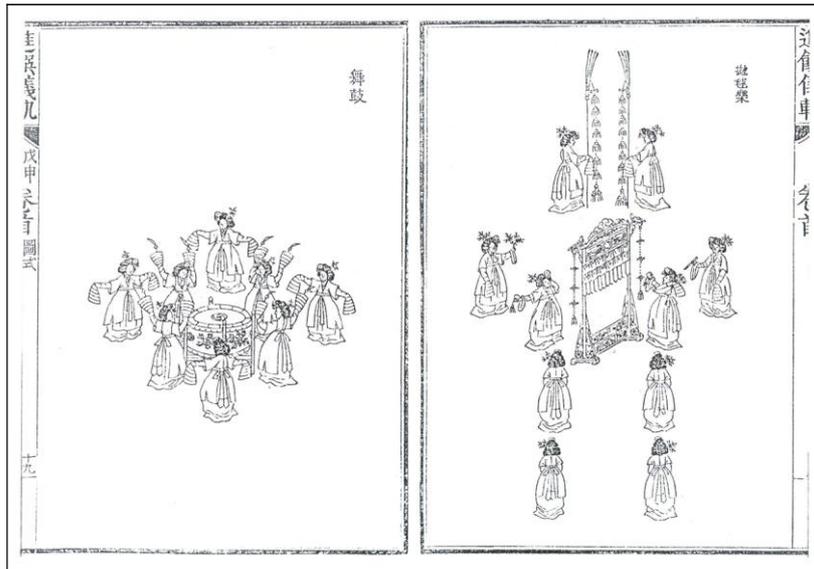


그림 53. 『헌종무신진찬의례』에 수록된 무교(좌), 포구락(우)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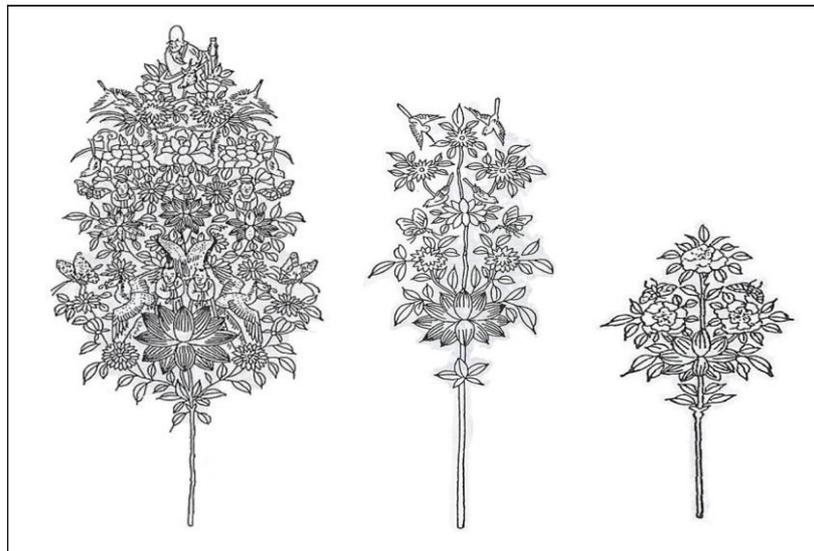


그림 54. 삼층대수파련. 이층중수파련. 소수파련 (『진찬의례』, 1887)

<그림 55>는 진찬 때 사용하였던 의자, 상, 술잔 등의 도설을 담고 있다. 각 용기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향좌아(香座兒) : 향로나 향합을 올려놓는데 사용되는 받침대로 네모반듯하고 작은 탁자 모양으로 생겼다.
- 향로(香爐) : 향을 피우는데 쓰이는 의물로서, 주로 구름모양과 잡보(雜寶)를 새겼으며 뒷개 위에는 주로 공작모양을 새긴다.
- 향꽃이(香串之) : 왕실 의물(儀物)의 하나로 향을 꽂는 향꽃이를 하며,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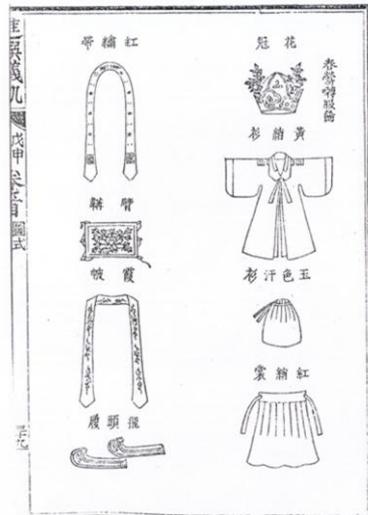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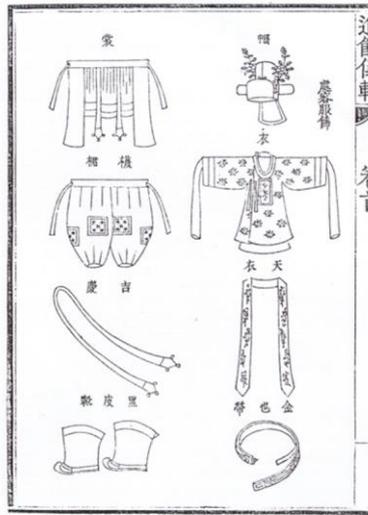
석(豆錫)으로 만들고 삼보수(三浦水)를 들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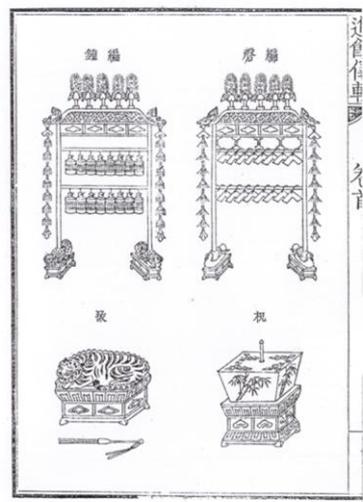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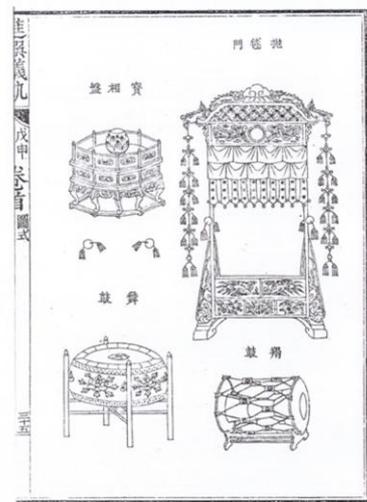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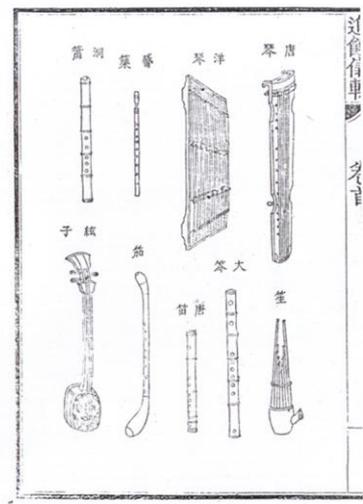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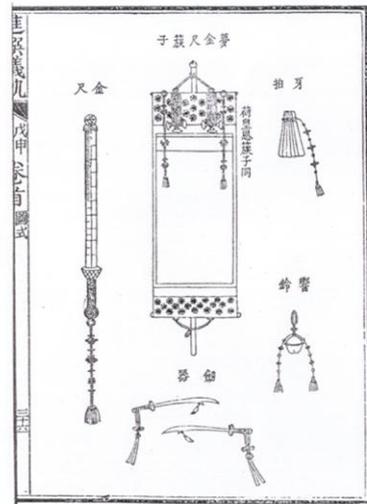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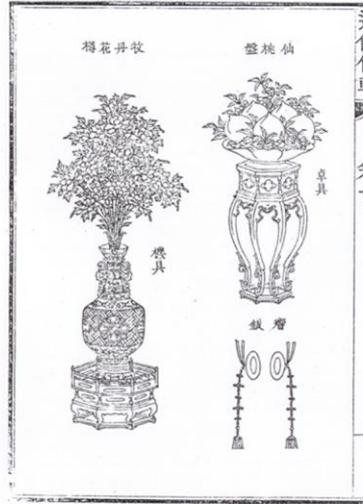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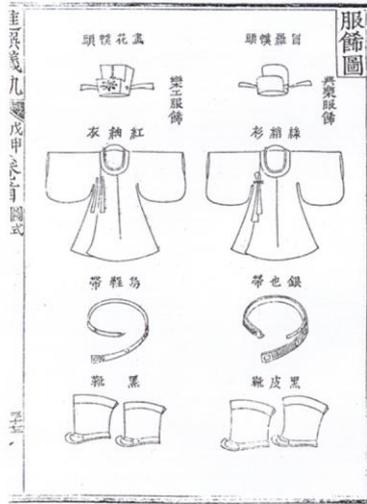
- 향합(香盒) : 향을 넣어두는 작은 그릇으로 향합을 만드는 재료로는 칠기, 도자기, 금속, 패각, 상아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다. 그 기본형을 대개 둥글납작하고 위아래 짝으로 되어있다. 한국의 향합은 청자로 만든 것이 많고 그 밖에 칠기, 목재, 석재 등이 있다.
- 진작탁(進爵卓) : 국가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궁중에서 큰 잔치를 베풀 때 임금에게 술잔을 올리기 위해 사용하던 탁자이다.
- 노연상(爐烟末) : 향로를 올려놓는 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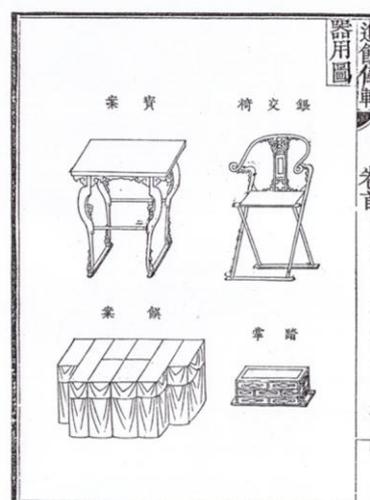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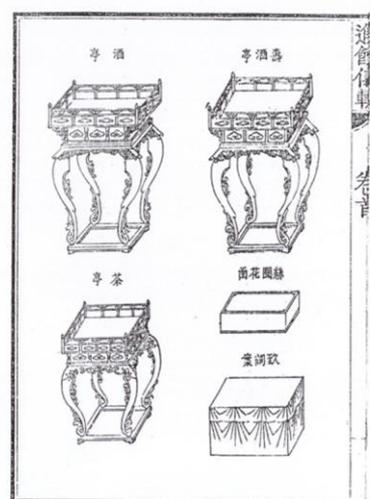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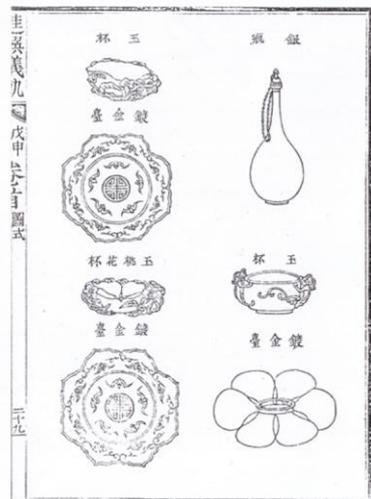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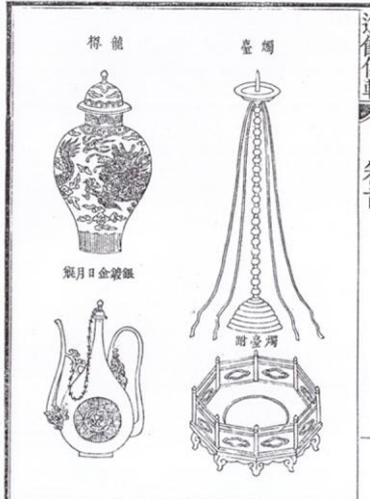


그림 55. 『헌종무신진찬의궤』에 수록된 기용도 중 일부

『헌종무신진찬의궤』는 총 목차는 권수(卷首)와 권1, 권2, 권3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권1>은 왕이 내리 명령이 실려 있는데, 의장과 찬품, 수고한 사람들에 대한 시상 등 과 잔치와 관련된 중요 지시사항이 정리되어 있다. 특히 왕과 세자가 만든 정재악과 무용과 악기에 관련된 많은 도설이 수록되어 있다(<그림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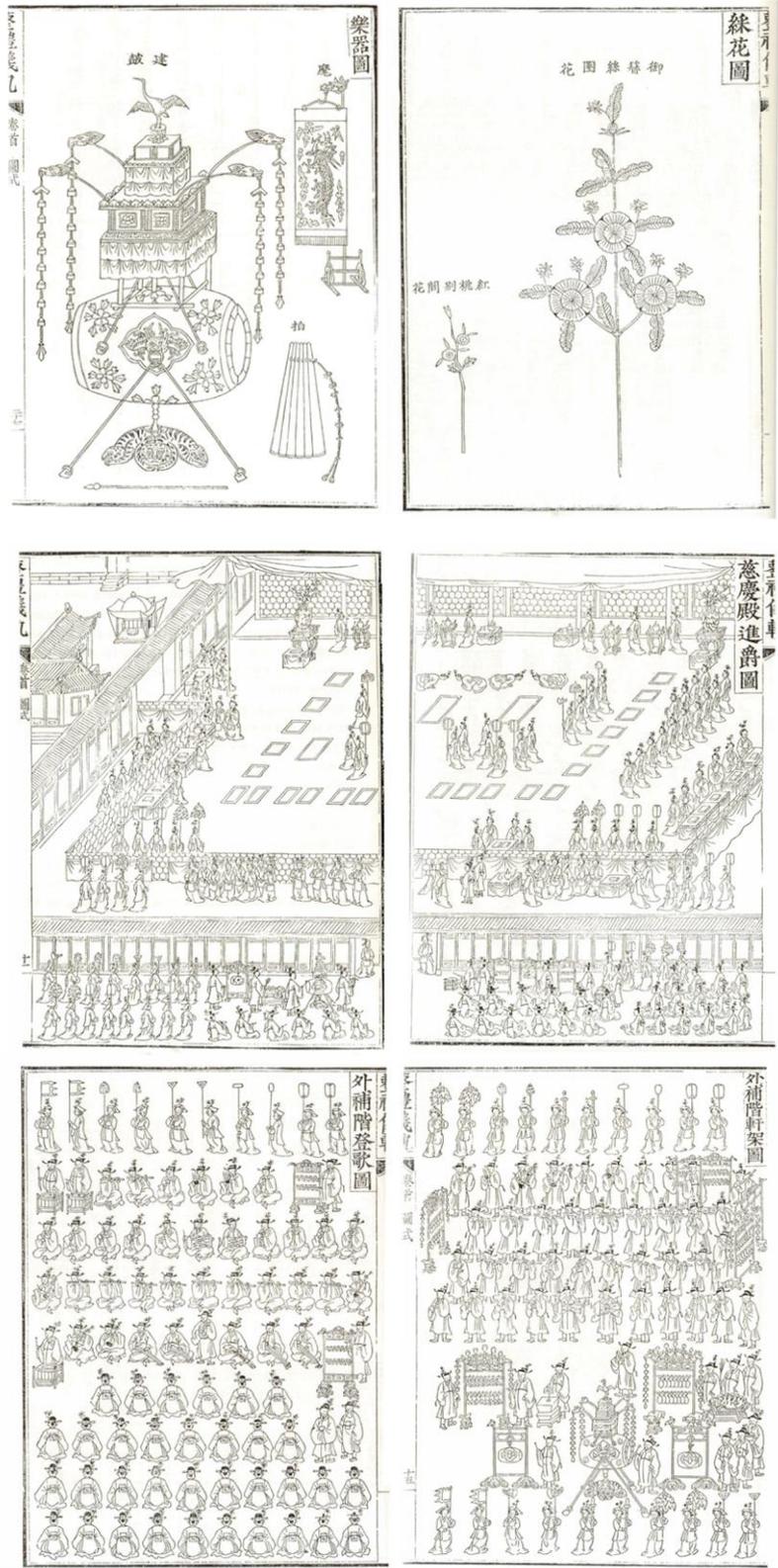


그림 66. 『헌종무신진찬의례』의 <권1>에 수록된 음악과 무용에 관련된 도설

4. 조선시대 악기 만들기

◎ 『악기조성청의궤』

악기조성청이 설치되어 악기를 제작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제작된 악기가 사고로 인해 파손되었거나 숫자가 부족할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한 경우, 그리고 새로운 제례가 생겨 제례악의 연주를 위한 악기를 제작하는 경우이다¹³⁾.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3월부터 생부인 사도세자를 추송하여 장헌세자로 부르고, 무덤인 수은묘(垂恩墓)를 영우원(永祐園)으로, 사당인 수은묘(垂恩墓)를 경모궁(景慕宮)으로 격상시키는 조치를 내렸다.

이렇게 사도제사의 위상이 격상되자 자연스럽게 격상된 위상에 맞는 시설의 개조가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경모궁의 개건과 병행하여 정조는 즉위년 5월 1일에 경모궁의 제례(祭禮)를 정하고, 8월 28일에는 장악원제조 서호수(徐浩修)의 건의를 받아들여 자세에 쓸 악기를 새로 조성하기 위한 악기조성청을 설립했다.

그러나 당시는 영조의 국상(國喪)이 진행 중이었고, 당장 필요한 일도 아니어서 실제작업은 그 다음해인 정조 원년(1777) 2월에 시작되어 5월 28일에 끝났다.

이때 새로 조성된 악기는 편종, 편경을 비롯한 25종 36개의 악기였으며, 그 밖에 제사에 소용되는 의물(儀物)과 관복(官服)도 새로 만들었다. 경모궁제례악은 종묘제례악과 마찬가지로 아악기, 당악기, 향악기로 구성되었으며, 36명이 여섯 줄로 서 춤을 추는 육일무(六佾舞)가 따랐다. 이 책에는 도설이 없는 것이 아쉽지만, 악기 조성에 쓰인 재료와 비용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¹⁴⁾.

	방향
	<p>금부에 속하는 타악기로서 16개의 철판(鐵片)을 틀에 매달아 각퇴로 쳐서 소리 낸다. 중국 양(梁)나라 때 만들어졌다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문종 때 이 악기로 당악을 연주한 이래 줄곧 당악과 고취(鼓吹)에 편성되어 쓰였다.</p>

13) 김문식 외, 조선 왕실 기록문화의 꽃 의궤, 돌베개, 2005.

14) 한영우, 조선왕조 의궤, 일지사, 2005

	<p style="text-align: center;">편종</p> <p>금부(金部)에 속하는 타악기로 서 두 개의 방대(方臺) 위에 나 무사자 한 쌍을 얹히고 그 위 를 용머리와 다섯 마리 목공작 으로 장식했다. 이 틀에 16개 의 종을 상하 2단으로 8개씩 나누어 매달고 망치 모양의 각 퇴(角槌)로 종 아래 정면에 있 는 수(隧)를 쳐 소리를 낸다.</p>
	<p style="text-align: center;">특종</p> <p>금부(金部)에 속하는 타악기로 길이 50cm 정도의 종 하나를 틀에 걸로 친다. 원래는 달(月) 에 따라 서로 다른 12종류의 특종이 사용되었는데, 성종대 이후로는 제례악에서 음악이 시작될 때 사용되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특경</p> <p>석부(石部)에 속하는 타악기로, 한 개의 경석을 틀에 매달아 방망이로 쳐서 소리를 낸다. 경 의 개수와 크기만 다를 뿐 연 주법, 모양 등은 편경과 거의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편경</p> <p>석부(石部)에 속하는 타악기. 악기를 구성하는 경석(磬石)이 희귀하여 중국에서 구하거나 흙으로 구운 도경(陶磬)을 대용하기도 했는데, 세종대에 남양에서 질이 좋은 경석을 발견한 이후 국내 생산이 이루어졌다. 습기와 건조, 추위와 더위에도 음색과 음정이 변하지 않아 모든 국악기 조율의 기준이 된다.</p>
-----------------------------------------------------------------------------------	----------------------------------------------------------------------------------------------------------------------------------------------------------------------------------------------------------------------------

표 15. 악기조성청의 주요 악기 목록
 _위의 악기는 국립국악원에 복원되어 있음.

| 『경모궁악계』에 수록된 악기 그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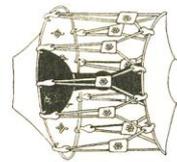
관중(鑼鼓)



관정(鑼鼓)



방장(方響)



장고(杖鼓)



장고(杖鼓)



속(尺)

● 편종(編鐘)

금부(金部)에 속하는 타악기. 두 개의 방대(方臺) 위에 나무사자 한 쌍을 얹히고 그 위를 용머리와 다섯 마리 목공작으로 장식했다. 이 틀에 16개의 종을 상하 2단으로 8개씩 나누어 매달고 망치 모양의 각퇴(角槌)로 종 아래 정면에 있는 수(隨)를 쳐 소리를 낸다.

● 편경(編磬)

석부(石部)에 속하는 타악기. 악기를 구성하는 경석(磬石)이 희귀하여 중국에서 구하거나 흙으로 구운 도경(陶磬)을 대용하기도 했는데, 세종대에 남양에서 질이 좋은 경석을 발견한 이후 국내 생산이 이루어졌다. 습기와 건조, 추위와 더위에도 음색과 음정이 변하지 않아 모든 국악기 조율의 기준이 된다.

● 방향(方響)

금부에 속하는 타악기. 16개의 철판(鐵片)을 틀에 매달아 각퇴로 쳐서 소리를 낸다. 중국 양(梁)나라 때에 만들어졌다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문종 때 이 악기로 당악을 연주한 이래 줄곧 당악과 고취(鼓吹)에 편성되어 쓰였다.

● 장고(杖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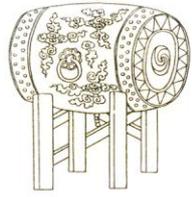
혁부(革部)에 속하는 타악기. 일종의 양면고(兩面鼓)로 허리가 가늘어 세오고(細腰鼓)라고도 한다. 두 개의 오동나무통을 가는 조롱목으로 연결시키고 통의 양편을 가죽으로 메웠다. 북편(왼쪽)에는 두터운 소가죽이나 흰 말가죽을, 채편(오른쪽)에는 보통 말가죽을 쓰며 두꺼운 북편에서는 낮은 소리가, 얇은 채편에서는 높은 소리가 난다.

● 절고(節鼓)

혁부에 속하는 타악기. 상자 모양의 방대 위에 북을 올려놓고 나무방망이로 친다. 기원에 대해서는 중국 수(隨)나라에서 쓰던 것이 조선 세종 때 들어왔다는 것과, 조선 중기에 한국에서 제작하였다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현재 종묘제례악과 문묘제례악에서 주악을 시작할 때와 끝날 때 3번씩 친다.

● 축(祝)

목부(木部)에 속하는 타악기. 속이 빈 나무상자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 속에 방망이를 넣어 친다. 어(?)와 함께 문묘제례와 종묘제례에 사용되고 있다. '축'은 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악기로 동쪽에, '어'는 음악의 끝남을 알리는 악기로 서쪽에 놓는다.



진고(晉鼓)



어(杼)



당비파(唐琵琶)



향비파(響琵琶)



현금(玄琴)



가야금(伽倻琴)

● 진고(晉鼓)

혁부에 속하는 타악기. 한국 북 중에서는 가장 크며 북통이 붉은색이다. 4개의 기둥에 기름대를 설치한 나무틀에 올려져 있으며, 끝을 헝겊으로 감은 나무 방망이로 쳐서 소리를 낸다. 종묘제례악과 문묘제례악에 사용하며 음악이 시작되기 전에 1번, 음악이 끝날 때 3번 친다.

● 어(杼)

목부에 속하는 체명악기(體鳴樂器). 앞드린 호랑이 모양으로 나무를 조각하고 그 등에 27개의 돌기를 깎아 만든 악기이다. 연주할 때는 9조각으로 갈라진 대나무 채(견죽)로 먼저 호랑이 머리를 3번 치고 이어 돌기 긁어내리기를 3번 반복한다. 흰색으로 칠해서 서쪽에 배치하였다.

● 당비파(唐琵琶)

목 부분이 구부러져 있어 곡경비파(曲頸琵琶)라고도 한다. 통일신라시대에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짐작되나 분명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성종 때는 반드시 당비파를 먼저 배우게 했으며, 악공을 취재(取才)할 때도 당비파로 시험 보게 하는 등 매우 널리 쓰였다.

● 향비파(響琵琶)

사부(絲部)에 속하는 발현악기. 거문고, 가야금과 함께 신라삼현(新羅三絃)에 들며, 고구려의 오현(五絃)과 같은 악기이다. 원래 서역의 악기가 고구려를 통하여 신라에 전해진 것으로 당비파와 구분하기 위하여 붙인 이름이며, 목이 곧아 직경비파(直頸琵琶)라고도 한다.

● 현금(玄琴)

사부에 속하는 현악기. 거문고를 말한다. 오동나무와 밤나무를 붙여서 만든 울림통 위에 명주실을 꼬아서 만든 6줄을 매고 솔대로 쳐서 소리 낸다. 소리가 깊고 장중하여 예로부터 백악지장(百樂之丈)이라 일컬어졌으며, 학문과 덕을 쌓은 선비들 사이에서 숭상되었다.

● 가아금(伽倻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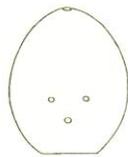
가얏고라고도 한다. 오동나무 공명반에 명주실을 꼬아서 만든 12줄을 세로로 매어 각 줄마다 안족(雁足 : 기러기 발)을 받쳐 놓고 손가락으로 뜯어서 소리를 낸다. 정악 가아금, 풍류 가아금으로는 줄풍류를 비롯하여 가곡 반주에 사용하고,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산조 가아금으로는 가아금산조, 가아금병창 등 민속악 계통의 음악을 연주한다.



아쟁(牙箏)



笙(=생황, 笙簧)



훈(埙)



태평소(太平簫)



해금(奚琴)



평죽(箏箏)

● 아쟁(牙箏)

사부에 속하며 줄을 문질러서 소리 낸다. 원래는 7현(七絃)이었으나 음을 보강해 9현으로 만들어 쓰기도 한다. 고려 때부터 전해 오며 조선 성종 무렵부터는 향악에까지 쓰이게 되었다. 현악기 중 가장 좁은 음역을 지닌 저음 악기로, 정악용(正樂用) 아쟁은 개나리의 껍질을 벗겨 송진을 칠한 활로 줄을 문질러 소리 내고, 산조 아쟁은 말총으로 활을 만들어 연주한다.

● 생(=생황, 笙簧)

옛날에는 관(管)의 개수에 따라 화(和), 생(笙), 우(?) 등의 이름이 있었으나, 지금은 이 종류의 악기를 통틀어 생황이라고 한다. 악기에 김을 붙여넣는 통의 위쪽 둘레에 돌아가며 구멍을 뚫고, 거기에 죽관(竹管)을 돌려 꽂았다. 죽관 위쪽 안에는 길쭉한 구멍을 뚫어 그것을 막으면

소리가 나고, 열면 소리가 나지 않게 하였다.

● 훈(埴)

토부(土部)에 속하는 공명악기. 점토를 구워서 만든다. 중국 고대 토기시대의 유물이며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토속적 악기로 한국에는 1116년(고려 예종 11) 중국 송나라에서 들어왔다. 지공(指孔: 손가락으로 짚는 구멍)이 앞에 3개, 뒤에 2개 있으며 취구(吹口: 부는 구멍)는 위쪽에 있다.

● 태평소(太平簫)

목부에 속하는 관악기. 호적(胡笛), 날라리, 대평소, 소놀 등으로 불렸다. 나무로 만든 긴 관 끝에 혀(reed)를 꽂아서 불며 화려하고 강렬한 음색을 지녔다. 초기에는 주로 군중(軍中)에서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종묘제례악과 대취타(大吹打), 풍물, 범패(梵唄: 불교음악)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 해금(奚琴)

사부에 속하는 칠현악기. 큰 대나무의 밑뿌리와 해묵고 마디가 촘촘한 오반죽(烏斑竹)을 재료로 몸통을 만들고 여기에 줄을 두 가닥 연결하였다. 말총으로 만든 활을 안줄과 바깥줄 사이에 넣고 문질러서 소리를 낸다.

● 필률(箚)

죽부(竹部)에 속하는 공명악기. 고구려 때부터 있었던 이 향피리는 한국 교유의 피리라는 뜻으로, 전래된 당(唐)피리와 구분하기 위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길이 27cm, 관의 안지름 1cm 정도인 대나무(황죽, 篁竹) 한 끝에 해죽(海竹)으로 깎은 겹혀(複舌: double reed)를 꽂아서 분다.



● 대금(大琴)

젓대라고도 한다. 신라 때는 중금(中琴), 소금(小琴)과 더불어 삼죽(三竹)이라 하여 신라악에 편성되었고, 『삼국사기』에는 '신라에는 대금곡이 324곡에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다. 관 위쪽 끝은 막혀 있고, 조금 내려가서 김을 붙여넣는 취구가 있으며, 그 아래에 청공(淸孔)이 뚫려 있는데, 이 위에 갈대 속청을 붙여 이것으로 대금 특유의 음색을 낸다.

● 당적(唐笛)

죽부에 속하는 공명악기. 취공(吹孔) 1개, 지공 6개인 종적(縱笛)이며 해묵은 황죽으로 만든다.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처음 중국에서 들어올 때는 취공 1개에 지공 7개로 당악 계통의 음악을 연주하기에 적당한 구조를 가졌으나, 조선 성종 이후 개량되어 지금에 이른다고 한다.

● 통소(洞簫)

죽부에 속하는 공명악기. 굵고 오래 묵은 대나무에 구멍을 뚫어 만든 종적. 현재 통소(洞簫)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정악용 통소이고 다른 하나는 민요나 시나위 등 민속악에 사용되는 속청 통소로 불리는 통소이다.

● 지(箏)

죽부에 속하는 공명악기. 고대 중국에서 사용하였으며 한국에서는 고구려와 백제 때도 쓰였다는 기록이 있다. 황죽(篁竹)을 재료로 하고, 지공은 모두 5개이며 아랫부분을 십자형으로 뚫어서 음높이를 조절한다.

● 노도(怒濤)

크기가 작은 사면고(四面鼓)로 북통의 길이 33.6cm, 지름 15.4cm이며, 몸통이 긴 북 2개를 십자형으로 포개어 긴 나무장대로 북통을 관통하게 하였다. 북마다 양쪽 허리에 가죽 끈을 길게 매달아 연주할 때는 나무 대를 흔들며 가죽 끈이 북면을 두들겨 소리 나게 한다.

● 대금(大金)

금부에 속하는 타악기. 놋쇠로 만들며 징과 비슷하다. 홍실로 끈을 매어 왼손에 쥐고 사슴 가죽을 감은 망치로 친다. 고려시대부터 전하는 군악기라는 설과, 조선 세종 때 명나라부터 전해진 것이라는 설이 있다.

● 박(拍)

목부에 속하는 체명악기. 6조각의 얇고 긴 판목(板木)을 모아 한쪽 끝을 끈으로 꿰어 폼다 접었다 하며 소리 낸다. 신라 말부터 박판(拍板)이라는 이름으로 춤과 노래의 반주에 쓰였으며, 고려·조선을 거치면서 당악, 향악, 아악에 두루 쓰였다.

표 16. 『경모궁의궤』에 수록된 악기도설

이상, 『악기조성청의궤』와 『경모궁의궤』에서 보이는 전통악기 도설에 대한 소개를 끝으로, 오례에 입각한 왕실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9가지 분야의 의궤의 소개를 마친다.

끝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발견한 사방신도의 도설을 소개하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방신도의 그림과 매우 달리 사실적이고 독특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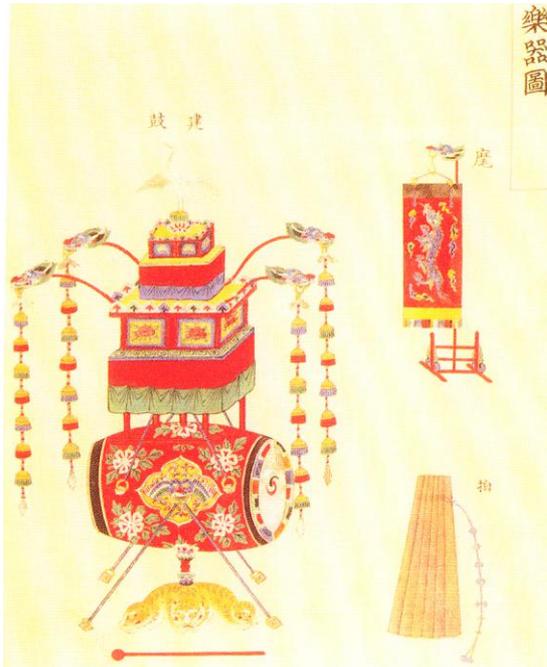


그림 67. 『기사표리진찬의궤』에 수록된 악기 도설
(진찬에 사용되었던 휘, 박, 건고)

찬궁 안에 임금의 관
인 재궁을 넣어 둔다.
다음 그림들은 이 찬
궁 안에 그려진 사수
도 도설이다. (좌청룡
과 우백호, 북혁무와
남주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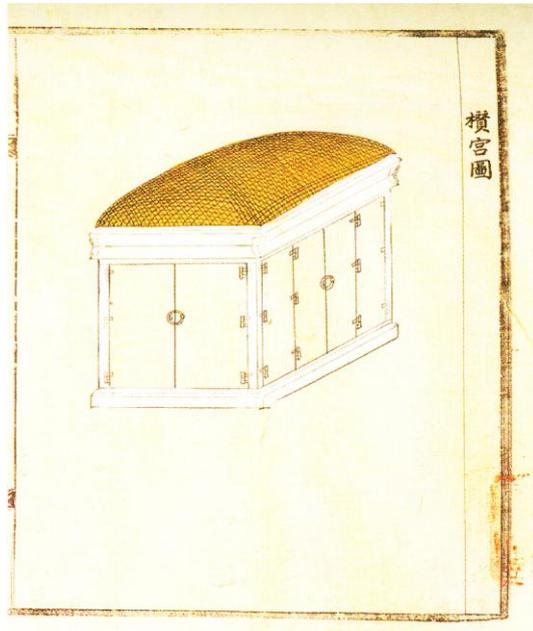


그림 68. 『정조건릉산릉도감의궤』에 수록된 찬궁도



그림 69. 『정조건릉산릉도감의궤』에 수록된 사수도 도설

소개한 의궤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소개	
정순왕후 (1745-1805년)	15살의 어린 나이에 66세의 영조에게 시집온 영조의 두 번째 왕비. 영조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왕실의 최고어른이 되었고 순조 때에는 어린 왕을 대신해 권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영조 (1694-1776년)	조선시대 왕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고 또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다. 인재를 고루 뽑아 정치 싸움을 없애고 사치풍조를 엄하게 다스렸다.
혜경궁 홍씨 (1735-1815년)	사도세자와 결혼해 정조를 낳았다. 젊은 나이에 남편의 죽음을 봐야 했지만 아들 정조를 극진히 키웠으며, 훗날 궁중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한중록>이라는 책을 남겼다.
정조 (1752-1800년)	영조의 손자이자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의 아들로 조선의 22대 왕이다. 11살에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죽음을 당하는 것을 봤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지극하였으며 학문을 장려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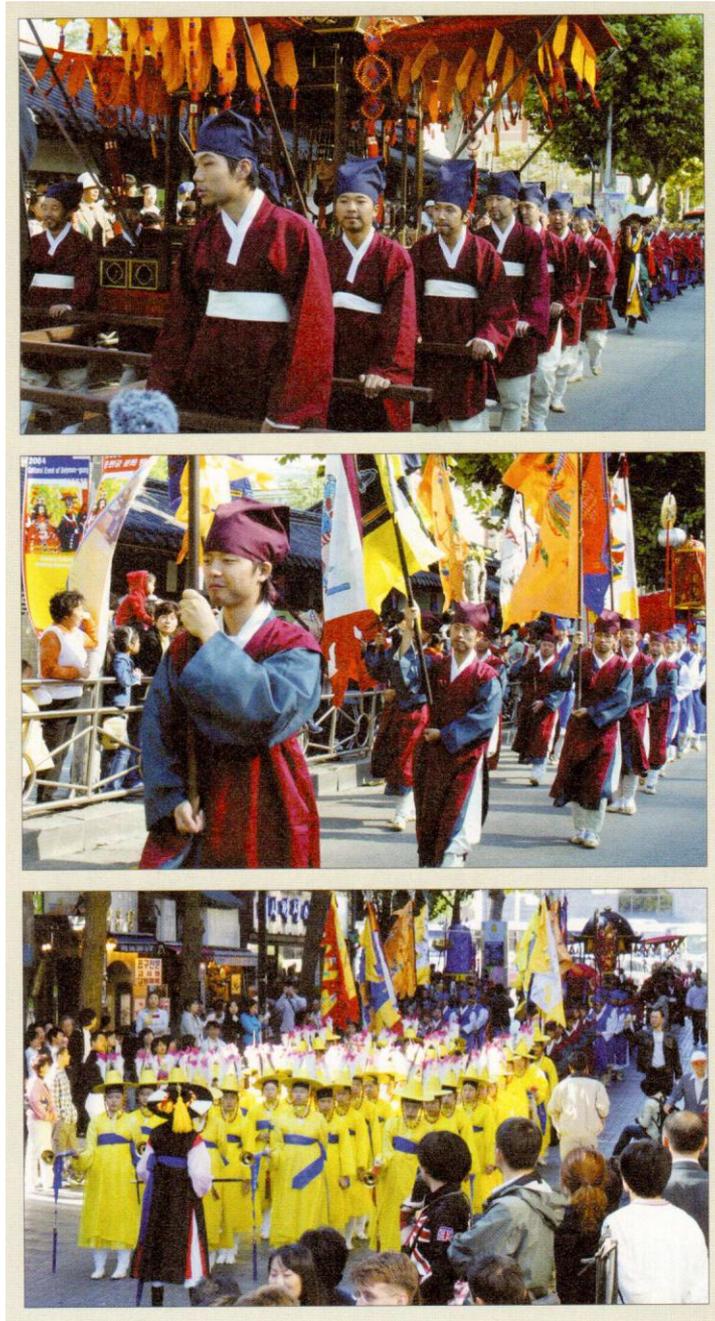


그림 70. 고종가례 재현식 중 찬영의식

● 참고문헌

- 한영우, 《조선왕조 의궤(儀軌)_국가의례와 그 기록》, 일지사, 2010.
- 김문식, 신병주, 《조선왕실기록문화의 꽃, 의궤》, 돌베개, 2005.
- 김상보, 《조선왕조 궁중의궤음식문화》, 음식문화, 수학사, 1995.
- 한영우, 〈조선시대 의궤 편찬 시말〉, 한국학보 제29호, 2003.
- 김종수, 〈국역헌종무신진찬의궤〉, 전통예술편, 민속원, 2004.
- 정혜승, 〈조선후기궁중연향도(宮中宴享圖)와 의궤(儀軌)분석〉, 경기대학교 관
광전문대학원, 식공간연출전공, 2006.

■
제 4부
연구맺음

1장. 조선왕조 의궤의 대표디자인과 문화콘텐츠 개발

1. 조선왕조 의궤의 대표디자인 선정의 제안

한국적 디자인 DNA를 계승하면서 가장 대표성과 독창성을 지닌 의궤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선 많은 종류와 다양한 형식의 의궤들을 조선시대의 정신 문화를 지배한 유교사상에 기반을 두어 오례를 중심으로 5가지로 분야로 의궤를 분류하였다(제3부 대표디자인, 의궤).

또한 오례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거나, 속하지 않으면서도 조선왕조의 왕실문화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건축, 연향, 스포츠(활쏘기), 음악·무용(악기)의 4개 분야를 추가하여 대표 의궤를 선정하였다.

대표디자인 의궤 목록							
	왕실문화 분야	오례	의궤명	대표성	포괄성	독창성	표현성
1	탄생	길례	영조대왕태실가봉의궤	●	△	●	○
2	결혼	가례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	●	●	○	●
3	제사	길례	중묘의궤	●	△	○	●
			사직서의궤	○	△	●	○
4	죽음	흉례	정조국장도감의궤	●	○	○	○
			정조건릉산릉도감의궤	○	△	○	○
5	행차	길례	원행음묘정리의궤	●	●	●	●
6	건축	길례 (군례)	화성성역의궤	●	○	●	●
7	활쏘기	(군례)	대사례의궤	●	○	●	○
8	궁중 잔치	길례 빈례	원행음묘정리의궤	●	●	●	●
			헌종무신진찬의궤	●	○	○	○
			기사진표리진찬의궤	●	○	●	●
			경모궁의궤	○	●	○	○
9	악기	길례, 빈례	경모궁의궤	●	●	○	○

● : 매우 그러하다 / ○ : 그러하다 / △ : 다소 부족하다

표 13. 대표디자인 의궤 목록과 분석

이 9가지 분야의 대표 의궤(12가지)중, 디자인적 관점에서 의궤(종류)의 대표성, 문화적 포괄성, 내용의 독창성, 기술의 표현성의 4가지 평가 척도로 비교해 보았을 때, 『원행음묘정리의궤』,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 『화성성역의궤』의 3가지 의궤와 그 다음 순위로 『기사진표리진찬의궤』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기사진표리진찬의궤』의 경우는 현재 국내에 소장하고 있지 않아 연구·디자인 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현재, 대영박물관 소장).

또한 특정분야, 즉, 왕의 활쏘기를 매우 상세히 그림으로 기록한 『대사례의 궤』는 이 종류의 의궤 중 현재까지 발견된 유일한 의궤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며, 전통약기의 모양새와 기능을 매우 자세히 기술한 『경모궁의궤』 역시 이 분야의 디자인을 하는데 있어 매우 소중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2. 의궤의 문화디자인 콘텐츠화(化)와 상품화를 위한 제안

〈조선왕조 의궤〉와 같은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디자인 상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보다 체계적인 상품화 기획을 하기 위해서 필자의 선행연구¹⁾를 통해 개발된 툴인 '문화상품화 템플릿'을 활용하고자 한다.



그림 71. 문화상품화 개발을 위한 템플릿

피상적인 복제, 단순한 변형과 응용이 아닌, 문화유산을 하나의 문화의 구성 요소(Meme)²⁾로 상정하고 4개 분야의 문화콘텐츠 개발 방향으로 나누어 각각의 카테고리에서 그 문화구성요소의 가장 적합한 디자인 컨셉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의궤〉로부터 한국적 문화DNA³⁾의 발굴과 그것을

1) Dong-Yeon Lee, 〈A Proposal of Culture Product Template Based on Cultural Heritage for Developing Cultural Product〉, IASDR(세계디자인학회), 2009

2) 문화구성요소(Meme): 생물체의 유전자처럼 재현, 모방을 되풀이하는 사회 관습, 문화를 말함.

3) 문화원형으로부터 추출가능한 문화구성인자(MEME)와 요인, 맥락 등의 문화구성 정보단위로 정의함(이동연, 2008).

근거로 한 문화콘텐츠의 생산은 독창적인 상품성과 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지닌 다양한 문화상품(디자인)의 개발이 가능하다.

하나의 문화자원에서 파생되는 다양하게 생산이 가능한 상품군과 아이টে를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4가지의 문화콘텐츠 개발 분야와 9가지의 문화디자인(상품화) 방법으로 풀어 낼 수 있다.

- 1단계 : 선정된 문화자원을 문화상품템플릿(〈그림 71〉)의 중앙에 위치시켜 디자인과 상품화의 소재가 되는 하나의 문화구성요소로 상징하고 4개의 문화콘텐츠 개발 분야로 분화시킨다.

*** 4대 문화콘텐츠 개발군**

재현(再現 : Revival), 재창조(再創造 : Recreation),
재구성(再構成 : Reconstruction), 가치부여(價値賦與 : Value)

- 2단계 : 4개 분야로 분화된 각각의 문화콘텐츠 개발군에서 다시 9가지의 디자인과 상품화 방법이 파생된다.

*** 9가지 디자인·상품화 방법**

의미적 재현, 물리적 재현 / 시각적 재창조, 기능적 재창조
스토리적 구성, 초현실적 구성 / 통합적 가치, 경험적 가치,
글로벌 가치

- 3단계 : 9가지의 상품화 방법 안에서 구체적으로 다양한 문화상품 아이টে를 기획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서 하나의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상품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조선왕조 의궤를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 개발

앞에서 소개한 문화상품화템플릿의 중앙에 조선왕조 의궤를 적용해보면 〈그림 72〉와 같이 4가지의 문화콘텐츠 개발 방향과 9가지의 디자인과 상품화 방법의 기획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 설명은 다음과 같다.

■ 문화콘텐츠 제1군 : 재현 (再現_Revival)

전통문화의 원형과 의미를 그대로 재현하는 문화콘텐츠 개발군으로 의궤의 원형과 의미를 재현하는 문화행사와 이벤트를 포함함.

① 의미적 재현_Meaning Revival

: 의식, 규범, 사고방식, 의미 등 무형의 사상과 개념의 형이상학적 재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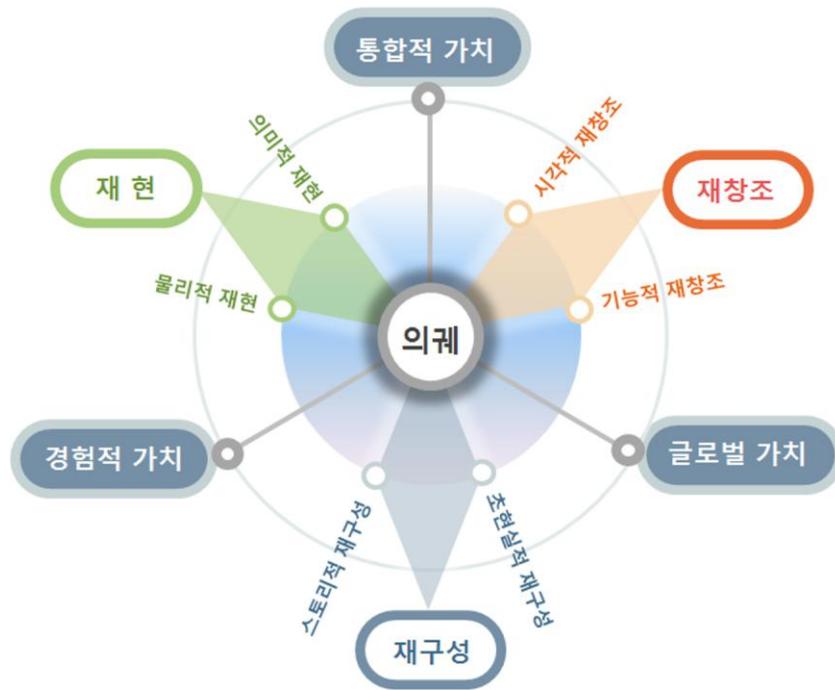


그림 72. 의례의 문화상품화 개발을 위한 템플릿

철저한 고증에 의한 의례의 재현.

- ▶ 의례의 기록을 토대로 당시의 문화행사를 그대로 재현함.
(공연, 퍼레이드 등)
- ▶ 반차도를 토대로 한 재현 : 당시 행렬 구조, 배치, 순서, 의미 등의 고증에 의해 재현함.

② 물리적 재현 Physical Revival

: 전통 문화의 유형적 원형, 즉 형태, 재질, 크기, 비례 규모의 재현이나
실물 제작 등의 프로세스의 복원 등 형이상학적 재현.

- ▶ 도설을 토대로 한 재현 : 당시의 기물과 디자인물 들의 형태,
재질, 색채 등의 디자인 요소를 최대한 그대로 재현하는 작업을
통해 유형의 물리적 재현·복원을 실현함.
- ▶ 의례에 가장 적합한 전통적인 답을 것에 대해서 고증에 의한
재현으로 대량생산과 유통을 위한 패키지가 아닌 전통적인 소재
와 제작 방법의 복원.

■ 문화콘텐츠 제2군 : 재창조 (再創造 Recreation)

문화유산을 소재로 재창조하여 만들어내는 문화콘텐츠 개발 방향 -> 의례의

원형을 기본으로 한 현대 생활과 정서에 맞는 문화콘텐츠를 재창조함.

③ 시각적 재창조_Visible Recreation

: 유형문화재의 시각적 특성의 전체, 혹은 요소를 적용한 디자인의 상품.

- ▶ 의궤의 이미지와 특성을 잘 드러내는 있는 로고와 용기디자인
- ▶ 의궤의 다양한 기물들을 모티브로 하고 현대의 사용자의 눈높이와 니즈에 맞춘 일상용품 디자인
- ▶ 의궤의 탄생배경, 시대상 등과 전통 문화로서의 가치를 알리는 책을 비롯한 출판물
- ▶ 디자인 요소를 활용한 기념품 (미니어처, 자석, 열쇠고리, 휴대폰줄 등)

④ 기능적 재창조_Functional Recreation

: 유형문화재의 본래의 기능을 반영하거나 현대적인 의미의 기능성을 부여한 제품.

- ▶ 현대생활에 맞는 의궤 안의 갖가지 디자인(연구내용에 포함되어 개발된 상태)
- ▶ 의궤에 기록되어있는 당시 문화속의 특유의 형태와 색상을 적용한 디자인 개발과 건축내외장재에의 적용, 제품생산

■ 문화콘텐츠 제3군 : 재구성 (再構成_Reconstruction)

전통문화의 맥락적, 스토리적 요소를 재구성한 문화콘텐츠 개발군

⑤ 스토리적 재구성_Story Reconstruction

: 문화유산의 유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의 재구성에 의한 구현과 창작 동화, 혹은 CF,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의 유형, 무형 콘텐츠로 반영된 상품

- ▶ 의궤 관련 이야기(구조)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스토리 플래잉, 스토리포매팅의 체계 구축
- ▶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매체의 문화콘텐츠 생산

⑥ 초현실적 재구성_Surreal Reconstruction

: 시각적 재창조에다 초현실적으로 확대, 과장되거나 다른 매체를 활용한 형태적 혹은 예술적 재구성이 여기에 속함.

■ 문화콘텐츠 제4군 : 가치부여 (價値賦與_Value)

문화유산의 총체적인 의미, 형상 혹은 이미지가 문화적 가치로 승화된 문화콘

텐츠 브랜딩과 현재 문화 안에서의 가치를 창출함.

⑦ 통합적 가치_Integrated Value

: Integrated Image를 소재로 디자인된 Brand, Symbol, Character가 여기에 속함.

⑧ 경험적 가치_Experience Value

: 경험적 재현이나 과정의 재현을 통한 문화적 가치의 체험이 여기에 속함.

⑨ 글로벌 가치_Global Value

: 하나의 고유한 문화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을 넘어선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글로벌 상품이 여기에 속함.

3. 의궤의 디자인교육 콘텐츠 활용 사례

<조선왕조 의궤>는 디자인 교육에 있어서,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보다 근거 있는 디자인 컨셉을 도출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필자는 연구기간동안 지인들을 통해 이와 같이 의궤를 수업의 주제나 디자인 소재로 한 디자인 교육 사례를 알아보았는데, 필자의 생각과 유사한 사례가 있어 이미지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자료제공 : 경기대학교 건축과, 2학년 [건축실기표현], 지도교수 박창현(SAAI건축 소장)).



GROUND PICTURE INFORMATION



서경대성포도는 영종 6쪽 중 8쪽 '서경대성포도' 서경대성포도는 정조대왕이 1795년(정조 19)에 사도제자의 농민 환탈 방지 및 복심(지옥)의 수형에서 복개로 중세의 회갑연을 베풀었던 행사를 기념 기복하였다. 이 그림은 유리의 명화(명화)인경도, 낙남당명도, 풍수당명도, 낙남당명도, 서경대성포도, 유종루이시도, 시흥왕명도, 주교도) 중에서 서경대성포도이다.

서경대성포도는 영종할 12할 땅 정조가 황제의 사당에 당을 만들고 행차하여 군사포탄을 설치하는 장면이다. 서경대성 포도로 최상 단계에서 행차하는 당시 장안으로 전체 상을 살피면서 당시 장안도 중화(화)한하는 두 유종루에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행차는 왕에 치러진 장안이다. 궁중에 불을 붙인 것 외에도 왕의 표창에는 그다지 미약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그림에서는 중으로 따라 각 요소를 배치할 수 있는데 시도의 동쪽에 있게 왕을 위해 배제하였고 그 아래에는 유종루와 양반을, 그리고 가장 밑에는 서민들을 배치하였다.

CONCEPT



왕을 중심으로 한 왕의 신하들의 모습일 수 있다. 신하들이 왕의 주위에 있는 이유는 왕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모두 같은 거리에서 위치하여야 한다. 왕은 중심으로부터 모든 거리가 같기 때문에 "....."의 반경을 지킨다.

이 그림은 왕에게 갈 수 있는 통로 부분에서 거쳐 가야 할 관공들 중 길라잡이 부분이다. 중심은 왕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왕이 있는 곳까지 거리가 총 4개의 층으로 나뉘고 있다. 오른쪽 가장 바깥에 있는 끝은 왕의 관공을 뜻하는 것이기 있으며, 왕으로부터 왕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술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 그림은 왕에게 갈 수 있는 통로 부분에서 거쳐 가야 할 관공들 중 길라잡이 부분이다. 중심은 왕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왕이 있는 곳까지 거리가 총 4개의 층으로 나뉘고 있다. 오른쪽 가장 바깥에 있는 끝은 왕의 관공을 뜻하는 것이기 있으며, 왕으로부터 왕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술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 그림은 왕에게 갈 수 있는 통로 부분에서 거쳐 가야 할 관공들 중 길라잡이 부분이다. 중심은 왕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왕이 있는 곳까지 거리가 총 4개의 층으로 나뉘고 있다. 오른쪽 가장 바깥에 있는 끝은 왕의 관공을 뜻하는 것이기 있으며, 왕으로부터 왕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술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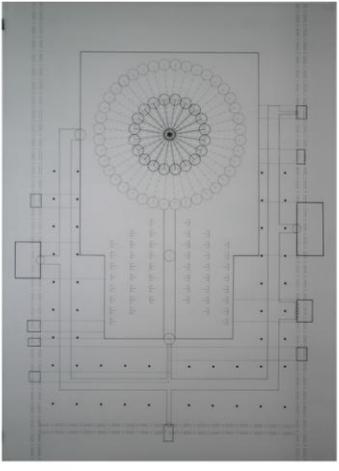
레이어 분석의 일부로서 왕과 관련된 신하들의 위치를 왕궁의 중심에 배치하여 왕, 왕비, 왕의 측근에 배치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각각의 공간 안에서 왕을 볼 수 있는 문과 창을 도식화 하고 대략적으로 drawing에 표현하여 하는 단계를 정리하였다.

그림속에 포함되어진 구도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부분부분을 나누어 보았다. 이것을 나누어 볼 때 구도에 대한 양면이 이해가 이루어졌으며 그림에 표현되어진 지수 그대로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었다.

왕에게 가는 통로를 도식화 한 것으로 왕의 바깥에 위치한 각각의 문과 창을 정리하여진 길들을 서로 연결시켜 통로를 정확히 했다.

DRAWING



2007-1학기 2학년 건축표현학기 개인별 진행 지도
TUTOR : 박 창 현

Student Impomation

성 명 :
학 번 :

Project title :

프로젝트 개요

조선시대의 다양한 기록물을 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고 조선시대의 기록물을 나열한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2D의 형태로 표현한다. 우선, 그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석을 통해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양에 대한 문헌, 위치에 대한 문헌, 내부 구조에 대한 문헌, 자연환경과 관련된 문헌, 동양 문화에 대한 문헌 등을 조사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이후, 그림을 재해석하고 변형시키는 Drawing 한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문헌 자료에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내용을 찾아내고 해석하고 그것들을 다시 연결시켜 만든다. 단지 하나의 관점에서 아닌,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 그림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고집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림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화면 구성에서 활용하여 자신이 분석하고 연결시킨 것을 최대한 Drawing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이 작업에서는 그림에서 보이는 내용이 아닌 보이지 않는 내용을 찾아내고 표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분석한 내용을 다양한 층위로 표현하여 연결시켜야 한다. 이것들이 모여서 최종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Drawing 작업시, 기본적으로는 색도 그리고 질감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색도이다. 색도는 한 가지의 지평을 가지고 다른 단면이 연결될 수 있게 내용을 찾아내어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것이다.

성 명 :
학 번 :

SUMMARY & CONCEPT

프로젝트 개요

조선시대의 다양한 기록물을 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고 조선시대의 기록물을 나열한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2D의 형태로 표현한다. 우선, 그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석을 통해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양에 대한 문헌, 위치에 대한 문헌, 내부 구조에 대한 문헌, 자연환경과 관련된 문헌, 동양 문화에 대한 문헌 등을 조사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이후, 그림을 재해석하고 변형시키는 Drawing 한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문헌 자료에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내용을 찾아내고 해석하고 그것들을 다시 연결시켜 만든다. 단지 하나의 관점에서 아닌,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 그림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고집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림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화면 구성에서 활용하여 자신이 분석하고 연결시킨 것을 최대한 Drawing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이 작업에서는 그림에서 보이는 내용이 아닌 보이지 않는 내용을 찾아내고 표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분석한 내용을 다양한 층위로 표현하여 연결시켜야 한다. 이것들이 모여서 최종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Drawing 작업시, 기본적으로는 색도 그리고 질감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색도이다. 색도는 한 가지의 지평을 가지고 다른 단면이 연결될 수 있게 내용을 찾아내어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것이다.

GROUND PICTURE INFORMATION



동굴도 (1830년경, 작가미상, 576cm x 273cm 16첩 병풍)

동굴도의 동굴이란 궁궐공의 동쪽 궁궐이라 하여 청역궁과 향경궁을 의미한다. 이 그림은 한 통짜의 판에 있는 병풍 공물을 그려 놓은 기록화이다. 이 그림의 크기는 가로 576cm, 세로 273cm로 16첩 병풍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굴도의 제작자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1830년 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이 그림을 그린 화가 역시 알려진 바가 없지만 그림의 규모로 볼때는 도화서의 화공들이 관공으로 작업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동굴도는 매우 사실적인 시선에 담겨진 그림이다. 관공은 좌에서 우에서 시계방향으로 향경궁, 전각과 다리, 당장은 물론 언덕과 고지까지 표현하고 있다. 즉, 동굴도는 궁궐 그림뿐만 아니라 지도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굴도는 오른쪽에 향경궁, 왼쪽에 향경궁의 모습을 동행산 자락과 함께 표현하였는데 주변의 자연환경도 세밀하고 자세로 묘사되어 있다. 즉각적인 나무들의 그림자, 물나무, 과수원 등 세밀한 묘사로 특히 궁궐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그래서 병풍은 뛰어난 궁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CONCEPT

- 동행사선도법

각 건축물의 동쪽과 남쪽을 보이도록 그림 약 45도의 동행사선도법 건축물의 특징이 동행사선도를 이루도록 그려진 그림으로 여러 건축물들의 배치와 규모를 한눈에 가늠할 수 있다.

- 다양한 자연의 표현

임나무, 관행나무, 수양버들, 회화나무, 측백나무, 살구나무 등 동행산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나무를 많이 다룬 방법으로 표현해 냈다. 그밖에 궁궐이나 언덕, 나무 위의 바위집 등 동굴의 주변 풍경을 세밀하게 표현했다.

- 건축의 밀집

오른 건물과 시설을 위해 공간적으로 이동을 써넣어 확인을 용이하게 했다. 지붕도 그림에 쓰여진 글씨가 확인이 가능하다. 이런 지도적인 표현방법은 동굴도만 유지 파악도 쉽게 할 수 있다. 때문에, 현재에 궁궐 복원 자료로 유용하게 쓰인다.

- 세세한 표현

산과 언덕에 둘러싸인 두 개의 전각과 다리, 담장은 물론 언덕과 고지 등 조경까지 실재와 가운 모습으로 선명하고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심지어는 제자의 공간인 동쪽담 발마루에 설치된 과학기도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다.

PROCESS



궁궐을 찾아 사용하는 공간에 따라 사색의 공간과 공적인 공간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왕이 이동하는 중요도가 높은공간, 신하가 이용하는공간, 당실 가계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구분하였다.



궁궐의 여도에 초점을 맞추어 왕의 동선과 표현한다. 왕의 동선은 직선적이고 곧은 길에 달린 언덕 산하의 동선은 복잡하고 오손 건물을 따라가는 형태를 보인다.

왕궁- 왕의 동선
학내- 왕, 세자의 동선
과랑- 산하의 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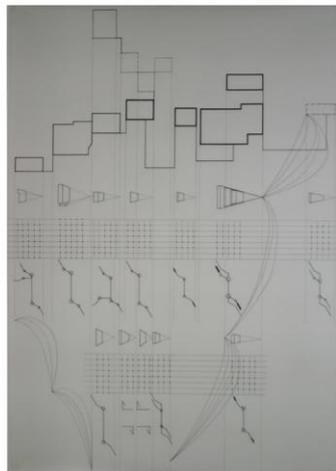


회랑의 3가지 기본요소를 분석하였다. 먼저, 왕자나 지령의 교차점을 중심으로 표현하고, 궁궐 건축물이나 언덕 산으로 표현하고 마지막으로 궁궐의 여도에 해당하는 영역은 단선으로 표현하였다.



그림에 표현된 자연을 분류하여 표현했다. 우선 산의 흐름을 중심으로 표현하고, 산정상에서 바라 내려 내려오는 흐름을 표현한다. 그리고 직선적인 부분은 후원의 면적이 해당하는 부분이다. 산세의 흐름은 길을 따라서 끊어져서 끊고 연결하는 것이 특징이다.

DRAWING



2007-1학기 2학년 건축표현설계 기공별 진행 자료
TUTOR : 박 장 환

SUMMARY & CONCEPT

Student Information

성 명 :
학 번 :

Project title : 불탑강사원영도 후 할아산부도

프로젝트 개요

조선시대의 회화를 선택하여 소리, 시선, 발음을 재해석 하고 소리와 방향성을 중심으로 두고 드로잉.

자연물과 사람, 건축물이 어우러져 있는 조선시대의 회화를 선택하여 다른 관점으로 대하여 분석하고 해석하여 드로잉한다.

진짜구조를 중심으로 소리에 대한 감정, 시선에 대한 감정을 중심으로 이에 따라 표현하는 방향성이 관점에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

이 수업의 드로잉 결과물은 단색(감정)으로 표현한 선과 면을 활용한다. 모든 선은 직도에 의한 선으로 표현하여(단색) 하고 수직과 수평 그리고 모호한 직도를 가진 단남의 선으로 드로잉이 되어야 한다. 선과 면이 만나고 교차하는 곳에서는 정교함이 필요로 하며, 다양한 선의 굵기와 종류로 결과물의 깊이를 만들어 내야 한다.

성 명 :
학 번 :

GROUND PICTURE INFORMATION



광양감사 환영도 후 월야산주도

18세기 감흥도의 작품으로 월야산 주도로 관할사 부속을 환영하기 위해 베풀어진 인희를 담은 이 그림은 <월야산주도>, <부벽주인희도>, <연경장인희도> 중 한 폭이다.

해진 뒤 대동강에서 벌어진 신임 광양감사 환영 잔치가 본격적으로 펼쳐져 있다. 광양 사람들이 거의 나중 못 오무 쫓겨들고 있으며, 강 위에는 갈사가 한 배를 중심으로 베풀어 띠고 있다.

강이라는 장을 보았을때 유속은 빠르지 않으며, 모든 배들은 배의 막대들의 연주에 맞춰 찬찬히 대동강을 활하여 진행해 가고, 이에 따라 사람들의 시선도 또한 활차적으로 대동강쪽으로 시선이 옮겨갈 수 있을 것 같다.

이 작품은 우측 상단쪽의 능히도 일부 대인의 발목 및 의복부터 대동강, 연경장, 심문, 우측의 오한봉 기암 부벽주 등 중경은 환상을 충실하게 사실하게 표현한데 비해 아래 이루어진 인희치고는 전체적인 색채가 너무 밝아 모순을 준다.

이 작품은 최화가 있는 서술적 감동이나 중속화된 표현이 주는 사실성을 느낄 수 있지만 당시의 서화성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공간 관리 서화의 특색은 물론이고 관리들의 놀이를 위해 일반 서민까지 동원하는 당시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준다.

CONCE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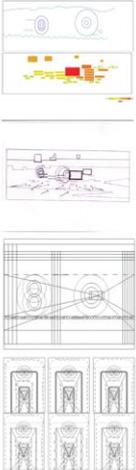
1) 시간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그림 → 저녁에 지는 달,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그림 → 저녁에 뜨는 달.
왕놀이는 저녁에 이루어 진다. 그림 감흥도는 북쪽에 있어서 남쪽을 보고 그려진 것이 된다. 그림이던 그 광양감사가 대동강 남쪽에 있어야 미묘하다. 하지만 대동강 북쪽에 할당성이 차지하고 있다.

2) 방향성
오른 배는 대동문(북쪽)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감으로 보아 물살을 빠르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북쪽으로 느리게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소리 & 시선
달 일쪽에 위치하고 있는 최고수 익대들이 있고 있는 배 두 척과 광양감사가 타고 있는 배의 일쪽에 익대들이 막기를 연주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관악기와 관악기 타악기가 연주되고 이 소리를 점점 퍼져나가고, 배가 앞으로 나아가감으로써 소리로 함께 앞으로 향해나간다.
대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 같이 광양감사의 배를 바라보며 함성을 지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리와 시선을 한 곳을 향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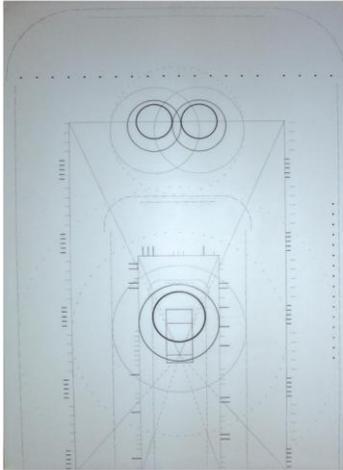


PROCESS



- 소리 - 악기소리 : 율령위에서 시작
- 사람소리 : 대지위에서 시작
악기와 소리는 향으로 표현한 방향에 사람의 소리는 악기의 소리보다는 멀리 퍼져나가지 않으므로 지그재그 직선형태로 표현하였다.
- 풍요도
색상을 주어서 풍요도를 표시, 색상이 진한 부분일수록 이 그림에서 눈이게 보여 줄 것이다.
- 소리 + 시선 + 풍요도 + 전체적 구도
악기의 소리 - 방향성을 더해 표현, 사람의 소리 - 시선과 함께 표현, 전체적 구도 - Top View
풍요도 - 광양감사가 타고 있는 배를 중요부부분으로 보고 다른 선보다는 굵게 선명하게 표현.
- 거리 비율 - 대동문, 연경장, 부벽주에서 기둥을 따라서 전체적인 율령 고갯마루와 대동문과 연경장, 연경장과 부벽주 사이의 실제거리와 비율을 두고 위치.
- 시선 - 한곳에 집중, 직선화.
- 중심 - 광양감사의 배의 위치 : 가로 1/2 세로 2/3
- 오른쪽 시선은 중점화.
- 시작 그리고 끝
- 악기 소리 - 한사이마의 거리 : 수평의 범위 (2,3,5,8,12-)
- 소리의 항상 - 점선과 실선의 표현
- 사람의 소리 - 실선, 두께의 차이(점선) : 한사이마
- 기둥 - 대동문, 연경장의 기둥을 일직선화 시킴
거리 : 실제거리의 비율.
- 종착점 - 배의 마지막 종착지 : 대동문
- 기둥을 점으로 표현
- 방향성 - 왕놀이는 도읍을 향해서지만 동시에 광양성을 내려가기 위해 두 부동들 겹침이 표현하고 길이를 일정 법칙에 의해 고정.

DRAWING



2장. 맺음말

『한국디자인DNA 심화연구 : 조선왕조 의궤』는 세계기록유산인 <의궤>를 통해 한국디자인의 특성을 찾아내고 주요 개념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또한 연구결과로는, 의궤 중에서 한국적 디자인의 대표성과 독창성을 지닌 대표 디자인(대상)을 추천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주로 의궤의 개념과 의의의 보고와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검색하고, 현재의 연구 현황을 소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아울러 앞으로 의궤에서 디자인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와 디자인의 대상(대표 의궤)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것이 결국 구체적인 연구목표가 되었다.

이러한 목표는 사실 필자의 역량을 넘어서는 것이다. 짧은 집필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연구대상인 의궤의 육중한 무게를 느끼면서 가능한 한 의궤의 모든 연구 자료를 찾아내는 일과 그것을 읽고 이해하는 데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확실한 근거와 이유가 있는 각 의궤의 탄생배경과 기록의 치밀함, 그리고 기록의 방대함에 놀라면서, 캐어내도 계속 팔려 나오는 고구마줄 것처럼 그 끝을 끊어내기 어려운 연구대상을 만나 진땀을 뺐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알게 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궤는 매우 의미 있는 수많은 기록(레코드)과 가치들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것들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 세계 유일의 독자적인 기록 문화.
-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기록적 가치.
- 오늘날의 영상 콘텐츠를 위한 콘티 작업과 같은 기록물, 의궤.
- 조그마한 군주국가의 기록이 아닌, 한때 세계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유교 전통의 핵심을 대표하는 기록.
- 조선왕조 의식의 변화 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를 비교 연구적 가치.
- 각종 물품의 이름, 건축용어, 궁중의복과 궁중음식의 이름_국어사적 가치.
- 의식과 실물이 거의 없어진 오늘날 의례연구 및 그 복원이 가능하도록 한 그림의 가치_Visual-Oriented 기록.
- 행정 매커니즘의 이해 가능 / 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내막의 조명.
- 세밀한 묘사, 정확한 수치, 사실적, 입체적, 생동감의 그림.
- 기록 이외의 그림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부분인 점.
- 의궤는 우리의 마지막 왕조의 정치사, 경제사, 건축사, 미술사, 언어사, 복식사 등의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료.
- 의궤 전문 연구자나 전통문화 복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킴서
- 기록과정, 제작과정의 체계_기록 시스템.
- 600년의 생활상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 등

의궤는 이처럼 조선 왕실의 풍속과 생활, 경제, 행정, 건축,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담고 있는 데다 600여년동안 꾸준히 기록된 예는 세계적으로

유레가 없어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여기에서 의궤로부터 한국적 디자인의 DNA를 추출한다든가, 전통문화로부터 현대에 활용 가능한 디자인 요소와 소재를 찾는 일은 어쩌면 쉽고도 다채로운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디자인 연구와 활동을 시작하려면 의궤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의궤에 관한 전문 자료(서적과 논문)를 살펴보면, 포괄적 의미의 디자인 분야에 속하는 건축과 전통의상(복식)분야 이외에는 시각이나 제품 등 대표적인 산업디자인 분야의 집중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아직 없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의궤 안에는 너무나 많은 디자인 연구거리와 실제 디자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한국적 디자인 소재가 산재 되어 있다는 점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랑스러운 세계유일의 기록문화가 우리의 디자인 DNA에 계승될 수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문화디자인 연구에 매진해야한다는 의욕을 갖게 한다.

■ 부록

세계기록유산이란⁴⁾

국제자문위원회(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는 유네스코의 전반적인 프로그램 계획 및 이행에 자문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조직체로써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선발한 14명의 기록유산보존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다. 사무총장은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국제자문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업무의 체계화를 위해 기준과 절차를 제정 및 수정하고 적합한 보조기관이나 소위원회를 지원한다. 특히 세계기록유산의 전반적인 전략과 정책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자문위원회에서는 세계 각국에서의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진행경과를 점검하고, 소위원회, 지역위원회 및 사무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며, 이들의 기능과 책임에 대해 자문을 한다. 또한 필요시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전반적인 지침을 수정하거나 갱신하며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한 책임을 지기도 한다. 세계기록유산위원회는 세계기록유산이 궁극적으로 협약의 형태로 강화되는 것을 지향하며 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목적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사업은 세계의 기록유산이 인류 모두의 소유물이므로, 미래세대에 전수될 수 있도록 이를 보존하고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기록유산에 담긴 문화적 관습과 실용성이 보존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주요전략

세계기록유산의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다:

- 기록유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통한 보존을 장려
-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의 접근을 보장하고 평등한 이용을 장려
- 세계적 중요성을 가진 기록유산에 대한 모든 국가들의 인식을 높임

대상

- 기록유산은 기록을 담고 있는 정보 또는 그 기록을 전하는 매개물이다. 단독 기록일수 있으며 기록의 모음(archival fonds)일수도 있다.
- UNESCO는 1995년에 인류의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유산인데도 훼손되

4)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세계유산 사이트
http://www.unesco.or.kr/whc/mow/kormow_uigwe.asp

거나 영원히 사라질 위험에 있는 기록유산의 보존과 이용을 위하여, 기록 유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효과적인 보존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사업을 시작하였다.

예) 필사본, 도서, 신문, 포스터 등 기록이 담긴 자료와 플라스틱, 파피루스, 양피지, 야자 잎, 나무껍질, 섬유, 돌 또는 기타자료로 기록이 남아있는 자료 그림, 프린트, 지도, 음악 등 비문자 자료(non-textual materials) 전통적인 움직임과 현재의 영상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원문과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태의 정지된 이미지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전자 데이터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준

세계기록유산은 영향력, 시간, 장소, 인물, 주제, 형태, 사회적 가치, 보존 상태, 희귀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기록유산은 일국 문화의 경계를 넘어 세계의 역사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쳐 세계적인 중요성을 갖거나 인류 역사의 특정한 시점에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두드러지게 이바지한 경우 선정된다. 또는 전 세계 역사와 문화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인물 및 인물들의 삶과 업적에 관련된 기록유산도 있다. 형태에 있어서 향후 기록문화의 중요한 표본이 된 경우, 예를 들면 야자수 나뭇잎 원고와 금박으로 기록된 원고, 근대 미디어 등과 같은 매체로 된 기록유산도 있을 수 있다.

주요기준

- 영향력(Influence)

기록유산이 일국 문화의 경계를 넘어 세계의 역사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쳐 세계적인 중요성을 갖는 경우.

ex) 세계 역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 정치, 종교 서적 등

- 시간(Time)

국제적인 일의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현저하게 반영하거나 인류 역사의 특정한 시점에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두드러지게 이바지한 경우.

ex) 초기 영화산업의 자료 유산, 독립운동 또는 특정한 시점과 장소의 관습 등과 관련된 내용

- 장소(Place)

기록유산이 세계 역사와 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던 특정 장소

(locality)와 지역(region)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ex) 농업혁명과 산업혁명 기간 동안에 전 세계 여러 지역의 특별히 중요한 장소와 관련되거나, 전 세계 역사에 큰 반향을 일으킨 정치, 사회 종교 운동의 태동을 목격하고 있는 기록유산

- 사람(People)

전 세계 역사와 문화에 현저한 기여를 했던 개인 및 사람들의 삶과 업적과 특별한 관련을 갖는 경우.

- 대상/주제(Subject/Theme)

세계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주제를 현저하게 다룬 경우.

ex)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도서관에 있는 Radziwill Chronicle (편년사)사업 형태 및 스타일(Form and Style): 형태와 스타일에서 중요한 표본이 된 경우

ex) 야자수 나뭇잎 원고와 금박으로 쓰진 원고, 근대 미디어 등

-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하나의 민족 문화를 초월하는 사회적, 문화적 또는 정신적으로 두드러진 가치가 있는 경우.

- 이차적인 기준(등록보조기준)

- 원상태로의 보존(Integrity): 특별히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
- 희귀성(Rarity): 독특하고 특별히 진귀한 경우

표 / 그림목차

- 표1. 연구내용 구성표
- 표2. 의궤에 기록된 오례별 기록 내용
- 표5.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의 의궤 목록
- 표6.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의궤 목록
- 표7. 기타 의궤 소장처와 목록
- 표8.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의 의궤 목록
- 표9. 일본과 기타 지역의 소장처와 의궤목록
- 표10. 고종대의 『대례의궤』의 행사 내용 목록
- 표11. 『경모궁의궤』의 도설 목록
- 표12.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 웃감 예물 목록
- 표13.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 장인명단_일부분
- 표14. 『진연의궤』 기녀 명단_일부분
- 표15. 악기조성청의 주요 악기 목록_위의 악기는 국립국악원에 복원되어 있음.
- 표16. 『경모궁의궤』에 수록된 악기도설
- 표17. 대표디자인 의궤 목록과 분석

—

- 그림1. 의궤의 의미
- 그림2.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 반차도와 『기사표리진찬의궤』의 악기도설
- 그림3. 『화성성역의궤』에 수록된 화성행궁전도 도설
- 그림4. 의궤의 제작과정과 직제
- 그림5. 아람용의궤 『영의전영건도감의궤』와 분상용의궤 『창덕궁영건도감의궤』
- 그림6. 강화 정족산사고, 무주 적상산사고, 강릉 오대산사고, 봉화 태백산사고
- 그림7. 강화부 갑곶진에 정박한 프랑스 함대_주베르, 1866년
- 그림8. 『경모궁의궤』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 그림9. 『대사례의궤』 어사례도(임금의 활쓰기)
- 그림10. 『화성성역의궤』 화성전도
- 그림11. 『원행을묘정리의궤』의 반차도
- 그림12. 『기사표리진찬의궤』 창경궁 경춘전 진찬도
- 그림13. 『동궐도』
- 그림14. 백자 내외호(백자 태항아리)
- 그림15. 태실과 태실비 도설
- 그림16. 정종대왕 태실과 태실비
- 그림17. 『영조대왕태실가봉의궤』
- 그림18.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의 반차도 : 왕과 왕비의 가례행렬
- 그림19.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 반차도, 영조의 가마 부분
- 그림20.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 반차도, 장순후의 가마행렬과 가교도 도설
- 그림21.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에 수록된 기명도(부분)
- 그림22. 『종묘의궤』에 수록된 종묘전도
- 그림23. 『사직서의궤』에서 인용한 제례 시 국왕과 왕세자의 복장
- 그림24. 남문에서 바라본 영녕전과 종묘 정전
- 그림25. 종묘의례 재현행사
- 그림26. 『정조국장도감의궤』에 수록된 반차도 중 부분

- 그림27. 『원행음묘정리의궤』에 수록된 한강 주교도
- 그림28. 『원행음묘정리의궤』에 수록된 봉수당진찬도
- 그림29. 〈화성능행도〉에 있는 봉수당에서의 해경궁홍씨의 회갑연 모습
- 그림30. 『원행음묘정리의궤』에 수록된 창경궁 연희당 진찬도
- 그림31. 『원행음묘정리의궤』에 수록된 신흥루사미도
- 그림32. 『원행음묘정리의궤』에 수록된 기물과 복식
- 그림33. 해경궁 홍씨가 탔던 가마의 부분도.
- 그림34. 해경궁 홍씨의 가교도
- 그림35. 『원행음묘정리의궤』에 수록된 반차도
- 그림36. 『원행음묘정리의궤』의 반차도
- 그림37. 『원행음묘정리의궤』를 인용한 해경궁 홍씨진찬연 재연행사
- 그림38. 『화성성역의궤』에 수록된 화성전도
- 그림39 『화성성역의궤』에 수록된 화성행궁전도 도설
- 그림40. 『화성성역의궤』에 수록된 거중기 분해도 및 거중기 도설
- 그림41. 『화성성역의궤』에 수록된 서장대도와 서장대성조도 도설
- 그림42. 『화성성역의궤』에 인용한 4대문 도설과 현대의 사진.
- 그림43. 『대사례의궤』에 수록된 어사례도, 임금의 활쓰기.
- 그림44. 『대사례의궤』에 수록된 어사례도 중 일부.
- 그림45. 『대사례의궤』에 수록된 시사례도
- 그림46. 『대사례의궤』에 수록된 시사관상별도
- 그림47. 『대사례의궤』에 수록된 어사례도. 어가와 용기
- 그림48. 『대사례의궤』에 수록된 어사례도.
- 그림49. 〈기축진찬도(己丑進饌圖)〉, 1892, 건본채색, 8폭, 호암미술관
- 그림50. 〈임인진연도(壬寅進宴圖)〉, 1902, 건본채색, 10폭, 국립국악원
- 그림51. 『기사진표리진찬의궤』 창경궁 경춘전 진찬도
- 그림52. 『헌종무신진찬의궤』에 수록된 통명전익일회작도
- 그림53. 『헌종무신진찬의궤』에 수록된 무고(좌), 포구락(우) 일부
- 그림54. 삼층대수파련. 이층중수파련. 소수파련 (『진찬의궤』, 1887)
- 그림55. 『헌종무신진찬의궤』에 수록된 기용도 중 일부
- 그림56. 『헌종무신진찬의궤』의 〈권1〉에 수록된 음악과 무용에 관련된 도설
- 그림57. 『기사표리진찬의궤』
- 그림58. 『정조간릉산릉도감의궤』에 수록된 찬궁도
- 그림59. 『정조간릉산릉도감의궤』에 수록된 시수도 도설
- 그림70. 고종가례 재현식 중 찬영의식
- 그림71. 문화상품화 개발을 위한 템플릿
- 그림72. 의궤의 문화상품화 개발을 위한 템플릿

